

# 蘇聯의 改革·開放과 韓半島



國 土 統 一 院  
調 查 研 究 室



## 序 文

고르바초프 蘇聯共産黨 書記長兼 最高幹部會議議長의 執權以後, 蘇聯이 최근 수년동안 展開하고 있는 改革·開放政策路線은 國內外的으로 많은 波紋을 일으켜 全世界的 耳目을 集中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政策의 變化는 現在 蘇聯이 안고있는 諸問題의 解決을 “社會經濟 發展의 加速化”에 두고 이를 위해 改革(페레스트로이카), 公開性(글라스노스트)의 推進이 不可避하다는 判斷에 緣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蘇聯은 이와함께 對外的으로는 “軍縮提議”와 “平和共存”主張등 보다 세련된 平和攻勢를 통한 周邊霧圍氣 造成을 圖謀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脫教條主義의 자세와 對西方外交, 그리고 다각적으로 國際經濟協力을 摸索하면서 그들 국가가 「亞·太國의 一員」이라는 立場표명은 窮極的으로 韓半島問題에도 적지않은 影響을 줄 것이라는 展望이 支配的입니다.

더구나 中·蘇·東歐 共産國家들의 大舉 참가리에 서울올림픽大會가 成功的으로 開催되었고, 이 중 헝가리와 유고등과는 貿易代表部 設置에 합의를 봄에 따라 이들 共産國家들의 對韓半島 認識 變化와 漸進的 交流增大는 必然的으로 제6공화국 出帆이래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北方政策에 보다 有利한 局面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蘇聯의 變化를 銳意 注視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本 冊子는 그동안 當院에서 周邊情勢 研究의 一環으로 斯界 專門家들과 함께 推進한 바 있는 “蘇聯의 變化와 韓半島問題”研究의 一部를 編輯, 基本 자료화하여 「北方政策 研究資料 시리즈 I」로서 發刊하는 것입니다.

本 冊子의 內容이 共産圈研究 및 統一問題를 研究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收錄된 內容들이 반드시 當院의 公式的인 見解를 反映한 것이 아님을 添言해 둡니다.

1988. 12.

調 查 研 究 室 長

崔 文 鉉



# 總 目 次

## \* 序 文

1. 蘇聯의 改革과 불세비키의 社會主義의 反省 ..... 3  
(서울大 河龍出 教授)
2. “고르바초프”以後의 中·蘇關係와 韓半島 ..... 69  
(崇實大 文首彥 教授)
3. 고르바초프의 아시아 重視政策과 北韓의 役割  
— 最近 蘇·北韓間の “特別關係”發展 研究 — ..... 119  
(檀國大 金裕南 教授)
4. 韓國의 對蘇接近方案 摸索  
— 最近 蘇聯의 對內外政策 動向과 對韓視角의 分析을 中心으로 — ..... 181  
(外國語大 奇連洙 教授)
- \*附錄 I. 고르바초프 改革과 金日成의 選擇 ..... 231
- \*附錄 II. 新 베오그라드 宣言 ..... 241



# I. 蘇聯의 改革과 볼셰비키의 社會主義的 反省

서울 大 學 校  
教授 河 龍 出





# 目 次

I. 페레스트로이카의 當爲性 .....	7
II. 페레스트로이카 : 問題意識的 考察 .....	16
III. 페레스트로이카와 經濟改革 .....	36
IV. 展 望 .....	57
V. 맺 는 말 .....	65



## I. 페레스트로이카의 當爲性

고르바초프 정권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캐치프레이즈화 하였다. 再編成, 再構成, 再建等を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가 蘇聯의 政治的 심볼로 된 배경은 무엇인가? 무엇이 再編成, 再構成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는가? 페레스트로이카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具體的 實踐을 위한 方案들은 무엇인가? 또한 이들 政策 代案들의 일관성과 推進 現況과 展望은 어떠한가?

本稿는 위와 같은 諸般問題들에 대한 잠정적 解答과 評價를 시도하는데 그 主要目的을 두고 있다. 本 研究의 기초 자료로는 基本的으로 고르바초프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연설과 蘇聯에서 刊行되는 주요 新聞과 정기 간행물에 의존하였다.<sup>1)</sup>

페레스트로이카의 登場 背景으로는 크게 蘇聯式 社會主義體制가 가져 온 問題點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17年의 蘇聯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부문에서 낙후된 나라였다. 동시에 狀況的으로는 戰爭에 지쳐있는 나라였다. 러시아 革命은 蘇聯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동시에 勞動者의 參與와 平等 즉 政治的 民主化와 社會的 正義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工業化를 통한 勞動者의 生産과 이와 병행한 新規 勞動者들의 政治意識의 변화 및 이를 통한 社會民主主義 政治體制間에는 근본

---

註 1) 具體的으로 Pravda, Kommunist, Izvestia, Vprosyi filosofii NovyivMir 등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西方의 資料도 參考로 인용하였다.

적인 모순이 있었다. 즉 급속한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政治的 機構는 中央執權的이고 이를 뒷받침할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반면 政治的 要求는 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現實과의 갭, 政治的 要求와 經濟的 要求와의 충돌을 둘러싸고 어떠한 戰略을 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論爭의 초반부터 政治權力 싸움과 關聯, 논란의 爭點이 되었다.<sup>2)</sup>

그러나 볼셰비키의 組織的 特徵은 비밀 결사대와 같은 小規模 정예성과 급진적 改革主義가 혼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組織的 性格은 러시아의 당시 狀況과 결부되어 ‘民主的’ 要素보다는 ‘集中的’ 次元을 강조하게 되었다. 革命 以後의 러시아 國內 事情은 1次 大戰의 介入에 의한 피해와 貧困, 피곤으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포기토록 했으며, 國內적으로 횡행하는 구세력의 도전은 모두 政治的 集中化를 促進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이미 레닌의 생전인 第10次 全黨大會에서 黨內에서의 反對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sup>3)</sup>

볼셰비키 政權은 戰時 共產主義 時期와 以後 적응으로서의 신경제체제라는 過渡期를 겪는 과정에서 레닌의 肉體的 한계에 따른 政治的 역할의 弱化和 함께 장기적인 政權의 目標設定이 지연되었다.

레닌의 죽음은 蘇聯 政治史에 커다란 분기점이었고 동시에 증대한 과제

---

註 2) 트로츠키와 스탈린, 부하린과 스탈린간의 論爭은 곧 이러한 問題가 될 것이다. Stephen Cohen, *Bukharin and the Bolshevik Revolution* (New York:Oxford University, 1980).

3) Leonard Schapiro, *The Russian Revolutions 1917* (New York:Basic Book, 1984), p. 198.

를 던져주었다. 主要 課題는 곧 政治와 經濟의 갈등이었고 經濟戰略에 관한 것이었다. 새로이 權力을 잡은 볼셰비키黨-共產黨과 蘇聯 社會와의 關係 定立에 관해서 黨이 社會를 指導하는 方式, 黨 內部的 運營問題, 經濟戰略 次元에서 工業과 產業間의 개발속도와 폭의 조정, 工業 內部에서 重工業과 輕工業의 비중, 海外部門의 役割들에 관한 중대 결정이 요청되었다. 이 이외에도 社會構造 변혁 방안과 外交政策의 方向에 관한 論難이 불가피하였다.

스탈리니즘이 볼셰비키주의의 연속인가 또는 변형 내지는 몇개의 性格인 것인가에 관한 論爭<sup>4)</sup>은 본고에서는 論議의 관심 밖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스탈린 체제의 制限 側面을 分析하고 이것이 이후 蘇聯 社會主義 體制에 끼친 影響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것은 고르바초프가 지적했듯이 蘇聯式 社會主義 원형을 세운 체제였던 동시에 이후 많은 問題點을 남겼기 때문이다.

스탈린 체제의 政治的·行政的 特徵은 스탈린을 頂點으로 하는 中央執權 的 體制를 의미하였다. 中央執權體制는 광범한 政治的 테러와 적나라한 暴力의 행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와 같은 中央執權體制는 一國社會주의 라는 위기 조성적 분위기 하에서 급속한 經濟成長의 이름으로 합리화되었다.

그러나 中央執權的 構造의 特徵은 완벽한 規則 中心의 傳統的 웨베리안 官僚機構가 아니라 패트론(Patron)인 스탈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따라서 스탈린의 개입에 따라 意思決定과 執行이 변화하는 體制였다. 이러한

---

註 4) Stephen Cohen, "Bolshevism and Stalinism," in Robert C. Tucker, ed., Stalinism(New York: Naton, 1977), pp. 3-30.

體制은 西方의 많은 Post-totalitarian 蘇聯研究家들에 의해 肯定的으로 評價되기도 하였다. 즉 複雜・多様な 과제를 빠르게 동시에 해결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적응해야 할 필요를 이같은 體制가 充足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體制의 問題點도 장점 못지 않게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다.

經濟的으로 스탈리니즘은 重工業 爲主의 高速成長이었다. 1930年代 蘇聯의 經濟는 年平均 10% 以上の 速度로 成長하였다. 그중 重工業에 대한 投資와 이에 따른 그 비중이 輕工業과 農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sup>5)</sup> 對外經濟 部門에서 西方과의 交易을 최소화하는 閉鎖經濟 내지는 自給自足的 經濟體制였다.

社會的으로 스탈리니즘은 社會領域과 國家領域의 區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社會의 國家에의 물입을 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國家의 社會生活에 대한 統制 —結婚, 旅行, 創作, 言論의 自由에 대한— 를 의미하였다.

外交政策에 있어 스탈린主義는 “양대진영론”에서 기초하고 있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양대진영론은 一國 社會主義와 密接히 連結되어 있었다. 즉 社會主義 진영과 資本主義 진영간의 兩立性을 배제하고 兩者間的 갈등의 필연성을 가정함으로써 平和共存의 可能性을 배제하였다.

스탈린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은 기본적으로 階級鬪爭說이었다. 이를 그의 國家觀과의 聯關下에 살펴보면, 그는 強力한 國家 및 國家 消滅論에

---

註5) 1928年 重工業部門의 全産業 比重은 31%, 輕工業이 68% 였던 것이 1937년에는 63%, 36%로 각각 바뀌었다.

Paul K. Gregory, Robert C. 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New York : 1981), p.84.

대한 國家維持・存續論을 펼쳤다.

1933年 즉 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 終了後 스탈린은 民衆에 대한 不信을 노골화하고 자연발생적인 社會變化的 可能性을 배제하였다 :

“黨은 프롤레타리아獨裁의 設立에만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유지, 공고, 擴大하고 철저한 社會主義秩序를 세울 目的으로 權力을 장악한 후에도 더욱 필요하다 …… 프롤레타리아 大衆은 規律과 組織의 精神으로 젖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大衆은 뿌떠부르조아의 有害한 影響으로 부터 保護되어야 한다. 그리고 뿌떠부르조아의 관습과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制止되어야 한다.”<sup>6)</sup>

第7次 全黨大會 報告에서 스탈린의 國家維持論에 대한 信念은 그의 階級鬭爭說을 잘 반영하고 있다 :

“階級이 없는 社會가 努力없이 굴러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努力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獨裁 組織의 強化를 통해 階級鬭爭의 強化, 階級的 廢止, 資本主義의 잔재를 排除함으로써 內部뿐 아니라 外部의 敵과의 싸움에서 성취된다.”<sup>7)</sup>

1936年 蘇聯 憲法은 蘇聯에서 社會主義 성취를 선포하고 모든 착취계급이 消滅되었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國家의 계속적 存在가 착취계급의 잔재에 대한 鬭爭의 強化를 위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

---

註6) “The Foundation of Leninism, ” in J.V. Stalin, Problems of Leninism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76), p.108.

7) J.V. Stalin, Political Report to the Sixteenth Party Congress, Robert Daniels, “The State and Revolution: A case Study in the Genesis and Transformation of Communist Ideology,” American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Vol.2 (1953), p.38 에서 再引用

“우리 소비에트내에 적대적 分子의 구체적 비중은 낮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이 분자들은 가장 매서운 형태의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sup>8)</sup>

이는 社會主義建設 以後에도 계속적으로 國家의, 階級の 敵에 대한 경계를 강조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탈린 體制가 남긴 구체적인 問題點들은 어떠한 것인가? 이는 곧 고르바초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이테올로지 차원에서 스탈린이론의 問題點은 앞서 言及된 外交政策上的 양대 진영론과 關聯 國內에서도 社會主義體制的 공고화 이후에도 階級的, 敵의 可能性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社會主義體制 그 自體가 가질 수 있는 一측 社會主義 履行過程에서 필요했던 上部構造를 벗어나 一 問題點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上部構造의 創出이 불가능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社會主義 發展의 새로운 段階認識이 결여된 舊 上部構造— 舊秩序 타파와 새로운 社會·經濟秩序 確立에 필요했던 一에 의한 國家의 社會統制를 持續했다는 것이다. 다른 側面에서 이는 社會主義의 새로운 政治·經濟秩序의 問題點에 대한 認識을 지연 내지는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초래하였다.

즉 社會主義內的 모순과 갈등의 가능성을 거의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인식이 지연되었고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兩 階級間的 갈등이라는 그 문법은 현실 인식을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고르바초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그러나 그 당시(集團化 時期) 착취계급들의 적대적 대항을 위해 쓰

---

註 8) Ibid., p.39.



인 方法들이, 狀況이 근본적으로 變換 平和的 社會主義 建設時期에 機械的으로 移轉되었다. 無寬容, 적대적 態度, 의심등의 雰圍氣가 國家 全域에 형성되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이러한 政治的 關係은 점점 擴大되고 社會主義 建設 過程에서 階級鬭爭의 惡化라는 “理論”에 의해 합리화되었다.<sup>9)</sup>

政治的 次元의 問題로 우선 “個人崇拜”의 出現을 들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에 對해 “스탈린에 對한 個人숭배는 전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個人숭배는 蘇聯社會內에서 民主化의 結果에 의해 發生했다고 規定하였다. 이러한 狀況은 법체계의 무시, 억압적 政策의 出現을 초래하였다.<sup>10)</sup> 이는 社會와의 關係에서 “社會主義 성취수준과 리더쉽 方法의 구태의연성간의 모순을 노정한” 것이었다.<sup>11)</sup>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탈린의 個人崇拜는 政治組織의 制度化의 성장을 억제하였고, 의사결정의 집중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個人崇拜는 비예측적 暴力의 사용, 즉 테러의 使用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스탈린의 政治方式은 따라서 모든 政治的 반대를 불가능하게 하고, 비판적 지위의 박탈에 의해 개인의 創意性을 消滅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經濟管理面에서도 스탈린體制는 극도의 통제・計劃經濟體制로서 이를 위한 광범한 官僚組織의 出現을 가져왔다. 고르바초프는 양적 성장 시대 의 管理體系가 “蘇聯 全體에 뿌리를 내려 經濟的 與件이 바뀐 質的成長 時代까지 存續하여”<sup>12)</sup> 惡影響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고르바초프는 레닌의

---

註 9) Pravda, 1987. 11. 3.

10) Ibid., p. 1.

11) Ibid., p. 1.

12) Ibid., p. 1.

新經濟政策等の 예를 들면서 스탈린식의 經濟開發의 初期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社會主義 開發過程에서 어느 단계에나 모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탈린식 管理體制는 모든 經濟目標의 設定과 執行이 中央에서 행해져 地域이나 企業의 특성이 무시되었고 量的 目標達成의 선호는 質的 改進黨을 抑制하는 結果를 낳았다. 이는 특히 소비재 工業의 落後와 더불어 消費材 物資의 貯積성과 만성적 초과수요 現象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정적 현상은 社會正義 및 社會心理的 次元에서의 影響일 것이다. 集團主義에 기초한 유인제도 (incentive system)는 個人의 노력에 의한 보수의 증대를 억제하여 개인의 창의성과 作業에 대한 熱意를 약화시켰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職業, 醫療, 住宅 등의 보장은 개인의 창의성의 結界를 더욱 促進하여 個人의 國家 또는 社會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結果로 나타났다.

이는 個人이 體制에 의존하여 착취하는 “狀況 搾取的” 행태를 낳았다. 즉 모든 사람이 자기의 해야 할 몫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集團・社會로부터 최대의 利益을 確保하려는 現象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위에서 결정되어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타성”이 나타났고 이러한 타성은 각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體制에 依存하는 現象을 가져왔다. 이러한 體制依存的 心理狀態는 間接적으로 國民들의 體制 批判的 態度를 마비시키고 民主主義의 기초가 되는 參與精神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무기력한 심리상태는 정권에 대해 타성적 복종을 가능케 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이 모든 現象의 원인이 되는 “過剩平等主義”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즉 그는 “社會主義와 절대적 過剩平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선언한다. 그

는 이러한 過剩平等을 무책임과 무기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sup>13)</sup>

蘇聯은 스탈린 死後 위의 여러가지 약점의 극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地方經濟委員會 改革, 黨內 民主化의 시도, 大衆參與의 擴大 努力, 黨의 二分化를 통한 黨 指導力 強化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1965年 코시킨 經濟改革等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후르시초프는 그의 政治改革의 대담성에 의해 오히려 축출되었고 코시킨改革도 무위로 끝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특히 브레즈네프시대인 1970年代 改革內容의 보고와 이를 推進하기 위한 政治的 의지의 부족을 크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력한 브레즈네프 政權은 “정권표류”의 표본이었다.<sup>14)</sup> 이렇게 표류하는 政權下에서 蘇聯의 經濟는 더욱 악화되고 黨・國家・公共組織의 社會에 대한 影響力의 점차적 감소를 가져왔다. 이는 또한 궁극적으로 소련의 초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

註 13) M.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New York: Harper, 1987), 日本語譯 ペレストイカー, p.138.

14) 이에 관해서는 하용출 “蘇聯權力構造의 創出과 展開: 엘리트 선택의 소진과 정권표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1987. 11. 발표 참조.

## II. 페레스트로이카 : 問題意識的 考察

페레스트로이카는 스탈린식의 蘇聯 社會主義가 만들어낸 生産的 勞動, 창의성, 진취적 태도를 자극할 經濟的·組織的 여건의 결여, 서투른 작업, 타성, 무책임의 물질적 補償, 公的 權威 및 노동자의 권위 타락을 除去하려는 볼셰비키들의 과거문제점에 대한 社會主義에 대한 意味의 再評價를 위한 努力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우선 과거의 이데올로기 구조와 내용은 生産關係와 生産力의 關係에 대해 너무 단순한 處方을 내리고 있었다. 社會主義社會에서 生産關係와 生産力의 관계는 計劃이라는 수단에 의해 “生産關係의 發展을 規制하고 生産關係와 擴大·變貌되는 生産力과의 조화를 꾀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社會經濟的 진보를 加速化시킨다”<sup>15)</sup>라고 말하고 있다.

蘇聯의 政治經濟學 教科書에 의하면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生産關係의 完成이 社會階級과 集團간의 갈등을 반영하는 사회과정을 대표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生産關係의 完成은 社會的 內容을 읽고 어떠한 社會集團의 利益 鬭爭도 반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 조정은 단순한 技術的 性格을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生産關係의 完成은 社會的 갈등없이 進行된다고 주장한다.<sup>16)</sup> 表現을 바꾸자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國家

---

註 15) *Философский словарь*, Moscow., 1980, p.116.

16) 이는 Gregory Grossman의 표현이다. “Solidary Society,” in Grossman, ed., *Essays in Socialism and Planning in Honor of Carl Landauer* (New York: Englewood, 1970).

利益과 個人利益, 企業과 國가의 이익, 개인이익간의 충돌·모순을 배제하는 이른바 結束的 社會 ( Solidary Society )를 가정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러한 가정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과거 20여년의 소련 經濟發展의 分析을 통해 社會主義의 生産關係의 發展이 상당히 複雜하고 生産關係의 再調整은 個人的, 組織的 利害關係와 얽혀 그 變更이 용이치 않음이 판명되었다. 現實적으로 問題를 認識하면서도 空虛한 共產主義의 실현을 내세웠던 후르시초프의 全人民國家 理念이나 브레즈네프時代의 성숙된 社會主義 概念아래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겹을 政權의 표류로 지냈던 것에 正面的인 도전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社會主義 社會의 모순의 性格을 비적대적 모순으로 규정, 資本主義 社會에서의 적대적 모순과 대비했던 理論的 틀에서 벗어나 社會주의 이행과정에서의 모순의 성격의 深刻性을 間接적으로 認定하는 것이다.<sup>17)</sup> 이는 또한 蘇聯의 現政權이 스탈린식의 社會主義 建設過程에서 진정한 社會주의 모습으로부터 이탈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왜곡과 모순이 출현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이렇게 볼 때 各種 改革은 모순과 갈등없이 進行될 수 없는 것이다. 經濟改革의 경우 과거의 改革들은 社會主義의 生産關係의 社會的 側面, 즉 改革이 가져오는 社會的 갈등과 이 影響의 多樣하고 複雜한 構造에 대한

---

註 17) 이러한 社會主義 內에서의 갈등분석에 대하여는, A. P. Butenko, Voprosy filosofii, No.10, 1984, pp.3 ~ 19.

18) 社會主義에서 Zigzag 發展에 관해서는 P.V. Volobuev의 글 Pravda, 1987. 3.27 일자 참조. 이의 소개로는 Radio Liberty Research Bulletin(RL) 190/87, May 18, 1987 參照.

分析이 결여되어 있었다.

蘇聯 아카데미의 會員이며 社會科學院 시베리아 支部의 “經濟와 産業 生産組織研究所”의 社會問題 담당부서의 責任者인 T. 자슬라브스카야는 改革의 社會的 問題 즉 各種 集團의 利益이 複雜하게 改革에 反應하는 問題를 明瞭히 밝히고 있다.<sup>19)</sup> 그녀는 현재 고르바초프 改革의 理論的 뒷받침을 하고 있는 理論家들의 核心 멤버의 一員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立場은 대체로 西歐의 社會科學的方法을 蘇聯의 現實 分析에 導入하고 있어 상당히 현실을 客觀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蘇聯 社會는 그 利益의 성향에 따라 수백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그녀는 약 75個의 理論的으로 意味있는 그룹을 分類해 내었다. 이 分類家는 生産, 消費, 分配에 關聯되는 상이한 이해 집단과 地域, 文化 등 歷史的 考慮를 併行하였다. 그녀는 이를 階級構造와 對比한 “社會經濟構造(Socio-economic Structure)”라고 일컫고 있다.<sup>20)</sup>

이렇게 多樣한 集團은 改革에 의해 發生되는 利益과 不利益의 程度가 다르다. 즉 改革에 의해 權利가 增大되는 部署, 改革에 의해 자신의 資質을 보다 잘 發揮하고 보다 能率的으로 일하여 높은 賃金を 받을 수 있는 사람, 責任 增大와 이에 따른 報酬의 增大를 기대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改革을 支持하게 될 것이다. 蘇聯은 현재 과거의 單

---

註 19) T. Zaslavskaya, Novosibirsk Paper.

20) RL, Interview with Tat'yana Zaslavskaya," September 16, 1987. p.9.

西方에서 Zaslavskaya의 立場과 유사한 것으로는 Paul Hauslohner가 있다.

純한 이데올로기의 分析들에 의한 제약으로 이와같이 複雜化된 生産關係를 說明할 理論이나 모델이 결여되어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외의 이데올로기적 문제는 바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틀을 確定짓는 것이다.

經濟的 次元에서 理論的 問題로서는 社會主義와 計劃經濟와의 關係, 平等주의에 입각한 유인제도, 私的 經濟活動의 범위, 完全雇傭의 의미 등이 될 것이다. 計劃經濟의 問題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 없이 언급해 온 것이므로 이곳에서는 고르바초프 体制下에서 計劃經濟와 개인의 經濟活動의 영역의 擴張이 社會주의의 根本原則을 破壞치 않는다는 인식이 대두했다는 점인 바, 이것은 고르바초프의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나타나 있다. :

“國家나 民衆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개인적인 勞動活動을 장려할 수도 있다. 현재 改革過程에서 協同組合을 發展시키고 個人 營業이나 契約制, 資金調達을 위한 措置가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社會주의의 基礎를 무너뜨리고 자기 利益만을 고려하는 營業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있다.

또한 諸般 形態의 계약제 도입에 따라 集團農場이 弱化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商店에 많은 물품이 不足한 현상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태에 당황하여 “도와달라! 社會主義가 崩壞하려 하고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틀린 것이다.<sup>21)</sup>

이러한 非計劃部門의 增大는 유인제도의 變化를 不可避하게 한다. 왜냐

---

註 21) Gorbachev, Perestroika, p. 132.

하면 個人部門의 增大에 의해 개인의 利益이 增加하지 않으면 아무런 效果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問題는 社會主義의 근간인 平等主義의 재해석을 불가피하게 한다.

원래 社會主義는 自由主義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個人主義의 閉鎖로 인한 人間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保障으로 출발하였다.<sup>22)</sup> 동시에 이러한 기본적 人間살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自由主義 經濟의 豊富한 生産力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基本 問題는 어떠한 形態로 어느 정도 그리고 누구의 負擔에 의해 이러한 人間의 基本的 삶을 보장하느냐가 社會主義 形態를 決定하는 要因이 될 것이다. 따라서 個人的 社會的 寄與度의 정도와 그 決定方式은 주요한 政治經濟學的 問題로 등장하게 되며 이 問題는 곧 소위 “社會主義的 正義”(socialist justice)의 核心이 되는 것이다.

傳統的으로 고르바초프 이전까지의 관행은 地域, 企業 또는 個人的 社會生産에 대한 기여도에 관계없이 한 地域, 한 企業, 한 個人的 問題는 곧 바로 전체의 問題로 化하였다. 一例로 職業의 保障이다. “社會的·經濟的으로 合理的” 完全이 아닌 단순完全고용 즉 個人的 能力이나 企業의 필요에 관계없는 노동자의 職業공간의 부여가 그것이다.<sup>23)</sup> 이러한 狀況 아래에서는 사람들의 能力과 寄與度가 다른데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신, 平均主義에 의한 分配를 통해 소위 강요된 平準化(leveling) 現象이 초

---

註 22) George Lichtheim, The Origins of Socialism (New York : Praeger, 1969), pp. 3 ~ 14.

23) С. Wamagur,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Коммунист, 1986. № 14. p63.



래되는 것이다. 여기에 고르바초프는 반대하여 기여도에 준하는 보상의 原則을 主張하게 된다. 그에 의하면 :

“社會主義는 “個人은 能力에 따라 貢獻하고 必要에 따라 받는다”는 原則에 따라 生活條件이나 消費水準을 保證할 수 없다. 그것은 共產主義의 原則이다. 1인이 타인을 착취한다든지 부자와 가난한 자, 억만장자와 거지의 구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人民은 모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職場이 保障된다. 中等, 高等教育 및 醫療 서비스등은 無料로 提供된다. 市民의 노후생활도 保證된다.”<sup>24)</sup>

所得分配의 機能, 經濟的 機能 — 즉 投資와 消費를 위해 個人이나 企業에 환원되는 — 과 社會的 機能 — “社會消費基金”(年金構造, 最低社會生活保障과 教育, 醫療, 文化基準)으로 나누어진다. 이 양자간에 어떠한 比率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가에 관한 유일한 回答은 없다.

그러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要因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본다. 그것은 社會의 經濟發展 水準, 社會의 富의 정도, 國民의 要求와 選好의 性格, 일의 內容과 社會主義 全 體系에 대한 가치 등이다.

소련의 경우 양적, 經濟成長 段階에서 모든 勞動力의 動員을 주로 하던 時期에는 勞動生産性의 概念이 適用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有料勞動力을 生産에 끌어 들이는데만 注力하였다. 이것의 결과로 國家가 蘇聯전체를 대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一律的 社會基金 管理라는 것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量的 成長이 限界에 부딪힌 단계에서 이전과 같은 社會保障은 곧 사회보장에 필요한 生産의 促進 自體를 抑制하게 되겠다. 즉 全體의 平等

---

註 24) Gorbachev, Perestroika, p. 138.

한 발전의 擴大를 어렵게 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非生産的인 企業內의 勞働者들이 生産的인 企業의 勞働者들에 의해서 生活保障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체제가 오래 계속되는 동안 Olson의 이른바 각 個人이 自身の 犧牲을 極小化하면서 集團이나 社會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確保하려는 형태가 manifestations 된다. 이는 곧 체제착취적 내지는 상황착취적 행위의 출현을 뜻한다.<sup>25)</sup>

고르바초프는 이의 근질을 내세우고 나선 것이다. 그는 不合理한 個人의 社會依存的 상황을 비판하고 개인이 사회에 대한 의무를 合理的으로 調整할 유인제도를 主張하였으며 그 代表的인 것이 모든 사람이 각자의 貢獻度에 따른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計劃體制의 통제 의 약화(計劃經濟 부문내에서)와 非計劃經濟 部門의 擴張으로 국가통제를 이전보다 약화시켜 개인의 勞動意慾과 創意力을 발양하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

“集團 및 가족청부제 농장의 성공은 지금까지 소련국민이 事業主로서의 역할을 보일 기회가 없는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確實히 보여주었다. 國民들은 정직하게 일해서 벌기를 원한다. 그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그것은 國家를 속여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번 돈이다. 그러한 요구는 社會主義精神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規制할 이유는 없다. 개인이 번 돈은 개인이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한 개인이 가져서는 안된다.”<sup>26)</sup>

---

註 25) Mancun Olson,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nsudse, MA.: Harvard Univ. Press, 1971) P. 988.

26) Gorbachev, Perestroika, p. 135.

政治적으로 페레스트로이카는 보다 民主的인 정치질서의 確立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는 政策決定과 執行過程에서 공개성(glasnost')과 大衆의 參與가 요청된다. 정치적 민주화는 과거의 中央統制的 秩序下에 抑壓되었던 民衆의 自主성과 다양한 의견의 收斂, 이를 통한 자발적 자세의 確立, 公共概念의 創造 등에 불가피하게 關聯되어 있다.

公開성에 입각한 정치적 민주화는 社會와의 關係의 再定立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이전에 黨은 指導者와 先導者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지금은 그 性格이 위로부터의 강요내지는 관여가 아니고 밑으로부터의 의견과 情報의 收斂을 전제로 社會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黨의 전지전능의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아직도 黨의 指導者的 役割이 完全히 부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하튼 이러한 思考의 변화의 저변에는 “더 이상 지배를 받아야 할 우매한 백성이 사라졌다”<sup>27)</sup>는 점, 즉 모든 蘇聯 사람의 教育水準의 提高와 매스미디어의 擴散으로 인한 情報蒐集의 용이성등으로 이전과 같은 통제의 수단으로 圓滑한 國家·國民間의 關係가 어렵다는 가정에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르바초프가 말하는 民主化의 本質은 무엇인가? 고르바초프는 앞서 지적한 生産關係와 生産力과의 關係처럼 상부구조에서 中間階層을 사실상 生産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기생하는 非生産的 階層으로 規定하였다. 따라서 이 階層에 대한 權限의 弱化 및 조직의 閉鎖, 改編을 통해 하부조직의 影響力을 增大시키고 동시에 상부의 戰略的 機能을 擴大·強化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

註 27) Interview with T. Zaslavaskaya, op. cit., P.13.

行政的으로 下部組織인 “ 소비에트의 기능을 강화시켜 經營에 있어 企業의 의사결정권의 擴大가 이를 위한 措置가 될 것이다. 原則的으로 소비에트는 지방자치 행정기구적 性格을 띠도록 되어 있으나 中央執權化된 省組織下에서 中央의 決定을 집행하는 역할로 전락하게 되었다. 소비에트는 蘇聯行政機構의 최저 단위로서 직접 市民들과의 接觸을 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밑으로부터의 投入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한 위로부터의 政策을 地域的 次元에서 종합하기 위해서는 소비에트의 權限을 強化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市民들의 行政的 參與를 통해 행정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도 소비에트 행정스타일의 變化가 要請된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소비에트 행정기구의 권한강화와 행정의 活性化를 主張하였다.<sup>28)</sup>

이미 지적하였듯이 蘇聯 民衆의 參與의 擴大는 조직적 개편 이외에 民主化의 중요한 要素가 된다. 민중의 參與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전제로서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開放, 公開性)를 내세웠다.

고르바초프는 “人間이 공기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글라스노스트가 필요하다”<sup>29)</sup> 고 宣言하고 그의 本質은 大衆들이 “모든 問題에 대해 무엇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自然的 欲求를 充足”<sup>30)</sup> 시켜 주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글라스노스트는 단순한 情報의 公開, 開放에 그치는 것

---

註 28) Gorbachev, Political Report to of 27th Party Congress

蘇聯에서 소비에트改革에 관해서는, Parrell Slider, “More Power to the Soviets? Reform and Local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16, No.4., 1987, pp. 475-511.

29) Gorbachev, Perestroika, p. 105.

30) Ibid.

이 아니라 정보의 입수, 공개를 통해 關聯된 문제를 토의하고 關心을 표명하는 過程에서, 소극적으로는 官료들의 行동을 감시, 비판하며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集合手段으로의 機能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大衆의 수동적 태도와 무관심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蘇聯 역사상 글라스노스트의 필요성을 強調한 사람은 고르바초프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1918年 레닌은 매스미디어에 있어 公開性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러시아 新聞들을 國家의 統制下에 놓은 후에 있는 일이었다.

글라스노스트는 1960년대 중반에 새로운 狀況에서 抬頭되었다. 蘇聯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人權運動은 蘇聯體制의 機能에 글라스노스트를 주장했다. 이후 1970年代 가끔 나타났고 1982年 안드로포프의 부패 追放運動과 關聯해 보다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 고르바초프가 權力을 잡은 후 이루어진 運動보다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다.<sup>31)</sup>

고르바초프는 1985年 3月 共產黨 第1書記로 選出된 직후 蘇聯 市民들에게 黨의 운영에 관한 좀 더 많은 情報를 약속했다.<sup>32)</sup> 이후 곧 國內問題 보도에 있어 公開性의 필요를 강조하는 論文이 등장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企業, 支配人들의 浪費的 行爲를 暴露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글라스노스트는 경제분야에 集中된 것 같다.

---

註 31) RL 14/87, "Drafting a Press Law : Glasnost' as an Alternative to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January 8, 1987.

32) Pravda, 1985. 3.23. Izvestia, 1985.3.23. Trad 1985.3.24.

고르바초프의 執權후 첫 6개월동안 傳統的으로 蘇聯新聞에서 禁忌로 되었던 領域들이 부패추방운동과 蘇聯經濟의 問題點 露出을 除外하곤 여전히 취급되지 않고 있었다.

큰 變化는 제네바의 美·蘇 頂上會談에 앞서 西歐의 輿論造成을 위한 시도로 美國의 로널드 레이건大統領과의 會見기사를 出版했다.<sup>33)</sup> 이어 蘇聯內에 있었던 참사에 관한 情報를 숨겼던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sup>34)</sup> 또한 E. Evtushenko는 6차 러시아共和國 作家同盟會議에서 蘇聯에서 출판이 금지되었던 20세기의 러시아 고전의 出版을 要求하였다.<sup>35)</sup>

第27次 共産黨大會(1986. 2)는 글라스노스트 캠페인의 새로운 段階를 열어 놓았다. 전당대회 개최 수주 전부터 蘇聯新聞들은 과거의 禁忌를 깨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아프카니스탄에서 復歸한 軍人들의 새생활에의 適應過程上의 問題點, 黨 엘리트들의 特權에 관한 記事들이 시작되었다. 스탈린의 2次大戰中 決定上의 問題點에 대한 記事들이 등장하였다.<sup>36)</sup>

全黨大會 期間동안의 討論에서 공개성의 제약에 관한 論議가 나타났으나 고르바초프는 그의 글라스노스트에 대한 큰 支持를 再確認하였다. 그의 이러한 立場은 Boris Eltsin 등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글라스노스트의 원활한 適用을 위해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增大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르바초프는 매스미디어가 센세이널리즘에 빠지지 않고 과거와 現在의 問題를 討議하는 廣揚의 역할을 하면서, 지켜야 할 가치, 人間 全體에 끼치

---

註 33) Izvestia, 1985.11. 4.

34) Komsomol'skaya pravda, 1985.10.6. RL 66/87 1987.2.23에서 재인용

35) RL 10/86, "Evtushenko Speech at the RSFSR Writers' Congress," 1985. 12.23.

36) RL 12/86 "More About Stalin in Mikoyan's Memories," 1985.12.17.

는 影響등을 중시하여 高次元의인 기능을 수행할 것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글라스노스트의 展開過程을 살펴 보자. 고르바초프는 권력장악 이 후 곧바로 글라스노스트 運動을 始作했다. 당시 서방의 觀測으로는 과연 이 운동이 얼마나 갈 것인가에 관해 의문이 많았다. 특히 全黨大會 이전에 약간의 討論이 進行되었던 과거의 事例로 보아 그 持續성과 강도에 관해 회의적이었었다. 그러나 27次 全黨大會 이후에도 글라스노스트 政策은 強化되었다.

最近 蘇聯 매스미디어는 과거에 터부시되었던 문제들에 관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痲藥問題, 惡化되는 國民健康指標, 醫療施設, 알콜리즘, 蘇聯社會에서의 道德的 타락, 創作活動에 대한 統制問題, 기타 重要的 政治 및 부정·부패의 事例 소개 등이 蘇聯 新聞과 TV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蘇聯의 保健相인 Evgerii Chazov는 소련의 保健, 衛生 狀態에 관해 蘇聯이 幼兒死亡率 저하를 위한 努力이 Barbados나 UAE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동시에 蘇聯內의 104개 都市들의 공해 汚染度가 住民들의 건강을 危脅하는 水準에 이르렀다고 公開하였다.<sup>37)</sup>

文學·歷史部門에서 文學家, 歷史家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再評價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에 대한 正確한 評價를 주장하고 나섰다.<sup>38)</sup> 蘇聯 역사 아카데미연구소의 소장인 Yu. Afan'sev는 蘇聯大衆의 能동화를 위해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蘇聯歷史에서 1917年과 1929年 기간과 1956년부터 1965년

---

註 37) Literaturnaya gazeta, April 15, 1987. Radio Liberty Research Bulletin 397/87 October 12, 1987. 에서 재인용.

38) Pravda, 1987. 3.24: Kommunist, No.14, 1985, pp.105~116.

사이를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그는 특히 1956년 20차 全黨大會에서의 反스탈린 運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련 역사가들이 후르시초프시대보다 反스탈린 運動에 더 나아갈 것을 역설하였다.

스탈린시대 자체에 대하여는 1930년대 대량테러에 대해 단순히 실수 또는 오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스탈린의 테러에 대한 진실을 파헤칠 것을 主張하였다.<sup>39)</sup>

政治分野에서도 소비에트 선거에 1人候補 추천에 대한 반대기사가 나왔고<sup>40)</sup> 高級官吏들의 부정에 대한 暴露 기사도 실리게 되었다.<sup>41)</sup>

蘇聯에서 輿論의 역할의 重要性이 增大되고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미 27次 全黨大會 이전부터 蘇聯의 新聞들은 蘇聯社會를 비판하는 독자들의 편지를 대량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全黨大會 이후 輿論의 影響力이 더욱 눈에 띄게 되었다. 그 一例로 北部 및 시베리아의 江의 水路를 南部地域으로 환류시키는 計劃이 취소되었는 바, 이의 취소는 輿論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2次大戰 勝戰 記念牌 도안에 관한 결정도 大衆들의 의견이 參考되었다는 증거가 있다.<sup>42)</sup>

國際問題에 관해서는 國內問題보다 그 頻度나 內容의 變化가 크다고 볼 수 없으나 눈에 띄만한 몇가지 事例가 있다. 1986년 7월 모스크바 텔레비전은 西歐의 社會民主黨員인 David Owen과 Egor Bahr가 參與한 가

---

註 39) 이와 비슷하게 2次大戰에 관한 蘇聯歷史研究 비판으로는 Aleksander Samsonoy의 論文參照 Argumenti fakty(No.10, 1987).

40) Literaturnaya gazeta, 1986.9.17.

41) Izvestia, 1986.10.2.

42) 兩 計劃의 變更에 관한 討論은 Literaturnaya gazeta, 1986. 7.2.



운데 東·西問의 問題에 관한 討論을 公開하였다. 이 討論에는 軍縮, 아프카니스탄, 蘇聯의 西歐政策 등 민감한 問題들이 취급되었다.

또한 蘇聯 新聞들의 西歐社會에 관한 기사에도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Pravda는 소련에서 서구에 관한 보도가 否定的이고 단조롭다고 비판하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 기사마다 저널리스트적인 상투어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西歐의 科學·技術의 發達에 관한 보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글라스노스트에 대한 試驗은 체르노빌核發電所 爆發事件이었다. 蘇聯은 先例를 깨고 事件 2주일 후부터 비교적 詳細한 情報를 發表하기 시작했다.<sup>43)</sup> 이것은 글라스노스트 政策이 커다란 위기를 거치면서 그 政策의 繼續性を 보여준 것이었다.

글라스노스트 政策의 進行 가운데 어떠한 特徵을 추출해 낼 수 있는가? 비록 많은 政策에 대한 비판의 許容에도 불구하고 權力엘리트의 특권과 不正에 관한 보도는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27次 全黨大會에서 리가초프는 프라우다를 들어 글라스노스트 캠페인을 위해 記事選擇에 잘못을 범했다고 비판하였다. 리가초프는 黨과 政府官僚들의 特權에 대한 프라우다의 批判을 가르키고 있었다. 리가초프의 演說 이후 黨, 政府官僚의 비행에 관한 비판은 急激히 減少하였다.<sup>44)</sup> 특히 現職 官僚의 비판은 상당히

---

註 43) RL 177/86, "Chernobyl ... Openess in Action," May 2, 1986.

44) 黨 官僚들의 特權에 관한 批判에 대한 변호는 Victor Moronenko의 Komsomol'skaya pravda와의 會見에 나타나 있다. 이 會見에서 그는 黨官僚들의 記事가 달린 自動車 賦與등에 대해 관습이라 하여 변호하였다. Komsomol'skaya pravda 1986, 9.7

制限되어 있다.

國內問題에 관해서도 問題의 보도와 그러한 問題들의 根本的 해결을 위한 원인 규명에 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 人權問題에 관한 보도도 과거에 비해 큰 變化를 보이고 있지 않다.

글라스노스트에 대한 黨과 政府 官僚들의 態度는 豫想대로 否定的이거나 미온적이다. 특히 글라스노스트의 對象이 되고 있는 地方 官僚들의 否定的 反應의 하나로 大部分의 地方新聞들에서는 글라스노스트問題를 다루는 記事들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우다는 地方官僚들이 批判記事를 게재하지 말도록 措置한 사실을 많이 파헤치고 있다.<sup>45)</sup>

글라스노스트에 대한 一般 市民들의 態度에서 앞서 言及한 비판에의 未熟, 經驗不足 등이 잘 나타난다. 레닌그라드와 보스턴을 連結하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蘇聯의 한 女人은 소련 社會에서 批判의 自由와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要請받았으나 끝내 모든 問題가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sup>46)</sup> 한 蘇聯의 輿論調查에도 글라스노스트에 대해 많은 蘇聯 사람들이 蘇聯生活의 結점을 옳게 理解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글라스노스트를 거부하였다.<sup>47)</sup>

끝으로 글라스노스트는 지금까지 文學, 歷史, 매스미디어등 文化的 次元에 그 중점이 두어져 왔다. 이는 고르바초프 자신이 새로운 支持 基盤을 構築하는데 있어 인텔리겐차 — 오랜 기간 그 역할을 크게 認定받지 못했던 — 를 支持基盤으로 하려는 의도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

---

註 45) Pravda, 1986, 6.13, 6.14.

46) Moscow Television, 1986, 7.17, RL 39/186 에서 재인용.

47) Pravda, 1986. 10.1

다 중요한 것은 이 分野가 政治·行政 分野보다 훨씬 쉽고 效果가 크다는데 着案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글라스노스트는 行政分野에 局限되는, 다시 말해 既存 政策의 執行過程에 대한 비판이 그 대중을 이루고 있다. 秘密主義에서 情報公開을 통해 행정의 責任을 提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根本的인 問題는 글라스노스트의 段階的 發展이다. 現 段階에서 글라스노스트는 지금까지 蓄積된 問題點의 일부를 노출시켜 責任感을 높이는 原始的인 運動的 性格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의 課題는 표출에 의한 모독을 통한 자극보다 내면적 制度化를 통한 構造的인 誤謬防止 裝置가 要請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라스노스트가 당분간의 캠페인으로 끝날 것인지, 제도화로 連結될 것인지가 귀추의 對象이 된다.

### 〈 소비에트型 民主主義 〉

앞서 지적한대로 글라스노스트가 政治的 民主化를 위한 과거의 問題點을 파헤치는 것이라면, 이에 基礎한 구체적인 制度的 變化는 어떠한 것들이 취해졌는가?

1987년 1月 28日 黨 中央委 全體會議에서 고르바초프는 다음과 같이 選舉制度的 改善에 관해 말했다.

“區, 地域, 市, 共和國의 黨委員會 秘書의 選出方式에 變化가 필요하다. 동지들은 각 수준의 黨 委員會 全體委員會에서 秘書 — 이는 黨 第1書記도 包含한다 — 들이 秘密選舉에 의해 選出될 것을 提示하였다. 그 경우 黨委員會 委員들이 選舉에 복수 후보를 넣을 權利를 가질 수 있다.”<sup>48)</sup>

---

註 48) TASS, 1987.1.27.

그러나 最終 決議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提案에 대해 “黨機構의 選舉에 의한 구성기구를 民主化를 위해 改善” 해야 한다고 決定하였다.<sup>49)</sup> 또한 복수후보제나 秘密投票에 관해서는 일체 言及하지 않았다.

最終 決議案에서는 黨書記의 競爭選舉가 어느 水準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가는 除外되었으나 下位 水準과 黨外機構의 선거에 競爭選舉를 결의하였다. 즉 工場, 生産單位, 課, 係, 農場의 支配人을 선거하는데 競爭選舉를 導入할 것을 決定하였다. 또한 地方소비에트 代表 選舉에서 복수후보제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黨의 問題에 대하여 고르바초프의 원래 구상은 상당히 修正을 보게 되었다.

고르바초프가 構想하는 民主主義는 미시적 차원 내지는 下部的 次元에서의 變化의 擴大를 기하는 대신 실무 내지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크게 試圖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民衆의 參與는 産業民主主義의 次元, 즉 工場管理面이나 행정적 민주주의 차원 즉 政策의 執行過程에서의 參與에 머무는 것으로 評價된다. 美國의 蘇聯學者 S. Bialer는 이와같은 狀況을 *invented democracy* 라고 稱하고 있다.<sup>50)</sup>

고르바초프는 共產黨의 페레스트로이카에서의 역할에 관해 과거와 달리 行政業務에의 直·間接的 介入에 아이디어를 내는 中추로서의 역할을 強調하면서 計劃의 進行狀況을 理論적으로 分析하는 일, 執行의 戰略과 作戰을 修正하는 基本政策의 樹立 등과 페레스트로이카를 理論化하고 이데올로기화 하는 機能

---

註 49) TASS, 1987.1.28, Pravda, 1987. 1.29.

50) Seweryn Bialer, “Gorbachev’s Move,” *Foreign Policy*, No. 68. Fall 1987, pp. 67 ~69.

을 遂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51)</sup>

이렇게 볼 때 풀뿌리 民主主義는 黨이 정한 政策의 執行過程에서의 參與라는 結論이 나온다. 이와 關聯 고르바초프가 民主主義를 論하면서 行政에의 參與를 言及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意見의 충돌에서 思想이 發生한다”라는 것을 認定하면서도 蘇聯 大衆간에 正常的인 討論을 위한 예의와 經驗이 充分히 蓄積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비판하는 사람과 비판받는 사람과의 關係를 變化시켜야 한다고 主張했다.<sup>52)</sup>

#### 〈페레스트로이카 — 이데올로기적 綜合〉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綜合的 分析을 이데올로기적 意味를 통해 結論지어 본다. 우선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定義를 고르바초프 自身이 언급한 規定을 통해 내려보자.

“페레스트로이카는 革命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革命, 平和的, 民主的 革命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民主主義를 통해서만 實現可能하다.

“民主的 過程은 페레스트로이카 全體의 發展을 促進하고 그 目標을 높이며 社會問題를 分明히 規定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經濟問題를 보다 넓은 視覺에서 보게 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靜적인 概念이 아니다. 靜체된 상태를 극복하여 제 동원상을 타파하고 信賴있는 效果的인 메카니즘을 통해 社會·經濟發展을 加

---

註 51) Gorbachev, Perestroika, pp. 171ff.

52) Gorbachev, Perestroika, p.106.

速化하여 큰 活力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大衆이 자발적으로 일을 함을 意味한다. 또한 民主主義나 社會主義의 自主管理體制의 包括的 발전과 자발적 創造力을 獎勵하고 秩序와 規律을 改善, 公開性을 促進하여 社會 각 分野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活潑히 하는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왜곡된 社會主義의 倫理를 시정, 社會定義의 確實한 결정을 목표로 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우리 社會發展에 있어 明白한 역사적 段階이다. ... 우리는 社會主義에 새로운 質的 變貌 — 즉 “第2의 바람” — 를 부여해야 한다.”<sup>53)</sup>

이상의 例에서 나타났듯이 페레스트로이카는 社會正義 革命 發展에서 발생한 諸問題를 해결하는 단순한 直線的 社會主義 發展의 어려움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西歐의 近代化理論이 初創期 직선적 經濟·社會發展 모형을 가정한 데서 직선적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認識한 것과 유사하다.

페레스트로이카는 마치 길을 잘못 찾은 사람이 다시 다른 길로 向하기 위해 正道를 향해 가면서 어디서 부터 길을 잘못 들었는가를 살피는 狀況에 비유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西方에서 蘇聯식 社會主義 問題를 사회주의 일반에 대한 위기 및 終末로 보는 見解에 대해 프랑스 革命이 1789년 이후 1830年 1848年, 1870年의 위기를 거치면서 最終적으로 부르조아 民主主

---

註 53) Gorbachev의 러시아革命 70周年 記念 演說,  
Pravda, 1987. 11.3, p. 4.

義로 完成되었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70年代, 80年代의 蘇聯이 當面한 狀況과 問題點은 “政治制度로서 社會主義의 위기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社會主義 路線에서 이탈하든가 社會主義를 왜곡하여 사회주의 原理 適用에 일관성이 결여된 結果였다고 주장,<sup>54)</sup> 蘇聯社會主義의 위기가 곧 資本主義 體制의 受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修正된 黨綱속이나 고르바초프의 演說에서 ‘성숙된 社會’ 概念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sup>55)</sup> 成熟된 社會主義는 브레즈네프時代에 나타난 蘇聯 社會主義 發展段階를 나타내는 概念이다. 즉 성숙된 社會主義는 후르시초프에 의해 豫言된 1980年代 共產主義 建設이 왜 어려운 것인가를 說明하기 위해 設定한 社會主義 發展段階로 상당기간 存在하는 것으로 規定하였다. 고르바초프가 成熟된 社會主義를 버리지 않는 것은 아마도 새로운 段階를 設定하기 위한 概念의 궁핍에서 기인된다고 본다.<sup>56)</sup> 그렇다고 페레스트로이카를 理論적으로 一般化할 수 있는 단계로 보기에 너무 蘇聯的인 要素가 있는 것 같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렇게 볼 때 蘇聯式 社會主義 方式의 近代화가 招來한 모순을 除去하는 과도기적인, 原則적으로 不必要한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단계로 規定될 수 있다.

---

註 54) Gorbachev, *Perestroika*, p. 63.

55) Donald Kelly, “Development in Ideology,” in Donald Kelly ed., *Soviet Politics in the Brezhnev Era* (New York: Praeger) pp. 182 ~ 200.

56) Pravda, 1986. 2.26.

### Ⅲ. 페레스트로이카와 經濟改革

蘇聯 經濟구조의 根本的인 改편과 이를 통한 經濟成長의 ‘가속화’는 民主化와 더불어 페레스트로이카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27次 全黨大會 정치보고중 모든 經濟部門에서 가속화의 必要性을 역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가속화란 單純한 經濟의 성장율의 제고가 아니라 加速化의 본질은 成長의 내용을 변화시켜야 된다. 즉 科學·技術의 發展에 기초한 생산의 전반적인 強化, 管理體制의 재편, 노동조직과 유인제도의 재구성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sup>57)</sup>

그렇다면 이렇게 加速化를 要求하는 蘇聯經濟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고르바초프는 蘇聯經濟를 어느 側面에서 보더라도 問題를 안고 있다. 성장률면에서 蘇聯經濟의 實質成長率은 1980 년대에 2.0~2.5%로 增加했다. (이는 소련의 공식 숫자인 3.0~3.5%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1人當 GNP면에서는 1.0~1.5%의 成長만을 뜻한다. 이와같은 成長率의 減少는 1970 년부터 나타난 持續的 감소 추세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sup>58)</sup> 이와 같은 추세가 持續된다면 蘇聯經濟는 제로성장에서 絶대적 下降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成長率의 격감의 內容으로 생산성-자본·노동을 包含-의 減少이다.

---

註 57) Yong-chool Ha, "The 27 th of the CPSU", Korea and World Affairs, Summer, 1986. pp.529 ~ 549.

58) Philip Hanson, "The Economy", Martin M. Cauley, ed., The Soviet Union Under Gorbachev, (New York: St. Martins, 1987), p. 97.



이는 量的成長의 한계에 부딪친 蘇聯經濟가 노동생산성의 向上을 통한 질적성장이 없이는 향후 經濟成長을 이룰 수 없음을 뜻한다.

세째, 蘇聯은 서구와 軍事競爭을 하고 있다. 비록 西歐와 군축회담의 成功을 전제하더라도 蘇聯·國防費의 경제의존도는 상당하다. 따라서 소련경제 成長의 지속적 하락은 소련의 軍事的 지위를 위협할 可能性이 크다.

네째, 西歐, 中國, 日本과의 경제적 경쟁이다. 蘇聯의 社會主義 모델의 우수성을 과시할 必要가 있다. 蘇聯의 1960年 GNP는 1983年 미국 달러 基準으로 美國 GNP의 47.7%였고 1975년에는 57.9%였으나 1983년에는 55.7%로 下落하였다.<sup>59)</sup> 1984年 미국의 GNP가 7%成長을 보였는데 비해 蘇聯GNP는 2%成長에 그치고 對美GNP 비율은 54%로 더욱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저성장율은 消費水準과 관련 중대한 政治問題로 化할 可能性이 있다. 1人當 GNP가 1.0~1.5%로 成長한다면, 국방, 投資, 消費間의 자원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選擇을 要求할 것이다. 특히 農業部門의 저조로 경제성장이 人口成長을 커바하는 狀況下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蘇聯經濟가 당장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指摘한 대로 軍事力, 소비수준, 再投資등의 相衝되는 우선순위를 모두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율의 鈍化를 방지할 수 없는 時點에 임박해 있다. 이는 量的成長이 더욱 어려워 짐에따라 그 重要性이 더 심각해진다. 蘇聯의 資本蓄積 增加率은 1986~90年사이 5.5%線에 머무를 것으로 豫상되어 1980년대 초기의 6.3%에 비해 떨어질 추세이고, 勞動力의 증가도 0.4~

---

註 59) Ibid., p.98.

0.5% (1986 ~ 90)으로 1976 ~ 82년의 0.8%에 비해 하락할 展望이다. 게다가 기존 유전의 폐쇄와 채굴의 어려움 增大, 시베리아 開發에 따른 資本需要의 증대 등은 量的成長의 지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經濟管理의 根本的 再改編을 위한 기본조치 (Basic Provisions for Fundamentally Reorganizing Economic Management)〉<sup>60)</sup>

위 조치는 1987年 6月 30日 蘇聯人民最高會議에서 의결·채택되었다. 이 措置의 후속으로 10개의 法令이 정치국에서 채택되었다. 蘇聯에서 非農業 部門의 經濟改革 전반을 보기 위해서는 이 이외에도 賃金制度의 전반적 改編을 要求하는 법령<sup>61)</sup>, 海外貿易規定 改正<sup>62)</sup>, 地域機關의 책임과 權限 확대에 관한 規定<sup>63)</sup> 개인의 經濟活動 범위 확장<sup>64)</sup> 생산조합의 기능 強化<sup>65)</sup> 등의 조치가 包含될 수 있다. 이 모든 規定에서 새로이 채택된 措置를 區別해 보면 다음과 같은 分類를 할 수 있다. ①中央計劃의 역할 ②企業所의 위치 ③中央行政機構의 機能 ④수급체제 ⑤가격과 임금 ⑥재정과 신용 ⑦對外貿易 ⑧개인과 조합활동 ⑨農業部門의 개혁 등이다.

〈中央計劃의 機能〉

‘基本規定’은 경제가 計劃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

註 60) Pravda 1987.6.27: Pravda, 1987.7.1.

61) Sobranie postarovenii pravitel'stva USSR, No. 34, 1986

62) Ekonomicheskaya gazeta, 1987.No.4, pp.3 ~ 4

63) Pravda, 1986.7.30.

64) Pravda, 1986.11.21.

65) Ekonomicheskaya gazeta, 1987, No. 40, pp.15 ~ 16.

主要 經濟施策은 15년 단위의 장기계획에 包含되고 보다 구체적인 目標量은 다시 5개년 계획에 의해 細分化된다. 이 計劃은 國家計劃委員會에서 공화국 각료회의로 가고 이는 다시 初期計劃資料로 기업에게 보내진다. 기업들은 이에 기초하여 그들 자신의 5個年 計劃과 經常計劃을 작성, 결정한다. 計劃은 매년 수정·신규조정될 수 있다.

새로운 案에 의하면 企業은

첫째, 위로부터 총물량계획, 技術改革과 사회발전·外換高 등에 관한 주요 지표를 나타내는 ‘비구속적 콘트롤수치’를 받는다.

둘째, 社會의 주요 需要를 충족시키는 데 必要한 國家로부터 注文 즉, 中央의 투자에 의해 運營되는 시설 배정, 社會發展, 科學·技術의 개발, 外國貿易關係, 國防 등에 필요한 물자생산의 할당,

세째, 配給되는 물자와 中央執權的인 투자할당의 한도( limits ),

네째, 長期經濟指標·賃金上昇率, 자본·노동지불, 利潤의 割當, 소비계획 등이 있다. 利潤은 대체로 세금과 몇몇 基金을 조성하기 위해 承擔된다. 주요기금으로 社會發展基金, 보너스기금, 연구·개발기금 등을 들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國家가 투자의 대부분의 方向과 限度를 결정하려 한다는 점이다. 또한 經濟開發의 方向과 技術·開發·프로그램을 上部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國家 注文體制를 통해 政府는 生産을 제시하고 총생산의 일부에 必要한 材料를 割當할 것이다.

### 〈企業의 位置〉

‘國家企業에 관한 法’은 改革下의 기업의 位置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法은 1988年1月1일부터 發효한다. 기업들은 1988년부터 1989년 사이

점진적으로 모두 이 법의規制를 받는다. 同法은 企業들의 의사결정 權限에 대해 “既存 法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떠한 決定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法은 또한 기업의 權利를 國家가 보장토록 되어있고 만일 이것이 침해될 때 회복될 수 있는 條項을 設置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同法은 기업들의 破産條項을 신설하였다.

新法에 따르면 기업은 獨自적으로 5개년계획을 樹立·인준한다. 다만, 이 計劃作成에는 ‘非拘束의 콘트롤數值’, ‘義務的인 國家收納’, ‘限度值’(limits), ‘안정적인 경제목표치’, ‘顧客과의 契約’ 등에 基礎해야 한다.

法은 企業들이 계획과 契約義務를 徹底히 지킬 것을 規定하고 있다. 또한 注文의 履行, 契約의 완수가 企業評價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또 이에 따라 從業員들의 보상의 기초가 決定될 것을 規定하고 있다.

改革에 관한 상기 文書들은 모두 기업이 原則적으로 평상수지와 자본지출을 企業의 판매와 다른 내부 소-스에 의해 充當하는 완전 독립채산제를 채택토록 規定하고 있다.

기업의 독립채산성 소득은 다음과 같은 두 方法으로 規定되고 있다. 첫째 方式은 企業의 소득을 임금기준(이는 賃金指標에 의해 결정된다)과 利潤의 合에 의해 결정한다. 利潤은 企業의 모든 稅金, 業務的으로 내는 省基金 그리고 銀行 貸金에 대한 利子支拂後 남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남게되면 利潤은 人口基金, 住宅基金 보너스기금등에 充當된다.

둘째 方式은 기업의 총 소득에서 元金, 資材費, 稅金, 出捐基金, 利潤등을 공제한 후 남는 것을 기업의 채산성 소득으로 하고, 여기서 投資, 社會·文化基金등에 들어가는 費用을 공제한다. 이 후 남는 것이 노동을 補償하는 단일 賃金基金이다.

現在까지 제 1 方式이 주된 형태였으나 第 2 의 방식이 소매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賃金改革의 特徵이다. 기업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이 3基金에 쓸 수 있다.

新 企業法은 각 기업에 '勞動委員會'를 설치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 협의회의 任員은 선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르바초프의 民主化 조치에 併行하는 것이다. 同 委員會는 1分期에 적어도 1번씩 열도록 되어 있고 2~3年間の 任期를 위해 비밀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委員會의 權限은 기업의 유인기금과 노동자의 賃金, 기술, 訓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이 決定은 拘束力을 띤다. 同法은 또한 企業의 주요 管理職 - 支配人, 聯合企業所의 부서장, 생산단위, 생산작업소, 과, 계 등을 選出토록 하였다. 支配人은 коллек티브의 選舉에 의해 그 職이 박탈될 수 있게 하였고, 이의 임명은 上部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 〈中央 및 地域行政機構〉

금번 改革은 中央과 地方의 관리조직의 機能, 構造, 스태프의 전반적 개편을 의도하고 있다.

리즈코프 首相은 1988 年까지 改編이 완료될 것으로 보았다. 國家計劃委員會는 長期·戰略計劃과 경제적 수단을 통한 관리방법의 개선 方案에 重點을 두는 機關으로 개편될 것이다. 同 委員會는 특히 經濟擔當 中央機構를 총괄하고, 5 개년, 15 개년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執行부서에 이관한다. 또한 기업의 國家에 대한 內容 設定, 주요 생산에 관한 分配 問題를 取扱한다.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國家의 과학·기술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한 計劃의 分配, 산업간, 업종간 科學·技術開發計劃의 조정등을 맡는다.

또한, '超省機構(Super-Ministries)'의 설치로 각료회의 산하의重複 또는 聯關性들을 통합·조정한다. 농업의 경우 後述할 것인바, 農業以外에 건설위원회, 海外貿易委員會 기계건설국, 에너지국, 社會發展局 등이 새로 설립된 超省機構들이다.

각 省은 산업내 업종간 구별( glavki )을 止揚하고 직원의 數를 減少시켜 나갈 것으로 되어 있다. 省內의 各課를 廢止, 수천의 기존 聯合企業所나 기업소로 통합, 이들이 直接 省의 管理감독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이를 爲해 企業所의 解體·聯合등이 많이 豫상된다.

비록 企業에 대한 日日監督이 많이 축소되었으나 아직 광대한 責任을 지고 있다. '基本措置'에 의하면 각 生産부서의 生産, 不均衡의 시정, 세계 技術水準의 준수·確保 등에 대해 省이 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計劃部署와 管理過程 사이의 연결역할을 한다.

비록 새 法令들이 企業의 自主權 확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省은 獨占行爲, 物價安定, 科學·技術開發 方面에서 責任을 지고 있어 企業 自主權의 침해 可能性이 아직 높다.

地域管理機構의 機能 특히 共和國 閣僚會議, 지방소비에트의 役割增大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능확대에 대해 지방소비에트와 地域機構에 '生産·經濟部'를 新設토록 하였다. 특히 地域開發에 필요한 諸般機能이 광범하게 地域機構에 부여되었다.

### 〈需 給 體 系〉

"基本措置"는 物資供給體系의 根本的인 革新을 要求하고 있다. 중앙집권화된 物資供給體系와 사용자, 生産자 直接接觸에서 4~5年內에 生産재의 경

우 都賣物價에 의해 規制되도록 하였다. 새 法令은 國家供給委員會에 도매 물가에 의한 판매조직을 研究토록 指示하였다. 이 과정은 소비재 生産에 가장 必要한 物資, 農業, 建設, 기계 條項과 개인생산자의 必要 등의 그룹으로 나누고 特別히 희귀재에 대해서만 配給制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都賣去來는 企業間, 國家都賣 組織이나 生產業체의 직접판매 機構와 자유로운 買入과 販賣의 형태를 취한다. 이에 따라 企業間的 契約履行의 重要性이 새로운 意味를 갖게된다. 蘇聯法은 契約履行에 관한 분쟁을 재판소의 領域으로 移轉하였다.

現在 蘇聯에서 총 거래의 5%만이 도매거래로 供給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료회의의 法令은 1990년까지 약 60%, 1992년까지는 100%의 都賣去來 所의 移轉計劃을 規定하였다.<sup>66)</sup>

#### 〈價格과 賃金〉

‘基本措置’는 1990년까지 근본적인 價格改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價格 決定에 관한 法令은 수정된 도매가격이 1990년 1월부터 운수, 通信部門에서 실시될 것을 규정하고, 建設·農業에서의 매도가격은 1991년 1월부터 도입하도록 計劃하였다. 그러나 小賣價格의 改革에 대한 日字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번 價格改編의 特徵은 이전과 달리 도매, 매도, 소매가격 등 全般的인 價格體系의 개편이라는 점이다.

賃金體系의 개혁은 1986년 9월 당·정부 共同으로 채택된 임금체계 計劃 法令의 골자를 吸收하였다. 이에 의하면 임금개혁은 1987~1990년 사이에

---

註 66) Pravda, 1987.7.18.

産業部門別, 企業別로 실시토록 하였다. 시행령으로 채택된 勞動組合과 국가 노동·사회문제위원회의 천거사항에 의하면, 경제의 分野와 業種別로 勞動級數의 재조정, 생산노동자에 대한 基本給 再調整, 기본급의 일률적인 25% 인상, 현행 노동급수와 일의 難易度·연계의 再評價, 노동지표의 진보적 조정, 事務職 샐러리기준의 再設定, 평균샐러리 比率의 35% 인상, 支配人으로 하여금 직종과 보너스의 一效性を 連繫시킬 수 있는 權限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國家企業法’도 이에 부응하여 지배인의 勞動과 임금에 관한 재량권을 擴大하였다.

賃金改革의 주된 의도는 일에 따른 賃金の 격차를 增大시키고 상여금의 支給이 효율성과 일의 질에 따라 決定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過去의 ‘賃金の 강제적 平準化’를 廢止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과 企業의 독립채산제에 대한 관심을 조장하는 데 있다.

#### 〈 財政과 信用 〉

銀行과 財務省의 기능에 관해 새 개혁은 은행의 신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화폐증발을 억제하고 信用과 利子が 企業에서의 효율적인 資金利用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銀行의 數를 지금의 3개에서 6개로 증대하는 方案이 採擇되었다. 은행과 保險會社들도 독립채산제에 의한 運營 原則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企業들은 대출한 신용에 대해 이자를 支拂하도록 되어 있다.

#### 〈 貿易體制의 改編 〉

蘇聯의 經濟改革의 일환으로 1986년 8월 무역관계 組織 改善을 위한措



置를 발표하였다.<sup>67)</sup>

그 주된 의도는 소련내의 생산단위와 外國의 顧客, 供給者間的 직접적인 關係를 용이케하는 것이다. 이는 既存의 對外貿易機關들의 대외무역 협상권을 각 省이나 생산연합체로 이전하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다.

現在 대부분의 對外貿易機關들은 대외무역성 소관으로 되어 있다. 현재 생산연합체들은 기존체제하에서 直·間接으로 契約協商에 參與하고 있으나 對外貿易機關의 서비스가 없어서는 안되는 형편이다.

蘇聯과 동구라파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5種類의 貿易關係 機關이 있다. 첫째, 무역성에 속하는 외국무역기관, 둘째, 海運이나 觀光과 같이 貿易省에 속하지 않는 무역기관, 셋째, 외국무역에 直接 관련할 수 있는 企業所, 마지막으로 國內企業, 銀行, 對外貿易機關 등에 의해 合作으로 세워진 무역기관등이 있다.

蘇聯의 경우 전자의 두가지 類型만 존재한다. 특히 첫번째 유형이 모든 對外貿易 業務의 거의 전부를 取扱하고 있다. 그러나 改革案에 의하면 21 個省과 67의 優秀企業들에게 외국과 직접 輸出·入을 行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동시에 外國과의 合作企業을 국내에 認可하였다.

무역행사에 관해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制度下에서 첫째, 위로부터 企業에 하달되는 승인지표로서 交換可能通貨를 包含한 외화수취고에 관한 課題가 추가되었다. 각 기업은 이 범위내에서 企業自體의 자금으

---

註 67) *Eknomicheskaya gazeta*, 1987, No 4. 또한 Philip Hanson, *Reforming The Soviet Foreign Trade System Plan, Economic Report Vol. II, No.35, 1986.8.28. 參照.*

로 '外貨資金'을 설치하고 그 자금으로 각 企業이 必要한 기계설비나 자재를 輸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출에 관한 계획 또는 契約義務가 履行되지 않는 경우 각 企業은 그에 따른 손해를 자기의 외화자금에서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中央의 都(또는 省)에는 그에 속한 企業의 外貨保有庫의 10%까지 징수하여 당 部 소속의 企業들의 수출발전을 위한 財源으로 사용토록 '集中外貨資金'을 설치하도록 規定하였다. 각 기업은 蘇聯 外國銀行으로부터 상환기간 4年の 외화신용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채산제에 基礎하여 운영되는 貿易機關은 部內에 法人格體로 전연방외국무역공단은 그 산하 기업에 外國貿易部를 각기 設置할 수 있다.

다음으로 合作投資의 경우 資本比率는 소련측이 51% 이상 소유토록 한다. 合作의 경우 蘇聯法에 의거 법인격이 부여된다. 企業의 會長과 社長은 소련 시민으로 한다. 合作企業에 의무적 과업은 부여치 않고 經營은 獨者的으로 행한다. 設立後 2년간은 세금을 면제하나 5년째부터 企業利潤에 대하여 30%를 과세한다. 利潤의 國外送金은 인정된다. 다만, 20%課稅된다. COMECON 國家間的 合作投資의 경우도 대체로 이와 類似하나 蘇聯側의 출자비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利潤送金은 루블과 기타 외화로 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 <個人營業 및 協同組合企業의 認可>

蘇聯의 1977年 憲法에 이미 개인영업에 관한 規定을 두었으나 그 구체적 실시는 1986年 11月 소련연방최고회의의 '個人營業活用に 관한 法'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sup>68)</sup> 個人營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18歲이상의 社會的 生産從事者(단 이들은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만), 주부, 신체장애자, 年金生活者, 학생 등이다. 개인영업은 16세 이상의 피부양자를 包含하는 同居家族의 參加는 許諾되나 개인노동의 고용은 禁止된다. 주로 副業의 성격을 띠게 된다.

業種別로는 衣服, 구두, 가방, 가구등 家內手工業生産, 가옥, 자동차, 가전제품, 기타 修理나 개인택시등 일상 서비스, 家庭教師, 번역, 醫療行爲 등의 사회·文化的 서비스에 관련된 29個 業種이 對象이 된다.

所得에 대한 課稅는 現行 소득세의 최고 부과액인 13%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累進所得稅가 될 것으로 發表되고 있다.

또한 1987年 5月 1日부터 個人營業法 實施 이후 1년 이내에 人口의 약 1%인 200~300萬<sup>69)</sup>의 蘇聯人들이 이 法에 의한 認可를 받을 豫定이고 그 이후의 增加를 고려할 때 蘇聯 國民所得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2배인 4%에 달할 것으로 豫想된다.

協同組合企業의 새로운 인가는 2가지 類型을 띤다. 첫째는 産業廢棄物이나 가정폐기물의 재생이나 加工, 再生原價를 이용한 소비재·생산재 生産을 하는 形態로 조합원 5人以上 50人까지의 規模로 設立한다. 設立後 지방국가수급위원회의 管轄하에 놓인다. 이 企業의 設立後 2년간은 10%, 3년째는 20%, 그 이후는 35%의 所得稅를 과한다.

제 2의 형태는 식당 일상서비스업, 地方에 국한된 消費材 生産을 하는 것

---

註 68) Pravda, 1986.11.21.

69) Ouput, ソ連濟經の中長期分析( Tokoy 綜合研究 關係 掲載, 1987 ), p. 204.

으로 構成員 3人 以上에 의해 組織된다. 第2의 形態에 의한 생산이 國民所得에 차지하는 비율이 향후 10年內에 10~20%에 달할 것으로 展望된다. 조합원의 對象은 앞서의 個人企業의 경우와 類似하다.

위와 같은 個人 또는 協同體의 國家計劃 밖에서의 인정은 기왕의 地下經濟 또는 「第2經濟」를 公開으로 인정하는 것을 意味한다.

### 〈 農業部門의 改革 〉

스탈린 體制가 蘇聯經濟에 남긴 가장 부정적 유산중의 하나는 農業部門의 후퇴였다. 工業化 위주의 政策과 農業의 집단화는 蘇聯農業의 침체의 주요 원인이었다. 蘇聯農業은 지속적인 성장의 둔화를 보여 왔다.<sup>70)</sup>

고르바초프의 農業問題에 관한 관심과 農業政策에의 관여는 상당한 역사를 가진 것이다. 그는 모스크바대학을 졸업하고 스타브로폴에 돌아온 후 農業資格士 資格證을 따고, 농업지대에서 주로 그의 政治的 활동을 전개했다.

이 이외에 1978년 Kulakov가 죽은 이후 고르바초프는 中央委員會 農業擔當 書記로 임명되었다. 이와같이 그는 브레즈네프의 末期와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하에서 蘇聯 農業政策 樹立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 이후 農業政策의 변화는 과거부터 執行되어 온 政策의 변경 또는 國家와 새로운 政策의 실시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肉類와 알곡 生産量의 실질적 하향조정, 관개시설사업의 재조정, 시베리아에 있는 강들의 會流計劃의 白紙化 등과 非黑土地域의 개간의 지속 등이 이에 속한다.

---

註 70) Martin Mc Cauley, ed., The Soviet Union Under Gorbachev, p 119에서 전재.

後者の 예로 1985년 11월 聯邦共和國 國家農工委員會의 구성이 발표되었다. 이 委員會에는 農·工分野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農·工 部門은 農場, 農機械 公營산업, 트랙터와 기계와 비료등 農業用 化學材, 農業製品을 加工하는 업체등이 속한다.

農業, 食糧, 과일, 野菜, 肉類, 酪農, 農村建設 등을 담당하는 6개省과 농업 생산기구공급국가위원회 및 輕工業省, 農業製品監督官 등의 일부가 Gosagroplan으로 이전되었다. 農業 및 食品省에 관련되는 트랙터·農業機械·機構生産省 등이 이 委員會의 조정위원들이다. 獨立된 자격으로 Gosagroplan의 計劃과 資金問題의 협의에 관하여는 부처로서 糧穀收買省, 土地改良省 등이 있다.

이 조직 改革의 目的은 部·處 間의 이익 충돌에 의한 政策의 樹立·調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새 委員會는 생산재 投入·生産·加工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運轉히 運營하는 데 그 주된 目的을 두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권을 地域과 企業 水準으로 擴大하기 위한 첫 단계 措置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중앙의 省들의 機能과 人員이 약 47% 이상 減縮될 것으로 보인다.<sup>71)</sup>

農產物價格 책정문제는 蘇聯 政治經濟의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이다. 즉 農產物 價格을 올릴 경우 農業生産을 자극할 수 있으나 이에따른 食品價格의 상승으로 도시 노동자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나 또한 한편 農產物價格을 올리지 않을 경우 農民들의 生産意慾을 고취시킬 수 없다.

---

註 71) Barbara Sevorin, "The March 1986 Agriculture Decree in Perspective" Paper Prepared for The Eighth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oviet and East European Agriculture, Berkeley, California, 7-10 August 1987.

고르바초프는 27次 全黨大會 연설에서 이 딜레마의 解決을 위한 措置의 必要性을 지적하였다. 그는 'Prodnalog(現物稅)'라는 表現을 사용하였다. 1987년 3월 29일 蘇聯邦閣僚會議의 規程에 이전의 계획초과 생산분 에 대한 특별 지불제도는 유지되었으나 國家收買價格은 現행 5개년계획 동안 安定을 유지토록 하였다.

또한 義務販賣量은 安定되게 規定되거나 이미 발표된 범위내에서 증가되도록 하였다. 땅의 限度에 관한 결정은 중앙에서 보다 地域的 基準에 의하도록 하였다.

農場의 追加賣渡分에 대하여는 1981~85年 價格의 2배로 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주요 穀物의 추가생산매매를 장려하기 위해 農機械와 산업공정의 부산물 중 農家에 쓰일 수 있는것의 우선적 販賣를 國家가 追加穀物賣渡 農場에 실시한다. 지역기관과 농촌행정구역인 raion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價格의 조정, 가축·과일·야채 생산의 量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地域機關의 計劃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個人經濟 活動 導入으로 특정부문-국가지정 곡물 이외의 酪農, 野菜, 과일 등-에서 小賣過程에서의 政府의 규정과 가격의 적용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위에서 언급된 고정된 價格과 성취하기 어려운 生産目標에서 올 손해를 가산할 여지가 있게 된다.

비록 1986년 3월의 農業에 관한 규정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計劃樹立, 買入, 販賣 節次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유인제도를 導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農場의 자주권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결여되어 있고, 전반적인

投資, 生産, 買入, 資源 配分이 아직도 中央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초과생산에 대한 보너스제에 의해 생산성이 높은 農場들은 계속 利益을 보고 이에 대한 國家의 財政負擔이 증대되며 동시에 생산성이 낮은 農場의 閉鎖를 규정하고 있지않아 國家의 負擔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農業部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小規模農業勞動集團’ 制度의 擴張이다. 농업브리게이드 또는 ‘링크’ ( links )라고 불리우는 이 制度는 勞動 및 分배 조직으로서 브리게이드 또는 ‘링크’는 독자적으로 생산의 성공과 실패에 責任을 지고 그에 따라 分배를 받는다. 이는 과거 주어진 作業目標의 達成에 따라 生産結果와 무관하게 分배받던 制度와 다른 것이다. 또한 組織의 勞動 스케줄 등에 있어서 독자적 決定權을 갖는다.

이 制度는 이어 1982년 食糧프로그램의 일부로 採擇되었고 그 이전 고르바초프가 勤務하였던 Stavropol 地域에서는 과거 1970년대 부터 導入되었다. 이 制度는 고르바초프가 農業政策을 전담한 이후 더욱 강조되었다.<sup>72)</sup>

한편 links 보다 더 작은 단위인 家族請負制度가 導入되었다. 이는 家族 중심으로 責任生産과 分배를 받는 制度로 극히 제한적인 적용과 언급이 있어 왔다. 특히 이 制度는 社會主義 經濟의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反對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는 그의 27次 全黨大會에서 가족이 集團契約制의 單位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농업부문에서는 극도로 勞動力이 집중된 地域이나 특수지역-산간지역 중앙아시아의 감자, 사탕수수, 야채재배지역 등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다. 大規模의 機械化된 農

---

註 72) Karl - Eugen Wädekin, "Agriculture"n, Martin Mc Canley, op. cit., p. 119.

業部門에는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이다.

### < 經濟改革措置의 綜合的 評價 >

綜合評價가 이전 蘇聯 經濟改革 중 가장 진보적이고 종합적이었다고 하는 1965년 소위 코시킨 改革과 比較·檢討하여 보자.<sup>73)</sup>

첫째 計劃 樹立 過程과 企業의 역할면에서 1965년 改革은 위에서 결정된 生産目標量에 근거하여 기업들은 長期·年次計劃을 수립한다. 상부기관은 이를 企業과 함께 檢討하고 고정지표에 대한 장기·년차 計劃目標를 승인한다. 이 年次 計劃指標에 근거하여 企業은 세부 生産計劃을 작성한다. 따라서 企業의 計劃은 생산량 달성 위주이고 기업의 綜合計劃에 융통성이 거의 없다.

또한 計劃의 變更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지표의 수가 30여개 이상에서 8개로 줄었다.

이에 비해 1987년 ‘根本措置’는 계획작성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콘트롤수치를 받아 계획을 작성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1987년 計劃過程도 中央의 개입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도 사실이다.<sup>74)</sup>

둘째 수급체제에 있어서는 1965년의 경우 2가지 狀況으로 나누어진다.

---

註 73) 1965년 計劃에 대하여는 Planning, Profit and the Incentives in the USSR, ed. Symyon F. Sharpe (New York : International Arts & Science, 1966), Vol. I~II.

74) 1965년 改革과 1987년 改革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Ha, Yong-Chool,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1965 and 1987 Reform," A Presentation Made at the 1987 Meeting of AAASS, Boston, November, 1987 參照.



그 하나는 企業이 中央의 計劃에 지정된 대로 割當命令書에 따라 할당을 받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國家나 生産組合으로 부터 契約을 통해 割當命令書 없이 받는 경우 또는 小規模의 專門化된 都賣去來所나 小賣商店에서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반해 1987년의 경우 生産財, 消費財, 建築, 機械등의 공급체제가 향후 4~5년 이내에 物資의 中央配分과 생산자, 사용자의 직접연계에서 都賣去來로의 결정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는 1965年 改革에서 진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價格決定 구조면에서 1965年 改革은 企業이 上部機關의 許諾을 받지 않아도 物品의 價格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1965년의 경우도 都賣去來의 概念이 導入되었으나 보수파와 진보파간에 價格決定에 관한 심한 마찰이 있어, 결국 平均價格制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에 의하면 限界費用에 근거하지 않고 한 산업 내의 平均費用과 平均 15%의 利潤을 책정하고 있다.

1987년의 價格決定은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실시, 1990年 1월 1일까지 運輸部門의 都賣價格과 태리프율을 수정토록 하였고 1991년에는 建設·農業部門의 價格體系가 수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와 달리 都賣·小賣, 買入價格 等 전반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國家가 價格을 決定하는 부문이 점차 축소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신하여 契約價格이나 企業이 결정하는 價格의 비중이 점차 增加되도록 규정하였다.

價格決定에 고려될 요인들로는 生産, 販賣費用, 效用度, 質, 需要水準, 資本, 勞動, 環境에 대한 영향등을 들고 있다.

네째, 賃金決定의 경우 1965년에는 工場의 지배인이 生産量別, 時間別, 職

種別 賃金の 분화 결정권을 가지고 보너스, 支拂 조건과 指標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勞動生産性 指數, 平均賃金, 勞動者 수에 관한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오직 總賃金基金 한도만 상부에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지배인은 勞動力 使用·計劃과 勞動時間 배정에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1987년의 賃金決定은 勞動의 質, 量과 賃金과의 연계를 더욱 세밀히 하였다. 또한 지배인이 직종에 따른 賃金率의 조정에 보다 많은 선택권을 부여 받았다. 개인의 所得限界가 없어지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평준화를 실시하는데 있어 1965년보다 더 나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배인의 權限面에서 1965년과 1987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比較의 차원을 1965년에 비해 새로운 것, 擴張, 거의 동일 水準, 후퇴로 나누어 볼 때 후퇴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다. 거의 같은 性質의 것으로 賃金策定分野를 들 수 있다. 外國貿易, 個人事業의 인정, 農業改革 등은 새로운 改革으로 받아들여 진다.<sup>75)</sup> 그러나 대부분 즉 計劃樹立, 價格決定 등은 1965년 改革案의 延長, 擴大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87년 改革 자체는 어떻게 評價되어야 할 것인가? 대체로 현재까지 두가지 다른 見解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 見解는 현재 蘇聯에서의 改革을 1965년 이후 헝가리의 經濟改革과 유사한 비교적 광범한 改革으로 評價하는 見解와 다른 하나는 근본적 改革을 包含하지 않고 있다는 見解이다.

---

註 75) 여기에 管理組織의 改革, 특히 企業內 民主的 經營要素의 導入은 새로운 요소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긍정적 견해는 우선 計劃에서 生産目標 달성 위주를 많이 벗어났다는 점, 價格決定에 수급균형, 한계이론의 導入(비록 價格이 中央決定式으로 되어 있으나), 企業資金調達 방식의 자기 金融이 강조된 점, 經濟管理에서 normative '지표'의 역할이 상당히 간접성을 띠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後者の 見解는 生産目標量 經濟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 中央投資配分 構造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 콘트롤數值가 간접적 統制가 아닌 命令指標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改革的 次元에 지속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이한 견해는 물론 蘇聯經濟改革 package 자체가 애매성과 모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두 견해는 現行 改革의 제반 조치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옳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1965년의 改革과 비교할 때 今番 改革은 많이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蘇聯改革案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야기한다. 經濟改革은 단순히 經濟的인 것이 아니라 政治, 社會, 文化, 國際環境등 제반 여건과 과거의 經驗과 經濟遺産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經濟改革을 보다 長期的이고 段階的인 시각을 취하게 된다. 즉 蘇聯의 經濟的 문제들은 과거 수 십년간 축적되어 그 심각성이 거의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축적되는 과정과 병행하여 政治·社會·經濟 엘리트들이 구체제와 연계되어 그 거대한 구세력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改革戰略은 급격한 충격을 주면서 동시

에 舊 政治勢力에 대한 점진적 해체와 經濟改革의 성과의 과시등 침식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蘇聯改革이 단순히 1~2년에 蘇聯體制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면 ‘革新的’(radical)인 면이 불충분하다고 評價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능한 한 최상의 出發이라고 본다면 동 改革은 과거 어느 것보다 많은 변화를 지닌 出發計劃이라고 보여진다.<sup>76)</sup>

---

註 76) 이러한 著者の 見解와 비슷한 헝가리 內의 見解에 관해서는, 西村可明, “ハンガリーカク具たコ‘ハハ’チフの 經濟改革”, in Output, (日本) 綜合研究所開催機構, 1987.10. pp. 219-20 참조.

## Ⅳ . 展 望

고르바초프 改革의 展望은 어떠한가? 이 물음에 쉽게 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관련된 변수가 많고 복잡할 뿐 아니라 그 變數들의 앞으로의 變化에 대한 豫測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취해진 모든 措置와 - 즉 여기에서 빠진 學校教育 改革, 地域問題, 民族問題, 外交政策分野 - 이에 대한 反應들과 엘리트內의 분위기, 討論內容 등 다각적인 分析과 지금까지 改革의 成果 등을 檢討한 후에 비로소 試驗的 結論이 導出될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와같은 모든 側面이 考慮가 된 것이 아니고 주로 政治, 經濟에 焦點을 맞추어 言及되었으므로 그 展望에 대한 豫測은 더욱 制限的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制約 속에서 어떠한 基準으로 展望을 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고르바초프의 권력(power) 공고화의 水準이다.

둘째, 그의 改革政策들의 호소력을 통한 指導者로서의 能力發輝, 즉 權威(authority)의 確立이다.

셋째, 고르바초프의 社會的 支持基盤,

넷째 현재까지의 政策執行 結果,

마지막으로 國際的 與件과 不可豫測的 要因의 작용을 기준으로 들어 檢討할 수 있다.

어느 基準으로 보든지 고르바초프의 權力 鞏固化 과정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進行되고 있다. 이는 1930年以來 처음 있는 일이다. 權力強化의 指標로 人事改編의 정도를 살펴보자. 蘇聯과 같은 停滯된 엘리트 構造에서 人事改編은 政策支持者의 確保의 정도를 가르키는 主要指標로 볼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고르바초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時期를 맞았다고 보여진다. 즉 廣範하게 일어나는 엘리트層의 世代交替와 執權時期가 全黨大會를 1년여 앞두고 일어났다는 것은 그에게 人事交替에 좋은 機會를 提供하였다. 이는 단순한 1회에 걸친 人事改編이 아닌 持續的인 可能性도 동시에 保障하고 있다.

우선 政治局 水準에서의 변화를 보면 第27次 全黨大會 직후까지 政治局에 체르넨코의 死亡以後 5명의 新規 政治局 正委員이 追加되었다.(Chebrikov, Ligachev, Ryzhkov, Shevardnadze, Lev Zaykov) 또한 7명의 候補委員中 5명이 새로 任命되었다.(Yel'tsin, Slyun'kov, Yuriy Solov'yev, Sergev Sokolov, N.Kolay Talyzin) 또한 書記局의 10명의 書記中 7명이 경질되었다(A. Biryukova, A. Dobrynin, V. Nikonov, Razumovskiy, Yakovlev, Zaykov).

1987年 1月 당중앙위 全体會議에서 카작스탄共和國의 黨 第1書記였고 政治局員인 D. Kunayev가 政治局에서 축출되었다. 또한 A. Yakovlev가 政治局 候補委員으로 昇格되었고 A. Luk'yanov와 Slyn'kov가 書記局 秘書로 발탁되었다. 새로이 任命된 이들은 모두 고르바초프와 인연-학연이나 職務上-이 있는 人物들로 알려져 있다.<sup>77)</sup> 1987年6月 당중앙위 全体會議에서 Yakovlev, Slyun'kov, Nikonov가 政治局의 正會員으로 昇格되었다. 또한 G. Aliyev가 1987年 10月 은퇴함으로서 고르바초프에게 새로운 機會를 열어 주었다.

黨中央委員會의 경우 1986年 27次 全黨大會에서 選出된 中央委員中 1982年 26次 全黨大會 委員의 55%가 再選되어 約 40%가량이 새로이

---

註 77) J. Hough, "Gorbachev Consolidating Power", Problems of Communism, July - August, 1987, pp. 32 ~ 36.

選出되었다. 이것은 豫想보다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그 主된 要因은 中央委員의 數가 감소된(319명에서 307명으로)데 있을 것이다. 또한 中央委員會의 構成을 보면 1981年의 경우 關係들이 22%였던 것이 1986년에는 18%로 下落하였고 이들과 利益을 달리하는 地方의 黨·國家組織 出身의 比重이 44%에서 47%로 增大되었다.<sup>78)</sup> 中央黨 候補委員의 경우 1986年 170名中 69%가 新規로 選出되었다.

主要 엘리트의 變動 推移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82年 3月부터 1987年 3月사이 關係會議 副首相級은 13名中 11名(84%), 關係級은 83名中 69名(83%) 共和國 黨中央委員會 第1書記는 14名中 9名(約70%), Oblast(地域黨) 委員長은 150名中 108名(72%), 軍事區의 司令官은 20名中 19名으로 거의 다 바뀌었다. 이와같은 廣範圍한 人事移動은 일단 고르바초프의 權力強化의 한 指標로 보아야 될 것이다.

위와 같이 고르바초프가 權力을 強化했다면 과연 그는 그의 政策의 重要성과 정당성으로 엘리트그룹과 國民들을 說得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權威를 獲得하여 그 자신을 확고부동하고 不可決한 指導者로 내세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앞서 權力의 경우와 같이 明確하지 않다. 다만 엘리트와 大衆 水準에서 다 같이 과거 10여년간의 停滯에서 벗어나 새로운 變化를 원하고 있다는 불만적 環境이 고르바초프에게 有利하게 작용할 것이다.<sup>79)</sup>

그러나 구체적 政策에 대한 엘리트內의 反應과 大衆들의 態度를 통해 실제 고르바초프가 어느 정도 그의 政策을 說得시키려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

註 78) J. Hough. p.33.

79) Thane Gustafson and Down Mann, "Gorbachev : Building Power and Authority", Problems of Communism, May - June 1986, p.19.

있다. 엘리트간에 상당히 높은 水準의 計劃에 대한 필요성 認識의 공유가 存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方法과 速度, 範圍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1986年 10月 예정이었던 黨中央委 全體會議가 意見差異로 1987年 1月로 延期되었다. 또한 1月 全體會議에서 黨과 소비에트 選舉에서 복수 추천제와 秘密投票에 관한 고르바초프의 提案은 많은 수정을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1987年 6月 全體會議에서 高르바초프가 내세운 經濟改革措置도 역시 수정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 西方에는 리가초프와 고르바초프간의 갈등에 관심을 쏟아왔다.<sup>80)</sup> 이데올로기는 리가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는 고르바초프가 맡는다는 단순한 기능 분업에서 벗어나 상당한 意見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리가초프의 社會科學論爭에 대한 보수적 論評, 改革의 主體로서 리가초프는 行政組織을 통한 위로부터의 改革을 推進해야 한다는 立場(고르바초프의 大衆 動員에 對해) 등 글라스노스트와 民主化에 있어 약간의 見解差異가 있었다.<sup>81)</sup> 그러나 現在까지 두 사람간의 갈등을 합리화할 만한 強한 證據는 보이지 않는다.<sup>82)</sup>

이와 다른 경우로 Boris El'tsin 경우를 들 수 있다. 1987年 10月 中央委全體會議에서 政治局 候補委員이며 모스크바 市黨委員長인 El'tsin 은 페레스트로이카의 進行速度가 極히 低調함을 批判하였다는 것이다. 同時에 그는 고르바초프 周圍의 個人崇拜 霧圍氣와 리가초프의 反改革 態度를 공격

---

註 80) New York Times, 1987. 12. 12.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1987. 5. 27.

81) 그의 한 예로 Ligachev의 입장에 관해, Pravda 1985. 2. 2.

82) "Ligachev Vs. Gorbachev", Radio Liberty Research Bulletin, RL 325 / 87, August 12, 1987, p.5.



·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sup>83)</sup>

이러한 소문은 中央委書記인 A. Luk'yanov에 의해 確認되었다. 그는 中央委의 다른 委員들의 支持를 받지 못하고 결국 政治局 候補委員을 辭退하였다.

El'tsin 경우 그의 성격과 신병으로 인한 단순한 個人的 事件으로 規定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El'tsin의 改革의 速度와 範圍에 대한 초조감은 蘇聯內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共有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인테리 階層과 젊은 專門家 階層에서 改革에 대한 支持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改革速度에 대한 불만의 處理가 과거 改革과 달리 문제로 등장할 可能性이 있다.<sup>84)</sup>

蘇聯 社會內에서 가장 組織的인 그룹인 軍의 反應은 어떠한 것인가? 傳統的으로 軍은 改革에 보수적인 反應을 보이는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現在 狀況下에서 軍의 태도는 改革의 推進에 큰 障礙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 主要 要因으로는 첫째, 傳統的으로 蘇聯軍은 政治化되지 않았다는 점을 배경으로 指摘할 수 있다. 둘째, Rust 君事件으로 자연스럽게 고르바초프는 軍 內部를 숙청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그의 改革을 支持하는 Yazov를 새 國防相으로 任命하였다.<sup>85)</sup>

세째, 비록 改革이 軍事豫算 삭감을 가져올 것이나 대부분의 軍 高位級 장성들은 蘇聯 經濟問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軍 內部的 非效率성을

---

註 83) The New York Times, 1987.10.30.

84) 이 점에 관해서 J. Hough, op. cit., "Gorbachev Consolidating Power", pp.42 ~ 43.

85) 고르바초프下의 軍 問題에 관해서는 Dale Herspring "On Perestroika : Gorbachev, Yazov and the Military", Problems of Communism, July-August 1987, pp.99 ~ 107.

提高할 필요성에 대해 納得하고 있다. 특히 軍人事의 교정, 새로운 技術開發등은 軍 自體도 찬성하는 것이다. 독트린과 軍縮會談에 대해서 이 問題는 고르바초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고르바초프는 이를 強化할 뿐인 것이다.<sup>86)</sup>

大衆 수준에서의 問題는 더욱 複雜하고 資料의 一貫性이 결여되어 있다. 여기서 蘇聯市民들의 反應이라 할 수 있는 몇몇 事例를 들어 본 뒤 綜合的 評價를 내려 보기로 한다.

全黨大會 이후 蘇聯新聞들은 改革의 부진과 구습의 殘存에 대한 市民들의 불평 사례를 쓰기 시작하였다.

프라우다는 改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中央에서 내려와 도와달라는 市民들의 불평에 대해 上部의 指示만을 기다리는 중속적 태도라고 비웃는 記事를 실었다.<sup>87)</sup> 나아가 同新聞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관해 입만 놀릴 뿐, 실제로는 그것에 반대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고르바초프는 1986年 6月 全員會議에서 改革推進의 低調를 批判하면서 다음과 같은 적나라한 예를 들고 있다.<sup>88)</sup>

한 研究所에서 國際展示會에서 受賞한 새로운 機械를 開發하였다. 그러나 同 研究所에 關여하는 生産工場은 이의 生産을 拒否했다. 1年前 研究所

---

註 86) 고르바초프의 軍事독트린에 관해서, D.T. Yazov, “Voyennaya doktrina Varshavskogo Dogovora-doktrina Zashchity mrima : Sotsializma”, Pravda, 1987. 7. 27.

87) Pravda, 1986. 4. 12.

88) RL232/86. June 18, 1986.

Elizabeth Teague, “Gorbachev Attacks Opponents of Reform”

所長이 임시로 그 工場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道具 生産을 指示하였다. 이에 대해 工場 幹部들은 當局에 各種의 불평과 會談으로 진정하였다. 즉 새 工場長이 그의 權限을 濫用하고 會社의 會計를 操作한다는 것이었다. 省이나 地方黨에서는 이를 시정치 않고 同 工場長을 解雇시켰다. 檢事가 調査後 그의 무리를 判명하자, 地方黨은 黨에서 그를 축출하는 措置를 취했다.

고르바초프는 1986年 9月 Krasnodar 市를 訪問하여 행한 演說에서 改革에 反對하는 사람들은 옛날 方式과 效用이 없는 方法을 고집하므로써 그들의 權益을 固守하여 왔다. 이러한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官理인, 黨 官僚, 인테리등 각종 계층에서 發見된다.”<sup>89)</sup>고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룹들이 改革을 통해 權益을 잃어버리는가? 이에 는 中央의 機構改革으로 權限과 機構가 축소되는 官僚(Gosplan, 省), 加重된 책임감을 두려워하는 命令接受의인 企業의 支配人, 工場의 勞動者(賃金の 세분화는 놓고 먹는 過去의 習慣을 지속치 못하게 함), 알코홀리즘 防止 등 社會紀綱 樹立 運動에 영향을 받는 많은 市民, 社會問題를 파헤치는 글라스노스트에 대한 반발(주로 나쁜 얘기만 쓰기 때문), 이에 영향을 받는 地方의 黨官僚들(그들의 非行이 실리기 때문), 既存體制를 수호는 이데올로기적 純粹分子들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改革을 통해 權限이 增大되는 그룹(企業管理人中 대부분) 에는 意慾的으로 일하고자 하는 勞動者(일하면 할 수록 더 벌기 때문), 새로운 技術開發과 運動을 원하는 技術者, 엔지니어 및 인테리 등이 이에 속

---

註 89) RL472/86, December 17, 1986.

한다.

이와같이 改革 反對勢力과 贊成그룹을 보수나 진보라는 두 範疇로 나누기는 어렵다. 개인의 性向, 教育수준, 性別, 年齡등 다양한 要因에 따라 태도가 決定될 뿐 아니라 分野에 따라 다른 反應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國際的 環境도 고르바초프 執權以後 積極적 外交姿勢로 對美關係의 改善, 中·蘇關係의 變化, INF 協定締結등 國內改革에 相應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동시에 체르노빌事件, Rust 君 事件등은 시기적으로 고르바초프로 하여금 큰 事件들을 政治的 利得으로 轉換하게 하였다. 끝으로 完全한 統計는 없으나 일부의 統計는 1986 年의 農業生産은 增加를 보였고 工業分野에서는 增加率이 前年 對比 上昇하였다고 한다. 이는 蘇聯의 어느 指導者이든 改革을 持續하기 위해 短期的 成功을 거두지 않고는 어려운 事情下에서 肯定的인 면으로 보여진다. 다만,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長期的 目標을 犧牲해야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이것의 調和가 問題라 하겠다.

## V. 맺 는 말

페레스트로이카는 볼셰비키의 社會主義的 反省이다. 社會主義의 理想인 平等과 參與를 소련적 여건하에서 처음으로 社會主義의 原則을 現實化해야 했던 볼셰비키들은 70여년이 지난 現 시점에서 自體反省을 해야 할 만큼 많은 問題를 안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페레스트로이카는 볼셰비키의 歪曲된 社會主義 原則의 矯正作業인 것이다.

表現을 달리 하자면 페레스트로이카는 볼셰비키들과 社會主義가 同一하다는 蘇聯式 社會主義的 近代化作業의 限界를 말하는 것이다. 즉 平等과 參與, 이를 뒷받침해야 할 물질적 豐饒의 모든 次元에서 짊고 넘어 가야 할 問題들이 산적되었음을 認定하는 段階인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Zigzag 的 社會主義 建設過程의 認定인 것이다.

따라서 볼셰비키의 社會主義의 蘇聯에의 導入의 特性和 誤謬를 벗어나야 하는 課題를 안고 있다. 그러나 歷史는 現實이다. 70여년간의 蘇聯式 社會勢力을 형성하여 社會主義的 贊成은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蘇聯社會의 또 하나의 변증법적 과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러한 觀點에서 이전의 改革과 根本的으로 그 性格을 달리한다. 過去의 改革들이 볼셰비키적 틀속에서 社會主義의 原則을 再受容하려는 努力이었다면 페레스트로이카는 社會主義的 原則에서 볼셰비즘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는 단순한 政策的 次元이나 政權的 次元의 課題가 아니라 蘇聯社會 全體가 當면한 體系의 適應과 轉換에 관한 問題인 것이

다. 이는 곧 페레스트로이카의 對象領域이 單純한 經濟問題에 있지 않고 經濟問題를 惹起했던 根本問題들, 政治·社會心理的 次元을 모두 망라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요컨대 페레스트로이카는 第2의 革命인 것이다.

과연 이러한 第2革命이 成功할 것인가? 또한 第2革命의 過程은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인가? 이를 위해 취해진 措置는 어떻게 評價되어야 할 것인가? 페레스트로이카의 蘇聯的 重要性을 고르바초프가 認定한다는 것이 곧 바로 成功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볼셰비키革命이 그러했듯이 페레스트로이카도 전례없는 固有한 蘇聯的 經驗인 것이다. 이것이 페레스트로이카의 成功·失敗를 짐치기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斷面이다.

단지 수십 년의 蘇聯社會의 표류에서 오는 市民과 엘리트 모두의 變化에 대한 念願과 政治的 與件(엘리트 交替 등)은 肯定的 要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改革의 必要性 認定이 모든 사람이 같은 速度와 方法을 認知, 同意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아무런 先例나 方法을 알고 있지 못한 狀況下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政治 리더쉽 問題가 중요한 要因으로 등장한다. 리더쉽은 이러한 變化의 可能性을 설복과 호소로 現實化하는 데 있어 합리적 설명을 가질 수 없는 不可視的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내세운 措置들이 페레스트로이카의 目的과 相應하는 것들인지의 與否는 價値觀의 問題일 것이다. 각 措置들은 自體內에 矛盾點과 구태의연성, 措置間의 不調化 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페레스트로이카가 蘇聯社會가 直面한 社會主義 自體에 대한 再評價라는 巨視的 視覺에서 볼 때 措置의 內容보다 이를 어떻게 持續적으로 실천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課題가 될 것이다. 고르바초프나 그의 그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럼 페레스트로이카는 상당한 期間을 요하는 課題이기 때문이다. 또한 政策의 問題點이나 限界點보다 그들을 補完·是正해 나갈 수 있는 指導力の 堅固性이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의 蘇聯의 固有性을 強調하여 國民들의 忍耐와 支持를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政治的 課題를 안고 있다. 客觀的으로 보아 與件은 고르바초프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는 페레스트로이카의 長期性을 強調, 페레스트로이카가 過程 自體의 지그재그의 불가피성을 說得시킬 수 있는 支持 霧圍氣를 가지고 있다. 全般的인 改革에 대한 同調, 엘리트와 社會構成員의 改革에 대한 意見의 갈림 등은 고르바초프에게 社會心理的 刺戟을 통한 反對그룹의 分離와 贊成그룹의 合致를 容易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페레스트로이카가 쉽게 達成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指摘했듯이 歷史는 現實로서 과거 70여년의 불세비키의 遺産을 안고 있는 것이다. 다만, 페레스트로이카의 問題認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소련식 社會主義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蘇聯의 社會主義에서의 逸脫이나 資本主義化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蘇聯은 이미 불세비키的으로 社會主義를 建設했듯이 페레스트로이카도 현저히 蘇聯式 스타일과 內容으로 展開될 것이 틀림없다.





## Ⅱ. “고르바초프”以後의 中·蘇關係와 韓半島

崇實大學校  
教授文首彦



# 目 次

I. 序 論	73
II. 고르바초프의 新外交政策	77
1. 蘇聯外交의 새로운 方向	77
2. 고르바초프의 아시아政策과 中·蘇 關係	81
III. 고르바초프 執權以後의 中·蘇 關係	86
1. 中·蘇 關係의 發展：交流의 增進	87
1) 經濟交流	87
2) 社會, 文化的 交流	91
2. 中·蘇 關係의 懸案들：政治關係	94
1) 理念(Ideology)	94
2) 政治的 關係의 進展	98
3) 政治的 懸案들	101
IV. 中·蘇關係의 展望	109
V. 中蘇關係의 改善과 韓半島	113
VI. 結 論	116



## I . 序 論

1985年 3월에 고르바초프가 蘇聯 공산당의 政治局 및 書記局的 핵심 指導者들 中 現격하게 가장 어린나이에 체르넨코를 승계하는 서기장에 選出되었을 때 蘇聯의 새로운 시대가 예고되고 있었다. 보수적 안정을 強調한 18年 동안의 브레즈네프 執權과 그후 3年동안의 과도기에 정체되고 누적되어 온 問題들로 인하여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세대교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공개 혹은 開放(glasnost) 및 再構成(perestroika)으로 대변되는 고르바초프의 改革 政策은 國內 政治는 물론 外交政策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中·蘇關係의 正常化를 위한 새로운 外交 公세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나타나는 中·蘇 關係의 變化를 추적하면서 그러한 變化가 한반도에 끼치게 될 影響을 평가해 보려고 한다.

체르넨코가 서기장으로 집권한 期間에 蘇聯의 제1부수상 중의 한사람인 이반 아르히포프(Ivan Arkhipov)가 1984年 12월에 중국을 방문하여 經濟 및 技術협력에 관한 3個의 조약에 합의하는 등 經濟的, 文化的으로는 中·蘇關係의 상당한 發展이 나타나고 있었지만<sup>1)</sup> 政治的인 側面에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운 상호비난이 가열되고

---

註 1) 아르히포프의 중국 방문 결과 다음과 같은 事項을 양국 간에 合意하게 되었다. 1) 1950年代에 蘇聯의 원조하에 건설된 公廠의 現代化를 위한 經濟적, 技術적 원조를 소련이 提供한다는 것, 2) 科學 技術의 交流, 3) 中·蘇 經濟, 무역, 과학 및 技術委員會의 設立 등이다.

있었다. 蘇聯은 중국이 주장하는 “3대 장애요소”<sup>2)</sup>에 關心을 기울이기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中·蘇 關係改善을 妨害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일 뿐이라고 비난하였는가 하면 또한 蘇聯은 중국이 外交에 있어서 계급투쟁의 교리를 망각하며 고의적으로 소련이나 그 同盟國들보다 서방에 유리한 政策을 택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소련이 공산권에서 패권적 위치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sup>3)</sup>

1985년에 접어들고서도 상호 비난은 계속되었다. 이즈베스찌야의 한 기사에서는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蘇聯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蘇聯 텔레비전은 중공의 반(anti)政府 아프간 게릴라 (mujahiddin)에 대한 원조에 관하여 論評하면서 “명목상으로는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타국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부르짖으면서 전혀 다른 行動을 일삼는 중국 패권주의자의 더러운 政策의 일단”이라고 최근 몇년동안 유래없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기 직전 中·蘇 同盟條約 締結 35周年을 記念하면서 이즈베스찌야 지는 “중국이 社會主義 世界の 利益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사회주의 國家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에 중국은 소련이

---

註2) 중국은 中·蘇關係의 정상화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요소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蘇聯에 그 해결을 促求하고 있다. 즉,  
 1) 蘇聯의 支援을 받아 베트남 軍이 캄푸치아를 점령하고 있는것,  
 2) 蘇聯 軍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및 3) 中·蘇 국경과 몽고에 막대한 蘇聯의 軍事力이 配置되어 있는 點이다.

3) Bohdan Nahaylo, “Arkhipov’s Visit to Peking and the Slightly Sweet but Mainly Sour State of Sino-Soviet Relations”, Radio Liberty Reserach, 475/84 (December 17, 1984) 參照.

他國의 명예에 먹칠함으로써 더러운 손을 씻으려든다고 응수하였다.<sup>4)</sup>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집권과 동시에 中·蘇關係의 분위기는 현저히 改善되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就任 演說을 통하여 “중국과 진지한 關係 改善을 모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고<sup>5)</sup> 중국측에서도 중공 당 총서기 胡耀邦이 고르바초프에게 이례적인 축하 인사를 보내면서 “동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체르넨코의 장례식에 참석한 중국의 李鵬 부수상을 만난 자리에서도 고르바초프는 진지한 關係改善에 必要性을 다시 역설하였고 李鵬 부수상은 그동안의 중국의 관례를 깨고 蘇聯을 “社會主義 國家”라고 불렀다. 당과 당간의 關係는 考慮할 段階가 아니라는 중국의 입장을 상기할 때 이러한 제스처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sup>6)</sup>

中·蘇關係 改善의 시발은 고르바초프 개인적인 업적이라기 보다 몇가지 要因의 複合的인 結果로 把握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이전에 양국관계의 돌파구를 위한 교류의 增進이 推進되어 왔었다는 것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蘇聯 外相 그로미코와 중국 외교부장 吳學謙이 1984年9월에 유엔(U.N) 總會 參席을 기화로 20餘年만에 처음으로 뉴욕에서 會談하였는가 하면, 아르히포프의 중국방문과 그 結果로 나타난 제도화된 經濟交流의

---

註 4) Izvestiya, January 24, 1985, Moscow Television, February 20, 1985: Izvestiya, February 14, 1985 and Beijing Review, March 4, 1985: Bohdan Nahaylo, “A New Stage in Sino-Soviet Relations?” Radio Liberty Research, 103/85 (April 3, 1985), p.3 에서 재인용.

5) Pravda, March 12, 1985, in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Soviet Union (FBIS/SOV), March 12, 1985, p.R4.

6) Bohdan Nahaylo, “A New Stage in Sino-Soviet Relations?” op. cit., p.4.

확대가 이러한 事實을 應變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더욱더 중요한 事實은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때를 맞추어 蘇聯과 중국에서 공히 外交政策의 基本的인 재조명을 통하여 양국관계의 改善이 可能的인 自體的 기반이 造成되고 있었다. 중국은 1970年代 末 蘇聯의 팽창주의로 여겨지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하여 美國과의 戰略的 결속을 強調하였던 政策에서 부터 탈피하여 1982年 頃 부터는 美國과 蘇聯 사이에서 보다 더 均衡을 추구하는 외교노선이 強調되고 있었다. 1982년 9월 중공당 12 全大會에서의 정치보고를 통하여 당총서기 胡耀邦은 “자주독립적 대외정책”을 견지하여 갈것임을 강조하였고 이어서 열린 6期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채택된 중국의 새 憲法에도 “자주독립적 대외정책”이 중국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임이 선언되었다.

즉, 중국은 1950年代에는 반미 일변도의 외교 노선이었는데 1970년도에는 反蘇 위주의 외교노선을 채택하여 親蘇國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傾向까지 있었다. 이러한 편파적인 외교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現 중국의 利益을 效果的으로 대변하는데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아래 기존의 일원화 외교정책에서 탈피, 獨立的인 다원화 外交로 전환케된 것이다.<sup>7)</sup>

크레믈린의 指導者들은 이러한 중국의 독자노선을 부추키면서 對美 戰略的 立場을 強化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더욱이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중국과의 보다 적극적인 화해를 재촉하는 外交政策上 일련의 새로운 사고가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

註 7) 박두복, “최근 中·蘇關係의 發展과 展望”, 「한국과 국제정치」 제 3권, 2號(1987, 가을), p.7-11.



## II. 고르바초프의 新外交政策

### 1. 蘇聯外交의 새로운 方向

후르시초프가 주도한 1950年代의 改革이 스탈린의 극단적인 독재, 공포 정치에 대한 반동이었다면 현재 진행중인 고르바초프의 改革은 社會的 침체와 무력감,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反動이라고 볼 수가 있다. 고르바초프는 社會적 침체와 經濟成長의 減少로 부터 막스 레닌주의를 희생시키고 強化시키려는 目的아래 大衆의 지적, 문화적, 社會的 活性化를 기하면서 經濟에 새로운 活力을 불어넣고 社會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르바초프는 1986年 2月末에 開催된 第27次 蘇聯 공산당 全黨大會에서 행한 政治報告의 서두에서 “전환기적 상황은 비단 國內問題에만 局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對外 問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선언하면서 外交政策의 基本的인 재고를 促求하였다.

現代 世界發展의 變化는 매우 급속하고 광범위하여 이러한 變化의 모든 要因들에 대한 綜合的인 分析과 再評價가 要請된다. 핵 대결의 現 狀況은 다양한 社會體制, 國家 그리고 地域間的 새로운 接近方法과 새로운 形態의 關係樹立을 要請하고 있다.<sup>8)</sup>

그동안 고르바초프는 蘇聯外交에 새로운 活力과 能動感을 불어넣어 왔다. 美國과의 중거리 핵무기 협상(INF)에서 戰略防禦計劃(SDI)과의 연결을 포기하고 현장검증이라는 획기적인 핵무기 검증방식을 수락함으로써 INF

---

註 8) Pravda, February 25, 1986. “고르바초프의 정치보고(I)”, “「中·蘇研究」10권 3號(1986, 가을), p.222.

條約을 성사 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의 參加를 發表하여 12年만에 올림픽이 東·西 洋 진영의 公同된 축제가 되게하는 등 蘇聯外交의 變化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새로운 外交基調”의 일단이라고 蘇聯의 指導者들은 強調하고 있다. 이와같은 소위 “새로운 외교기조”에 기반하여 中·蘇關係의 積極的인 화해가 추구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완전한 소련 군대의 철수가 검토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새로운 외교기조”가 蘇聯外交에 있어서 어떠한 基本的인 方向을 시사하는지를 把握하기 위하여 고르바초프의 27차 黨大會 政治報告와 소련당서 기로서 國際關係를 管掌하고 있는 아나톨리 도브리닌의 論文(1986年 第9號 코뮤니스트에 게재)을 분석한 한 研究에 의하면, 이들 蘇聯 指導者들은 共通的으로 1) 蘇聯外交政策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2) 全 世界的 協力を 통해서만 解決할 수 있는 問題들이 있다는 것을 認定하면서 國家間의 相互依存을 強調하며, 3) 國家安保의 維持는 軍事力만으로 可能한것이 아니라 國際政治的 要因이 重要하다는 認識 등을 드러내고 있다. 5年前 26次 全黨大會에서의 브레즈네프의 演說과 比較하여 볼때, 브레즈네프의 演說에는 “相互依存”이나 “全 世界的 問題”등을 意味하는 表現을 쓰지 않았으며, 世界の 自己 만족적인 도취와 여유를 느낄 수 있었음에 비하여 고르바초프의 演說에는 긴박감이 함축되어 있다.<sup>9)</sup>

고르바초프는 1986年末 인도의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핵시대가 어느 한정된 國家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류생존과 維持의 問題를 제

---

註9) Charles Glickham, “New Directions for Soviet Foreign Policy”, Radio Liberty Research, Supplement 2/86, pp. 3-8.

기” 하였으며, “우리 모두는 한 배위에 있다”고 強調하였다. 그러므로 蘇聯은 “國際共同體에 주의를 돌린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國際關係를 樹立하는데 能動的인 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0)</sup> 대결이 아니라 對話와 相互利害가 새로운 蘇聯外交의 目標라는 고르바초프의 주장에는 다분히 선진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蘇聯外交가 完全히 새로운 價値觀 속에 재탄생되었다고 간주한다면 심각한 오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現實을 再評價하고 目標를 향하여 의욕적으로 努力을 가속화시킨다”는 고르바초프의 갈망과 의지가 “새로운 外交 기조”로 주장되고 있는 것들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고르바초프가 추구하는 “새로운 外交”가 얼마나 의미있는 政策 變化를 초래할 것인지 좀더 진지하게 지켜보아야 겠지만 이미 外交 政策의 遂行을 위한 기구 조직 및 人事에 있어서는 상당한 變化가 있었다. 軍축問題를 綜合적으로 管掌하는 部署가 外務省 內에 새로이 생긴 것은 軍축問題에 대한 積極的인 推進意思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措置로 解釋될 수 있다.<sup>11)</sup> 또한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以後 1년반도 경과하기 전에 이미 美國, 英國, 西獨, 日本, 중국 등을 包含하여 蘇聯 全體 수교국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0餘個國의 大使를 경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28年동안이나 蘇聯 外相으로 군림하던 그로미코를 밀어내고 세바르드나체를 등용하였는가

---

註 10) “Interview M. C. Gorbachev, “Pravda, November 24, 1986, p.1.

11) 軍축문제를 管掌하는 部署와 함께 인도적 問題를 管掌하는 部署, 情報 擔當部署 및 南太平洋의 여러 도서(島嶼) 國家를 管掌하는 部署가 外務省 內에 새로이 생겼다. See Alexander Rahr, “Winds of Change Hit Foreign Ministry,” Radio Liberty Research, 274/86 (July 16, 1986), p.2.

하면 두명의 수석 부의상 모두와 9명의 부의상 중 大部分을 경질하였다.

이러한 인사조치의 특징적 側面은 外務省 內에 強力한 권력 기반이 없는 인사들의 등용이라는 점이다.<sup>12)</sup>

이 점은 특별히 그로미코와 세바르드나제의 교체에서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것은 고르바초프로 代表되는 黨權의 外務省 장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外交政策에 對한 고르바초프의 입김이 強力하게 作用할 수 있는 基盤이 造成된 셈이다.

고르바초프는 1986年 5月 蘇聯 外務省에서 모든 海外 駐在 大使들과 外務省 고위 관료 및 黨의 外交 關聯 고위 당직자들을 모아놓고 행한 비공개 연설을 통하여 蘇聯 外交 政策의 優先 순위를 재평가하면서 蘇聯 經濟改革의 과업이 外交와 直接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演說을 통하여 그는 國際問題가 보다 現實的으로 處理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外交에 있어서 協商은 결정적인 重要性을 갖는다고 특별히 협상의 重要性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편견과 자기 기만적 만족감과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려야 하며 우리가 다른 社會主義 國家를 가르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겸손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演說 속에서 고르바초프는 특별히 아시아-太平洋 地域 國家들과의 關係增進이 蘇聯 外交 政策 目標의 重要한 方向임을 역설하고 國際關係속에 차지하는 中·蘇 關係의 重要性이 검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中·蘇 關係의 增進이 當면한 과업의 하나라고 강조하였다.<sup>13)</sup>

---

註 12) Ibid., pp.2-10.

13) 產經新聞, 1987年 8月 5日, p.5, FBIS/SOV, August 18, 1987, Annex, pp. 1-2에서 재인용.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中·蘇 關係의 改善에 對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强 調하여 왔다. 27 次 全黨 大會의 政治報告에서도 고르바초프는 “中·蘇 協 力 可能性은 엄청나게 크다” 고 지적하였는데, 그가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특정 國家는 美國, 中國, 아프가니스탄 뿐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고르바 초프가 中·蘇 關係의 改善에 부여하는 重要性을 감지할 수 있다.

## 2. 고르바초프의 아시아政策과 中·蘇關係

고르바초프가 中國의 重要性을 재강조하면서 中·蘇關係의 改善을 強力 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시아-太平洋 地域에 對한 重要性의 재인식에서 부 터 출발한다고 보여진다. 美國에서 太平洋 時代의 도래가 强調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美國과 蘇聯의 양대 초강대국 사이의 經濟的, 政治的 및 戰略的 關心의 초점이 유럽에서 부터 극동 地域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 실을 蘇聯사람들도 認識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일본의 막강한 經濟力 과 政治的 影響力의 持續的인 增大, 中國의 現代化, 그리고 韓國을 비롯한 이 地域 新進工業國들의 눈부신 발전이 첨가되어 드러내는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重要性을 고르바초프는 너무나 잘 認識하였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27 次 全黨大會에서도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重要性이 增大되고 있다” 고 强調하였다.<sup>14)</sup>

특별히 蘇聯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시아-太平洋 地域은 시베리의 開發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시베리아의 本格的인 開發을 위하여서는 이 地域의

---

註 14) Pravda, February 26, 1986, “고르바초프의 政治報告(II)” 「中·蘇 研究」 10 권, 4 號(1986/7, 겨울), p.256.

安全 및 協力과 交流가 必須的이기 때문이다. 시베리아는 蘇聯·사람들에게 未來의 繁榮을 위한 꿈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 대부분이 불모지로 버려져 있는 시베리아는 목재, 원유, 천연가스, 철광, 금, 은, 其他 비철금속의 寶庫로 確認되어 있다. 蘇聯은 시베리아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200億 달러 이상을 投資하여 기존의 시베리아 철도와 나란히 바이칼-아무르 본선을 84年 完成하였을 뿐 아니라 블라디보스톡과 함께 나호드카, 보스또치니, 소비에트스카야가반 등의 항구들의 開發 및 擴張 工事に 박차를 가하고 있다.<sup>15)</sup>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톡市에 레닌 훈장을 수여하는 기회에 蘇聯 극동 地域의 開發을 強調하면서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協力を 주창하는 重要한 演說을 하였다. 고르바초프는 漁業의 前進 기지 및 輸出 기지로서 極동 地域의 重要性을 強調한 후 사할린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의 必要性, 基幹産業 設備의 擴充 및 運送體制 改善의 必要性을 指摘하고 社會福祉 政策의 適切한 實施를 強調하였으며, 이러한 目標를 위하여 주변국들과 協力の 擴大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戰爭과 平和의 問題나 이 地域 各國의 國防과 安保에 대한 새로운 추구가 絶실히 필요하다”고 고르바초프는 역설하고 있다. 또한 “蘇聯은 아시아-太平洋의 모든 國家들의 體制 및 理念에 關係없이 새롭고 公정한 關係를

---

註 15) 특별히 보스또치니 항구는 바이칼-아무르 본선의 중점으로서 이미 蘇聯의 가장 큰 항구가 되었고 日本에 對한 蘇聯 무역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Yu-Nam Kim, "Soviet Strategy under Gorbachev: Implications for Korea," Northeast Asia in the 1990s: A Political-Strategic Outlook and Policy Options (Seoul: the Ilhae Institute, 1986), pp. 46-47.

맺고자 한다”고 선언하면서 일본 및 美國과의 協力 增進과 함께 중국과의 關係 改善을 주창하였다.<sup>16)</sup>

고르바초프가 집권한지 1년반도 채 되기전에 블라디보스톡까지 직접 와서 긴 政策演說 하였다는 것은 그가 이 地域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프라우다는 블라디보스톡 선언 1주년을 記念하는 論評記事에서 블라디보스톡 演說은 “安全保障을 위한 범세계적 體制를 構成하려는 蘇聯의 努力속에 아시아-太平洋 地域을 넣으려는 蘇聯의 진지한 表現”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인구나 광대한 地域을 차지하는 이 地域의 參與없이는 그러한 體制의 構成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表現이라는 것이다.<sup>17)</sup>

바꾸어 말하면 이 演說은 아시아-太平洋 地域에 蘇聯의 影響力을 增大시켜 나아가겠다는 蘇聯 指導者의 積極的인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특히 이 演說속에서 어떤 차원에서건 중국과 關係 改善을 위한 協議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재천명하면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3大 장애요인의 해결을 위한 具體的인 方向에 對하여 언급하여 中·蘇 關

---

註 16) Pravda, July 29, 1986, pp. 1-3, in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Vol. 38, No. 3 (August 27, 1986), pp. 1-8.

17) “Vladivostok : god spuctya,” Pravda, July 29, 1987, p. 4. 이 기사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톡 演說은 蘇聯의 經濟改革 및 蘇聯의 극동지방의 開發問題를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은 제의가 아시아-太平洋 國家들을 향하여 제시되었다고 要約되고 있다. 즉, 1) 地域紛爭의 平和的 解決 2) 이 地域에서의 핵 확산금지, 3) 이 地域에서의 海軍活動, 특히 핵을 保有한 海軍 함정의 活動을 제약하기 위한 會談의 開催, 4) 인도양을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會談의 재개, 5) 아시아 國家들의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한 촉구 및 6) 이 地域 國家들의 신뢰구축을 위한 共同의 努力등이다.

係의 政治的인 담보 狀態를 타개하여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이 演說에서 몽고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대의 상당 부분을 철수시키는 問題에 對하여 蘇聯과 몽고가 共同으로 檢討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는 연말까지 6個연대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월남군의 캄푸치아 주둔에 관하여서는 蘇聯이 이 問題에 適切한 影響力을 行使하기가 곤란하며 이 問題는 월남과 중국의 關係改善에 달려 있음을 強調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아프가니스탄과 몽고에 대한 이러한 政策을 通하여 中·蘇間의 相互友愛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한 蘇聯 政府의 努力을 부각시키려 들었다. 좌우간 이렇게 3대장애 要因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것은 劃期的인 사건인 셈이다.

그는 또한 이 演說에서 국경지역과 蘇聯의 극동지방을 開發하기 위한 相互協調의 可能性을 強調하면서 아무르강의 국경선 紛爭에 對하여 蘇聯의 양보를 시사하였고 아무르강 연안의 수자원 관리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재개를 提案하였는가 하면 중국의 신강 자치구에서 蘇聯의 카작지방까지 이어지는 철도 建設의 재개도 또한 提案하였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중국의 우주비행사들을 訓練시키는 것을 포함한 우주개발의 分野에서도 중국과의 協力을 提案하였다. 이 演說을 通하여 중국에게 대단한 양보를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蘇聯이 중국과의 關係改善을 심각하게 推進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은 事實이었다.

고르바초프가 아시아-太平洋 國家들의 協力을 強調하는 演說속에서 중국과의 關係改善을 強力히 주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중국과의 關係改善은 이 地域 國家들과의 效果的인 協力 增大에 必須的이라고 認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중국과의 關係改善 없이 추구된 이 地域 國家들에



대한 影響力 增大는 중국의 적대감을 고조시킬 것이며 중국의 적대감 속에 시베리아의 開發은 安保上的 不安을 同伴할 것이다. 시베리아의 開發없이 地域 國家들과의 協力 增大는 무의미하며 불가능 할것이다. 또 한편 중국과의 關係改善 없이는 이 地域 國家들과의 效果的인 協力 增進 그 自體가 불가능할 것이다. 1969年 부터 브레즈네프가 아시아 國家들과의 協力 增進을 표방하면서 “아시아 집단안보 체제”의 형성을 주창하였을 때 아시아의 공산국가들 조차 冷淡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中·蘇 紛爭 속에 휘말려 들어가 중국의 적대감을 불러 일으키기를 두려워 하였던 탓이라고 볼수 있었다. 고르바초프가 이러한 역사와 현실을 고려할 때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國家들과의 協力 增大에는 중국과의 關係改善이 必須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블라디보스톡 演說 직후 중국은 “3大 장애요인”중 무엇보다도 베트남의 캄푸치아 支配問題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立場을 견지하여 왔지만 고르바초프의 演說에서는 특별히 이 問題의 解決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이 演說에 對하여 중국 指導者들이 별다른 意味를 부여하지 않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公式 聲明에서는 이 演說이 肯定的인 要素를 包含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研究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立場을 보였다.<sup>18)</sup>

---

註 18) Reuters, August 5, 1986.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演說 直後에 蘇聯 제일 부수상 이반 아르히포프가 중국에 파견되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 Ⅲ. 고르바초프執權 以後의 中·蘇關係

中·蘇 關係에서의 돌파구는 1986 年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蘇聯의 새 指導者에 의하여 정책분석이 完了되었고 中國側에 기본적인 關係 變化가 시도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어 中國指導者들을 확신시키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演說을 통하여 關係變化가 모색되어졌고 中國은 現代化 計劃의 지속적인 推進을 위하여 安定된 國際關係가 필요하다는 側面에서 中·蘇화해의 돌파구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中國은 最近 數年間 經濟現代化 計劃의 目標을 상당수준 縮小 조정해 왔는데 이것은 中國의 軍 現代化를 더욱 지연시키게 될 것이고 군사적으로 蘇聯을 자극시키기 보다 中·蘇關係의 改善을 모색케한다고 볼 수 있다. 基本的으로 현재 中國과 蘇聯 모두 경제개혁이라는 國內 問題에 關心을 집중시켜야 함으로써 安定된 中·蘇關係를 추구할 可能性이 커졌다.

그러나 現在 中國과 蘇聯 사이에 무엇이 關係改善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中國은 政治的인 이슈를 強調하면서 부차적인 協力에 대하여 重要性을 덜 부여하는 反面에 蘇聯은 中國이 提示하는 障礙要素에 대한 관심을 회피하는 대신에 貿易의 증가나 文化 및 科學 分野의 協調, 高位 指導者들의 보다 잦은 接觸 따위를 강조하면서 中國 指導者들과는 달리 中·蘇 關係가 상당히 發展하였다는 견해를 갖는다.

## 1. 中·蘇關係의 發展 : 交流의 增進

### 1) 經濟交流

1985年 7월에 중국 부수상 姚依林이 蘇聯을 訪問하고 1986년부터 5個年間の 貿易協定을 체결하였다. 지금까지의 貿易協定이 연례적인 것이었던데 비하여 이렇게 長期的인 협정을 締結하였다는 것은 획기적인 發展이었다. 이 協定에 의하면 兩國 貿易을 1990년에는 30億 루블 (約 35億 달러) 정도의 規模로 끌어올려 1986~1990年の 5개년간 양국 貿易去來의 總 規模가 120億 루블 (約 140億 달러) 정도가 되도록 한다는 것에 합의 하였다. 또한 中國의 工業化를 위한 經濟 및 技術協力 協定에 서명하고 360萬kw 能力의 火력 발전소와 연산 2,000萬屯 規模의 炭鑛 開發을 包含한 7개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안산 製鐵所 등 17個所의 新 工場을 建設하는데 蘇聯이 援助하기로 하였다.<sup>19)</sup>

1980年代의 초에는 兩國 貿易去來가 고작 1億 5千萬 달러 정도였지만 1985년에는 19億 달러 (16億 루블)를 記錄하였고 1986년에는 25億 달러 (20億 루블)에 다달았다. 蘇聯과의 貿易去來가 中國의 總 무역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1985년에 3.2%, 1986년에는 3.5% 이었고, 中國에 대한 貿易은 蘇聯 總 貿易의 1.1% 및 1.4%를 차지하였다. 蘇聯에 대한 中國의 輸出品은 農産物, 수공업제품, 織物類 및 鑛物 등이며 기계류, 鐵鋼, 전기발전설비, 肥料, 交通수단, 기타 석유화학 제품, 비철금속 등의 重工業製品 뿐만아니라 最近 急增하는 中國의 建築 需要에 맞추어 시멘트, 유리, 木材 등의 建築資材와 냉장고, 카메라, 電熱器 등의 家電製品도 많이 輸出

---

註 19)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in FBIS/SOV, August 12, 1987. pp. B1-B2.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0)</sup>

이렇게 膨脹하는 양국의 貿易과 技術 交流를 효과적으로 調整하기 위하여 中·蘇 經濟, 貿易, 科學 및 技術協力 委員會 (Sino-Soviet Commission on Economic, Trad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를 設置하고, 1986年 3월에 蘇聯의 아르히포프 副首相은 이 委員會議 제 1차 會議에 參席차 다시 中國을 訪問하였다. 이 방문은 작년 7월에 모스크바에서 締結한 經濟協力 條約의 推進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분히 實務的인 것이었다. 이 委員會議 會議에서는 相互 貿易을 增大시키는 것과 技術 人力의 交流에 합의하였다.<sup>21)</sup>

1986년 9월에는 蘇聯 國家 計劃委員會 (GOSPLAN) 委員長이며 蘇聯 第 1 副首相으로서 政治局 후보위원인 딸리진이 中國을 방문하고 주로 經濟 協力에 관하여 中國의 姚依林 副首相과 협의하여 양국의 經濟計劃에 관한 協力에 합의하였으며 1986~1990 期間동안 中國의 農산물과 蘇聯의 工業製品에 대한 交換과 이에 관련된 輸送 問題에 합의하였다.<sup>22)</sup>

中·蘇 經濟, 貿易, 科學 및 技術協力 委員會의 2번째 會議가 1987年 5月 딸리진과 姚依林的 주재하에 열려 에너지 分野의 協力과 國家計劃 委員會의 협력을 위한 2개의 공동 實行委員會를 구성하였고 유학생 및 각

---

註 20)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in FBIS/SOV, August 12, 1987. pp.B2-B3.

現在 蘇聯은 日本, 홍콩, 美國, 西獨의 뒤를 이어 中國의 5번째 貿易파트너이다. 1986년에 20億 루블의 去來를 달성하므로 中·蘇 貿易 去來上 最高의 수치를 記錄하였지만, 1950년대말 蘇聯은 貿易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側面에서는 아직 對照的이다.

21) Bohdan Nahaylo, "Sino-Soviet Relations Still Bittersweet," op.cit., p.5.

22) "Prebyvanie v KNP," Pravda, September 11, 1986. p.4

蘇聯 副首相으로서 中·蘇 經濟協力の 窓口役割을 遂行하여온 아르히포프는 79歲의 高령으로 건강상의 問題 때문에 은퇴하고 니꼬라이 딸리진이 그 役割을 계승하였다.

중 전람회의 協力を 위한 2개의 共同 實行委員會를 구성하였고 유학생 및 각종 전람회의 相互 交換을 擴大시키기로 합의하였다.<sup>23)</sup> 1953年 以後 처음으로 1986年 여름에 大規模의 中國 貿易展覽會가 蘇聯에서 開催되어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의 부인 라이사 고르바초프 등 많은 사람들이 구경한 바 있었다.

1987年 末 中國은 새로이 建設할 豫定인 두개의 大規模 화력 발전소에 발전기를 供給하는 問題를 蘇聯과 協議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蘇聯은 現在 中國의 發電所 7개를 건축 혹은 개축중에 있으며<sup>24)</sup> 蘇聯은 이미 總發電量 210萬kw 能力의 화력 발전소용 발전기 10대를 中國에 供給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또한 蘇聯은 中國의 한 알미니움 工場과 가스 工場을 現代化하는 作業에 協力하고 있다. 蘇聯은 앞으로 數年동안 24개의 산업체에 대한 건설 혹은 現代化 作業을 支援할 計劃으로 알려져있다.<sup>25)</sup> 한편 1987年 9月 蘇聯은 中國이 蘇聯製 TU-154 旅客機 20대를 구입하였다고 發表하였으며<sup>26)</sup> 中·蘇 漁業 專門家들이 1987年 末 타쉬켄트에서 會談을 갖고 漁業技術 및 物資, 研究 情報 등의 交換을 골자로하는 漁業 및 양어 분야의 長期 協力案에 署名하였다.<sup>27)</sup>

中·蘇 兩國의 關係를 增進시키려는 目的 아래 1983年부터 國境貿易이

---

註 23) 中·蘇 協力委員會의 합의 事項들의 實踐을 위하여서는 中·蘇 兩國 實務者들의 廣範圍한 接觸이 要求되고 있다. 예를들면 1986年 5월에 蘇聯 海運會社의 代表가 上海를 訪問하고 上海에 支社를 設置하였고 中國은 오데사에 이러한 支社를 設置하였다.

24) FBIS/SOV, November 23, 1987, p. 23.

25) FBIS/SOV, November 25, 1987, p. 24.

26) FBIS/SOV, September, 10, 1987, p. 13.

27) FBIS/SOV, December 17, 1987, p. 28.

재개되었다. 첫 段階에서는 中國의 黑龍江省 地區 및 내몽고 등지와 이들과 접경 蘇聯地域에서 求償貿易이 이루어졌다. 그후 점차로 中國의 遼寧省과 吉林省 및 신장 자치구 등으로 擴大되었다. 現在 大部分의 地域에서는 中·蘇紛爭 以前의 교역량을 이미 상회하면서 盛況을 보이고 있다. 아무르, 우수리 및 송화강에는 蘇聯과 中國側을 往來하는 거루배가 貨物을 運搬하고 있는가하면 기선회사들이 兩側을 來往하고 있다.<sup>28)</sup> 1983년에는 兩國 國境貿易 總 去來額이 6百萬 루블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는 5千萬루블이 초과된 것으로 잠정 集計되고 있다.<sup>29)</sup> 1986年 신장지역과 蘇聯의 中東 아시아 地域의 國境에서 貿易이 시작되어 한해 동안의 總去來量이 7百萬루블에 불과하였으나 1987年의 總去來額은 2千5百萬루블에 달하고 1988년에는 3千萬루블을 초과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또한 흑룡강성 地域과 蘇聯의 極東 地域에서도 國境貿易을 통하여 去來되고 있는 物量이 1987年 10月 現在 이미 1986年 全體에 비하여 95%나 增加하였다.<sup>30)</sup> 이렇게 急速하게 膨脹하고 있는 國境貿易은 中·蘇 協力이 制度化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 이러한 國境貿易의 膨脹은 이 地域社會의 開發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兩國關係의 增進을 바라는 地域勢力의 擴大를 초래하게 된다. 現在 國境地域의 中·蘇 經濟 協力は 貿易 去來 뿐만 아니라 合作 投資의 方向으로도 擴大하는 方案을 모색하고 있다.

蘇聯의 極東地域 交通의 요충지인 하바롭스크와 中國의 하르빈을 連結하는 航空路를 1988年 初부터 開設하기로 1987年末 합의되었다. 하바롭스크

註28) FBIS/SOV, August 20, 1987, pp. B1-B3.

29) FBIS/SOV, December 2, 1987, p. 30.

30) Izvestiya, October 31, 1987, p. 5, in FBIS/SOV, November 9, 1987, p. 13.

는 蘇聯內에서 모스크바 다음으로 비행기의 이착륙이 잦은 곳으로 이곳에서 蘇聯內의 70餘個 도시와 直接 連結되는 航空便이 開設되어 있다. 이 항공편 開設로 蘇聯의 極東地方과 隣接 中國 地域들과의 交流가 增進될 것으로 展望하였다.<sup>31)</sup> 또한 1987年 8月 中國의 鐵道部 傘下 鐵道 專門家들이 蘇聯을 訪問하여 蘇聯 鐵道省 關係者들과 協의를 가졌다. 그들은 1987年 5월에 조인된 中·蘇 科學技術 協力 條約과 中·蘇 經濟, 貿易, 科學 및 技術委員會 協정의 틀 속에서 長期的인 鐵道 協力에 關하여 論議하였다. 鐵道 部門에서의 이러한 會議은 처음 있었던 것으로 컴퓨터를 使用하여 中國의 鐵道 業務를 自動化하는 것에 대한 蘇聯의 協力方案 등의 技術協力 뿐만아니라 兩國의 乘客, 貨物 및 外國觀光客들을 더 많이 輸送하기 위한 協力方案 등이 討論되었다. 이 회의의 무엇보다도 重要的 의의는 中·蘇가 鐵道 輸送에 대한 協력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이었다.<sup>32)</sup>

## 2) 社會, 文化的 交流

특기할만한 것은 아르히포프 副首相이 1986年 3월에 訪問하였을때 蘇聯의 核 發電所를 視察하며 연구할 中國 專門家 팀을 초청한 사실이다. 1960年 中國에 대한 蘇聯의 核武器 관련 援助의 거부가 中·蘇 紛爭의 주요 요인중의 하나였다는 側面에서 이 기술진의 초청은 重要的 의미를 지닌다.<sup>33)</sup> 1987年 여름에 北京大學의 理論 物理學 研究所 所長이며 中國의 저명 核物理學者인 후 닝교수가 모스크바 近郊의 둡나市에 位置하고 있

---

註 31) TASS, in FBIS/SOV, December 21, 1987, p.19.

32) FBIS, August 3, 1987, pp.B1-B2, and August 6, p.B2.

33) Bohdan Nahaylo, "Sino-Soviet Relations Still Bittersweet", op.cit., p.5.

는 核研究所를 3주간 訪問하였다. 이 研究所에는 蘇聯 영향권의 11개 국  
가에서 온 1,000여명의 物理學者들이 研究에 종사하고 있는데 中·蘇 紛  
쟁이 일어나기전 1950年代에는 다수의 中國 物理學者들도 이곳에서 研究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닝교수의 이곳 訪問은 中國 學者들과 이곳 研究所와의 오랫동안 단절  
되었던 關係를 재개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sup>34)</sup>

中·蘇 유학생들의 交流가 1983년부터 시작하여 現在 매년 約 200여명  
의 유학생들을 교환하고 있으며 中國의 技術教育을 위한 蘇聯의 협력과  
技術者의 재교육 문제의 協力도 推進되고 있다.<sup>35)</sup> 한편 1987年 9월에 북  
경 대학 總長을 단장으로 하는 中國 教育 代表團이 蘇聯을 訪問하여 모  
스크바 國立大學 및 모스크바의 로모노소프 國立大學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  
었다. 이들 大學들은 研究結果 및 資料들을 交換하고 教授와 學生을 交換  
하기로 합의하였다.<sup>36)</sup> 또한 1987年 9月末부터 10日間 中國의 科學 技術  
學會 代表들이 蘇聯을 訪問하고 技術者 交換 및 심포지움을 組織하는 등  
의 1988~1989年의 협력안에 署名을 하였는가 하면<sup>37)</sup> 의학계의 협력문제  
를 모스크바에서 討議하였고, 1985年 여름부터 20여년 동안 중단되었던  
蘇聯語 放送이 中國에서 再開되었다.

1987年 5월에 蘇聯의 출판 貿易 및 서적 去來를 위한 國家委員會와

---

註 34) FBIS/SOV, July 30, 1987, pp. B4-B5.

35)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in FBIS/SOV, August 17, 1987, pp.  
B1-B2.

36)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in FBIS/SOV, September 10, 1987, p. 12.  
and September 14, 1987, p. 20.

37)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FBIS/SOV, October 1, 1987, pp. 21-22.



中國의 출판 情報部 사이에 業務의 相互 協調와 交換이 합의 되었는데 이것은 兩國의 出版業界 사이의 협력을 위하여 맺어진 첫번째 합의였다. 지난 1984년부터 蘇聯 책이 베이징에서, 中國 책이 모스크바에서 팔리기 시작하였다. 中國은 1983년부터 모스크바의 國際 서적 전람회에 정기적으로 參加하여왔고, 蘇聯은 1986년 북경에서 처음 開催된 國際 전람회에 參加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2년부터 蘇聯 서적의 販賣 展示會를 開催하고 있다. 이번의 합의에 의하여 兩國間 출판계의 교환과 서적의 去來가 더욱 活潑하여질 展望이다.<sup>38)</sup>

兩國間的 영화교류도 진척되고 있다. 最近 북경에서 열린 第1回 중국영화 판매를 위한 國際展覽會에서 蘇聯은 7편의 中共映畫를 구입하였다. 中國의 건국기념 축하행사의 하나로 9月 30日부터 1週間을 中國映畫 주간으로 정하고 모스크바 市內의 자라디에 영화관에서 中共의 映畫를 상영하기도 하였다. 最近 數年동안에 中國은 25편의 蘇聯 映畫를 구입, 상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9)</sup>

中·蘇 國境을 이루고 있는 아무르강과 에취강의 수자원의 綜合的인 利用을 위한 中·蘇 共同委員會가 1986年 10月 兩國의 關係部處 次官을 委員長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이 委員會의 주관하에 中國과 蘇聯의 專門家들에 의한 아무르강의 공동탐사가 1987년 여름에 3週間동안 進行된 후 이들 강의 水力發電 利用, 交通 利用, 修理 水利 및 홍수에방, 環境保存 등의 協力을 위한 구체적인 計劃이 兩國 專門家들에 의하여 作成되기 시작

---

註 38) FBIS/SOV, July 16, 1987, pp. B3-B4.

39) Pravda, September 30, 1987, p. 4, in FBIS/SOV, October 1, 1987, p. 22.

하였다.<sup>40)</sup> 이 委員會는 1987年 11월에 모스크바에서 두번째의 會議를 갖고 1992년까지 國境地方의 양대 강에대한 綜合的인 開發計劃을 樹立하기로 작정함과 同時에 綜合計劃이 完成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르강유역에 두개의 水力發電所를 建立하기로 합의하였다.<sup>41)</sup>

1986年 9월에 中·蘇間의 새로운 領事協定이 署名되었다. 이 協定에 의하여 그동안 閉鎖되었던 상해와 레닌그라드의 영사관이 12월부터 재개되었을 뿐만아니라 中國의 광주, 신양 및 우람치, 그리고 蘇聯의 키에브, 알마 아타, 하바롭스크 등에서도 영사관을 開設할 計劃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1987年 7월에는 中共의 노동조합 代表들이 蘇聯 노동조합의 招請을 받고 蘇聯을 訪問함으로써 兩國 勞動組合의 公式的인 接觸이 또한 再開되었으며 9월에는 蘇聯 勞動組合 代表들이 中國을 訪問하였다.<sup>42)</sup>

## 2. 中·蘇關係의 懸案들 : 政治關係

### 1) 理念 ( Ideology )

中·蘇 紛爭의 初期에 있어서는 蘇聯의 發展戰略을 부정적으로 評價 하였던 毛澤東의 理念的 立場이 상당한 要因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毛의 후계자들이 毛의 發展戰略을 포기함으로써<sup>43)</sup> 현재 中·蘇間에는 理念的 차이

註 40) FBIS/SOV, July 16, 1987, p.B.3, and FBIS/SOV, August 11, 1987, p.B1.

41) TASS, in FBIS/SOV, November 30, 1987, p.33, and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in FBIS/SOV, December 2, 1987, p.29.

42) FBIS/SOV, July 16, 1987, p.B2, and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in FBIS/SOV, September 14, 1987, p.19.

43) 毛澤東은 1930年代 以後 蘇聯이 보여준 것과 같은 관료적 專門化에 기반한 發展 戰略을 맑스의 正統적 立場을 벗어난 수정주의라고 배격하면서 오히려 社會主義 사상의 순수성을 強調하는 특이한 發展 戰略을 主張하였다.

라는 것이 中·蘇 화해를 沮害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지않다. 특히 鄧小平의 “現代化 計劃”이 推進되면서 中國指導者들은 “蘇聯 修正主義”에 대한 毛澤東의 觀點을 再評價하고 中國의 經濟的인 方向이 집중 托의되기 시작한 1978년 12월의 “11期 3中全會” 이후 “蘇聯 修正主義”라는 용어의 使用이 중단되었다. 1982년에 열렸던 中國의 12全大會와 6期全人大會에서 각각 採擇된 中國黨章과 中國 新憲法에서도 蘇聯을 指稱하던 “社會帝國主義”와 “現代 修正主義” 등 용어가 削除되었는데<sup>44)</sup> 이것은 적어도 社會發展 戰略에 대한 理念紛爭의 증거를 의미한다.

오히려 現在 中·蘇 兩國의 내부에 進行중인 經濟改革의 측면에서 볼 때 中·蘇는 改革의 經驗을 교환하고 協力하여야할 必要性에 직면하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理念은 양국의 화해를 促求하는 立場에 있다. 이 점이 특히 高르바초프의 등장이후에 強調되고 있는 새로운 요소인 것이다.

高르바초프가 등장하여 蘇聯의 經濟 改革이 本格的으로 推進되기 前에는 그당시 推進되고 있던 中國의 經濟改革을 보는 蘇聯 專門家들의 견해는 理念的 측면에서 신중하지만 부정적인 것이 지배적이었다.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中國 특유의 상황을 인정하지만 中國의 經濟 改革政策은 社會主義 建設의 일반 中國 특유의 狀況을 認定하지만 中國의 經濟 改革政策은 社會主義 建設의 일반법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評價되곤 하였다.<sup>45)</sup> 그러나 現在 蘇聯의 言論들은 中國의 經濟改革에 대하여 상당한 關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取扱하고 있다.

註 44) 박두복, op.cit., pp.6~7 參照.

45) S.R.Ratnikov and D.A.Radikovsky, “Diskussiyav KNR oputi razvitiya strany, “Problemy Dal’nego Vostoka, No,4,1984,pp.115-127.

中國은 1人當 國民 所得이 蘇聯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낮은 농경 사회의 기초를 벗어 나지 않은 단계에 있으나, 절대적인 수치로 볼때 中共의 工業分野는 거대하며 中央統制 計劃經濟에 대한 일대 수술을 단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蘇聯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中國에서는 1983年 頃 부터 企業의 經濟的 責任을 강조하기 위하여 自由 계약 구매가 주창되고 있었으며, 1984年부터 中國의 經濟改革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企業에 대하여 生産 目標가 할당되는 대신 利潤이 강조되어졌고 企業의 資金運用이 더욱 自由化 되면서 한 企業의 다른 企業에 대한 投資까지 許容되었다. 價格 통제가 部分的으로 해제되면서 企業이 製品의 價格을 自律적으로 책정할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고르바초프가 1987年 6月の 蘇聯 共產黨 中央委 全體會議에서 主張한 것들이다. 蘇聯의 政府 대변자 이즈베스찌야는 中國에 擴散되고 있는 책임관리 制度를 産業 生産 管理에 대한 質的으로 새로운 次元을 대변하는 制度라고 紹介하면서 이러한 制度를 採擇하고있는 35,000여개의 企業 가운데 27,000여 企業에서는 企業實績이 向上되는 긍정적인 結果를 보였다고 報道하였다.<sup>46)</sup>

蘇聯의 世界 社會主義體制 經濟 研究所 所長 알렉 보고몰로프는 蘇聯 黨 理念誌 코무니스트에 게재한 “改革途上에 있는 社會主義 世界”라는 論文속에서 生産 割當을 基本으로하는 經濟計劃 대신에 中國 및 헝가리가 採擇하고 있는 예시적 지표만을 提示해 주는 經濟計劃 方式을 긍정적으로 評價하면서 이러한 計劃方式이 經濟開發의 質的 측면을 改善 시켜주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더우기 中國 등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政治改革과 世界市

---

註 46) Izvestiya, August 28, 1987, p.4, FBIS/SOV, September 10, 1987, p.13.

場에 대한 과감한 經濟開放 등을 높게 評價하였다.<sup>47)</sup> 그는 또한 中國을 방문한 후 모스크바에서 가진 讀賣新聞의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측면에서 中國과 蘇聯은 같은 問題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공통적인 解決 方案이 可能하다고 主張하면서 특별히 中國의 農業分野의 改革政策 같은 것은 蘇聯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sup>48)</sup>

이렇게 現在 中國과 蘇聯은 急速하게 發展하는 科學文明에서 점점 더 서구에 뒤떨어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이들 社會主義 양대 국가들은 각각 中央의 지령과 計劃 및 管理에 의하여 움직이는 經濟運用이 現在의 狀況에 적절하지 않다는 結論을 맺고 市場 經濟的 要素를 과감하게 導入하는 經濟改革을 積極적으로 推進中에 있다. 각각 별개로 進行되고 있지만 많은 점에서 점점 더 유사해 가고 있는 經濟改革을 통하여 西方에 대한 完全한 落後를 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공통된 政策目標下에 理念紛爭의, 요소는 大部分 사라졌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공통점이 兩國의 間隔을 좁히고 協力하는데 상당한 役割을 發揮하고 있다. <sup>49)</sup> 實際적으로 兩國은 現在 進行中인 經濟改革에 대한 情報를 緊密히 交換하고 副委員長들을 각각 代表로 하는 實行 共同委員會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經濟改革 問題에 대한 緊密한 協調를 繼續하고 있다. <sup>50)</sup> 또한 이러한 改革過程에서 發生하는

註 47) Kommunist, No.16, October 1987, pp.92 ~ 102.

48) 讀賣新聞, 1987年9月1日, p.4, FBIS/SOV, September 4, 1987, Annex p.1.

49) Thomas W. Robinson, "The New Era in Sino-Soviet Relations," Current History, Vol. 86, No. 521 (September, 1987), p.243.

50) 1987年9月 두주간동안에 걸쳐서 蘇聯과 中國의 國家 計劃委員會所屬 專門家들이 經濟改革에 수반되는 제반 經濟 問題들에 대한 협의가 있는 후 구성된 이 공동위원회의 첫 모임이 1988年初에 북경에서 열려 經濟改革의 情報 交換과 함께 兩國의 國家計劃委員會間의 協力 強化 方案을 모색할 計劃이다.

Izvestiya, September 19, 1987, FBIS/SOV, September 23, 1987, p.29 and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FBIS/SOV, November 23, 1987, p.23.

공통적인 理念問題에 대하여 兩國間에 協議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

## 2) 政治的 關係의 進展

最近 이즈베스찌야에 中國外交를 펴 긍정적으로 評價하는 論評 기사가 실려 주목을 끈다. 이 기사는 中國이 現在 아시아 太平洋 地域의 모든 國家와 相互 有利한 關係를 증진시켜나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主張하면서 中國이 이 地域의 平和와 安定 및 繁榮을 위한 核心勢力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評價하였다. 이 기사는, 中國을 西方의 同盟 體制 속으로 들이려는 美國의 努力은 中國의 完강한 반대속에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蘇聯에 對항하여 中國카드를 쓰겠다는 計劃도 수포로 돌아갔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中國은 지난 2年동안 70萬名의 軍人들을 減縮하는 등 軍備縮小와 緊張 緩和에 앞장서고 있다고 이 기사에서 主張되고 있다.<sup>51)</sup>

한편 中國은 蘇聯의 核武器 減縮努力 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評價하고 있다. 蘇聯이 美國과 締結한 INF 폐기 條約에 있어서 蘇聯이 아시아에 SS-20 미사일 100基를 남기는 대신 美·蘇의 모든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도록 努力하여 성과를 맺은 것에 중국 新聞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상해에서 發刊되는 한 中國 新聞의 報道에 의하면 이러한 蘇聯 政策의 變化는 蘇聯 外交戰略 思考의 再評價가 초래한 필연적인 結果이며, 蘇聯의 指導者들은 “國際狀況을 現實적으로 分析하여 蘇聯의 能力과 現今의 國際狀況이 갖는 특이성을 客觀적으로 評價하려 하고 있다.”고 “새로운 蘇聯

---

註 51) Izvestiya, September 10, 1987, p.5; FBIS/SOV, September 23, 1987, p.29 ~ 31.

外交”가 높이 評價되고 있다.<sup>52)</sup>

實際로 最近에 中·蘇 양국은 다양한 政治的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1985年 9월하순 뉴욕에서 兩國 外相들, 세바르드나제와 吳學謙이 1年前처럼 兩國 外相會談을 가졌다. 이렇게 兩國 外相會談은 연례화 되었다. 1986년 9월 뉴욕에서 만난 兩國 外相은 5년동안이나 중단되어온 國境會談을 再開하기로 합의하였다. 兩國 外務省의 實務者들로 구성된 外務省 代表들 사이에 42次 UN定期總會를 위한 협의가 1987年 8月初 中國에서 열렸다는 잘막한 報道로 이루어 보아<sup>53)</sup> 外交政策에 대한 中·蘇間의 共同補助를 위한 努力이 試圖되고 있는것 같다.

특별히 蘇聯과 中國이 다 함께 強調하고 있는 戰略核 減縮問題 및 美國의 戰略防禦計劃(SDI)에 대한 저지 등의 측면에서는 兩國의 同一한 立場이 強調되고 있다. 中國 共產黨의 國際連絡部 部長인 주리양은 1987年 11月 中國을 訪問한 日本 社會黨 委員長인 도이를 接見하는 자리에서 美國의 戰略防禦計劃을 비난하면서 中國은 대기권 밖을 무장하려는 어떤 시도도 反對한다고 말한바 있다.<sup>54)</sup>

1982年 가을에 재개된 中·蘇 정상화를 위한 副外相 會談은 6개월마다 북경과 모스크바에서 定期的으로 열리고 있다. 1987年 봄에 제 10차 中·蘇 정상화 會談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상화 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事實은 中·蘇關係가 그만큼 改善되었음을 뜻한다.<sup>55)</sup> 國境會談은 1986

---

註 52) Pravda, August 19, 1987, p.4: FBIS/SOV, August 25, 1987, p.B1 에서재인용.

53) FBIS/SOV, August 3, 1987, p.B1.

54)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FBIS/SOV, November 23, 1987, p.21.

55) 1986년 10월의 第9次 會談부터 蘇聯의 代表가 이리체프에서 이고르 로가체프로 交替되었다. 이리체프는 1979年 中·蘇會談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부터 蘇聯을 代表하여 왔으나 80歲의 高령으로 은퇴하였다.

年 여름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아무르강을 끼고 있는 양국의 國境이 中國側의 강둑을 따라서 책정될 것이 아니라 강 중심을 따라 策定되어야 한다는 中國의 主張을 받아들여겠다고 宣言함으로써 再開될 수 있는 基盤을 잡게되었다. 본래 國境會談은 1969年의 國境 무력충돌이 있은후 그 해 10月부터 간헐적으로 열려 왔었는데 1979年末의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으로 中國에 의하여 中斷되었다. 再開된 첫번째 國境會談은 1987年2月 모스크바에서 양국 부의상들 사이에 열려 東部 國境에 대한 問題부터 討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2차 회담은 8월에 북경에서 열렸다.

1985년 3월에 中國의 전인대회 대표들이 蘇聯을 訪問하였고 10월에는 蘇聯 최고인민회의 代의원들이 中國을 訪問하였다. 이렇게 재개된 兩國 의회 대표들의 교환 방문은 1987년에도 계속되어 7월에 蘇聯 연방 최고회의 법제위원회 대표들이 동 委員會의 委員長이며 당 서기인 라주모프스키의 인솔하에 中國을 訪問하였는가하면 8월에는 中國의 전인대회의 民族問題 委員會 代表들이 蘇聯을 訪問하였다. 兩 訪問團은 각기 訪問國의 수도 뿐만 아니라 中國의 上海, 한구, 대련 등지와 蘇聯의 레닌그라드나 라트비아, 벨로러시아, 조지아 등지의 廣範圍한 地域들을 각각 순회하며 양국의 교류증진을 圖謀하였다. 蘇聯代表團의 주요관심사는 中國의 經濟改革이었고, 中國 代表團의 주요 關心事는 蘇聯의 소수민족 政策이었다.<sup>56)</sup>

1986年 4月 새로운 中國 주재 蘇聯 대사로 지난 10년동안 유엔 (UN) 대사를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日本 大使를 역임하였던 蘇聯의 가장 노련한 外交官이라는 評을 받고 있는 알렉 프로야노프스키가 임명되었다. 그는

---

註 56)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FBIS/SOV, August 31, 1987, pp. 13~14.



蘇聯 共産黨 中央委員會의 候補委員으로서 그렇지 못하였던 前 大使 일리 야 쉬체르바코프와 比較하여 볼때 북경 주재 蘇聯 대사직이 그 만큼 격상된 것을 알 수가 있다.<sup>57)</sup>

### 3) 政治的 懸案들

中·蘇關係에서 모든 問題가 순조롭게 解決을 향하여 進行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中國은 “3대 障礙要因”의 해결이 中·蘇 關係改善의 선결문제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취임연설에서도 中·蘇關係 改善의 必要性을 強調하였지만 緊密한 우방과의 友好關係를 維持하고 증진하는 것이 蘇聯政府의 임무라고 지적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 或은 몽고의 利益을 희생시키면서 中國과의 關係改善을 모색하지는 않겠다고 宣言하였다. 고르바초프의 27차 전당대회 報告 演說 속에서도 中國과의 화해가 주창되기는 하였지만, 中國側에서 主張한 것처럼 “특별히 새로운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르바초프는 緊張緩和속에 얻어지는 相互利益에 대하여 強調하였을뿐 “제3의 국가”의 犠牲위에서 中·蘇화해를 추구하지는 않겠다는 蘇聯의 立場을 거듭 천명하였다.<sup>58)</sup> 中·蘇間의 상호비방은 言論 매체에서 大部分의 경우 자취를 감추었지만, 아직도 中國이 제기하는 3대 障礙要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繼續되고 있다.

最近 蘇聯의 인도지나 개입에 대한 中國의 反應은 한결 누그러진 것도 사실이다. 兩國關係의 정상화를 위한 6次 會談이 1985年 4월에 모스크바에

---

註 57) Bohdan Nahaylo, “Sino-Soviet Relations Still Bittersweet,” op. cit., p.5.

58) “고르바초프의 政治報告(II), ” 前掲書, p.258. 이러한 脈絡에서 처음 3대 障礙要因에 대한 진지한 考慮를 시사한것이 블라디보스톡 演說이다.

서 열리고 있을때 中國의 鄧小平은 蘇聯과 베트남 간의 關係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베트남이 캄푸치아에서 철수하면서 蘇聯이 베트남내에 기지를 갖는 것에는 反對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中國 指導者가 蘇聯이 캄란만에 軍事力을 維持시키는 것을 認定할 수 있다는 最初의 언급인 셈이다. 中國은 蘇聯이 베트남에 보유하고 있는 蘇聯기지를 모두 포기하여야 한 다거나 라오스에 주둔하고 있는 베트남군이 철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더이상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도지나 반도에 대한 中國과 蘇聯의 政策은 여전히 重要한 대립요인이 되고있다. 中國은 베트남을 “蘇聯 膨脹의 전초기지”라고 부르는가하면, 1985年 10月 初에 中·蘇關係 정상화를 위한 7次會談이 열리기 직전 中國側은 베트남의 캄푸치아 점령문제가 “3大 障碍要因”중 가장 중요한 障碍要因이라고 표현하면서 中·蘇 정상화 회담은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sup>59)</sup>

또한 아프가니스탄 問題에 대하여 中國은 아프가니스탄에서 蘇聯軍이 完全히 철수하여야 한다고 繼續 主張하고 있는 .反面에 蘇聯은 中國의 아프가니스탄 介入이 問題의 基本 要因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中國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蘇聯軍의 침입이 이 地域의 平和와 安定을 해칠뿐만 아니라 中國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sup>60)</sup>

1985年 9月初 그당시 蘇聯 共產黨 代辯人이었던 레오니드 자미야틴은 蘇聯은 中·蘇關係를 長期的으로 安定시킬 수 있는 어떤 基本的인 協定을 中·蘇間에 締結하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中國은 아직 中·蘇의

註 59) Bohdan Nahaylo, "Sino-Soviet Relations: Progress amid Stagnation", "Radio Liberty Research 335/85 (October 4, 1985), pp.2~6.

60) 人民日報, 1985年 12月 25日, FBIS/CHINA, December 26, 1985, p.A2.

政治的 소원 狀態는 持續되고 있다는 立場을 強調하고 있다. 1985年 12月에 中國을 訪問한 蘇聯 外務次官 카피차는 中·蘇關係가 急速히 進展하고 있다고 표현한 反面에 中國 外相 吳學謙은 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中·蘇關係가 어떤 側面에서는 진보를 보이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근본적인 關係改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1986年 1月 중순에 상호불가침 條約을 맺자는 다년간 持續된 蘇聯의 제의가 中國에 의하여 다시 거부되었다고 中國外交 소식통에 의하여 確認되었다.

또한 趙紫陽 中國 黨書記는 작년 가을 美國의 NBC 텔레비전과 갖은 인터뷰에서 中·蘇 兩國關係의 現狀況에 대하여 質問을 받고, 經濟, 文化, 科學, 技術 등의 側面에서는 兩國의 關係가 緊密해지고 交流가 增進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兩國의 政治的 關係는 아무런 向上이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양국의 政治的關係는 3대 障礙要因의 제거, 특별히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는 베트남군의 철수 문제에 政治的 關係의 發展이 左右 된다는 從來의 主張을 되풀이 하였다.<sup>61)</sup>

이러한 공식적 立場의 표명 속에서 현재 中·蘇關係를 보는 中·蘇 兩國의 시각에 미묘하지만 基本的인 차이가 지적될 수 있다. 즉 中國 側에서는 兩國關係의 정상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상화를 위하여 지금 협상이 진행중이며 “3大障礙要因”에 대한 處理가 이 협상의 核心이라는 立場을 견지한다. 반면에 蘇聯側에서는 障礙要因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協商은 政治的 협의과정일 뿐이라고 말하며 中·蘇關係가 實際로 꽤 改善된 것으로 強調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의 차이는 中·蘇 頂

---

註 61) Pravda, September 29, 1987, p.4, in FBIS/SOV, September 30, 1987, p.19.

上會談을 舉論하는 兩國의 態度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1986年4月の第8次中・蘇關係 정상화를 위한 會談이 모스크바에서 끝난 직후 中國側 代表들이 세바르드나제는 “中・蘇 정상회담이 兩國의 關係改善에 重要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한다”고 처음으로 정상회담의 開催 可能性에 대하여 공개적인 發言을 하였다. 사실 정상회담은 1985年12月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를 예방한 中國의 李鵬 副首相이 提案하였던 것으로서 “3大障礙要因”中에 어느 하나라도 解決한다는 전제가 붙은 것이다. 中・蘇關係를 위하여 第3國을 犧牲시키지 않겠다는 蘇聯의 立場 속에 이러한 中國의 提案이 蘇聯에 의하여 거부되어 왔었는데 세바르드나제는 이날 이러한 “第3國 原則”을 再確認하면서 정상회담을 아무런 전제없이 蘇聯이 마치 먼저 提案한 양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中國 外務部에서는 즉각적인 論評을 통하여 障礙要素가 그대로 存在하면서도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세바르드나제의 제의를 거부하였다. 이 中國 外交部의 論評에서는 兩國關係의 열쇠는 바로 障礙要因의 제거라고 強調하였다.<sup>62)</sup>

정상회담 開催 可能性에 대한 中・蘇 兩國의 입씨름은 最近에 다시 우리의 關心을 불러 일으켰다. 1987年11月末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를 訪問한 잠비아의 大統領 카운다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수일 전에 鄧小平이 日本 社會黨 委員長 도이에게 베트남의 캄푸치아 철수 問題가 解決되면 中・蘇 정상회담이 可能하다고 언급하였음을 指摘하면서 蘇聯은 북경이나 모

---

註 62) UPI, April 16, 1986, quoted in Bohdan Nahaylo, "Subtle Changes Hinted at Following Latest Round of Sino-Soviet Normalization Talks," Radio Liberty Research 160/86 (April 18, 1986), p. 2.

스크바 어디에서나 정상회담에 응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코르바초프는 問題解決을 위하여 會談이 必要한 것이라고 말하며 中國이 主張하는 전제 조건을 거부하였다.<sup>63)</sup> 1988 年에 접어든 후 코르바초프는 이례적으로 「瞭望」이라는 中國 시사 주간지와 인터뷰속에서 다시 中·蘇 정상회담을 提議하면서 “우리는 서로 만남으로서 相互 수락할 수 있는 解決策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라고 強調하였다.<sup>64)</sup>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갖자는 蘇聯의 제의를 中國은 거부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蘇聯 副外相 로가체프는 1988 年中에 정상회담이 開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어 또한 注目을 끌고 있다.<sup>65)</sup>

實際로 最近 베트남 問題는 다각적으로 그 解決이 모색되고 있다. 1987 年 3 月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은 泰國, 오스트랄리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푸치아를 巡訪한 後 베트남을 訪問하여 캄푸치아 問題 解決의 실마리를 풀려고 努力하였다. 巡訪國의 順序를 볼 때 이는 다분히 베트남을 說得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었던 것 같다. 세바르드나제는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蘇聯 大使官邸에서 식사하면서 個人的으로 보내었는데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蘇聯과 베트남 사이에 상당한 冷氣流가 흐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66)</sup> 사실 蘇聯은 베트남의 다낭과 캄란만의 기지를 使用하는 대신 막대한 댓가를 支拂하고 있다. 막대한 援助를 提供하여 파탄에 직면

---

註 63)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in FBIS/SOV, November 30, 1987, p.32.

64) 동아일보, 1988년 1월 11일, p.5.

65) 동아일보, 1988년 1월 13일, p. 5.

66) Patrick Moore, "Shevardnadze's Asian Visit," Radio Free Europe Background Report / 47 (March 26, 1987), p.2.

한 베트남의 經濟를 떠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의 同盟 때문에 東南아시아의 비공산국가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蘇聯 影響力の 浸透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sup>67)</sup>

最近 中國과 베트남의 關係가 改善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中國은 캄푸치아 抵抗勢力的 指導者 시아누크를 통하여 만일 베트남이 캄푸치아에서 철수한다면 中國은 상당한 經濟 援助를 베트남에게 提供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가 하면<sup>68)</sup> 1987年8月에는 中國과 베트남 사이의 戰爭 포로에 대한 交換이 있었다.<sup>69)</sup> 또한 1987年末 兩國은 國境의 緊張을 減少시키고 國境貿易을 再開하며 베트남軍이 1990年까지 캄푸치아에서 全面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sup>70)</sup>

또한편으로는 지난 12月 初 시아누크가 파리 近郊에서 캄푸치아 行삼린 政權의 수상인 훈 센과 만나 캄푸치아 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협의하였다. 그들은 곧 다시 만나기로 하였는데 이 會談은 蘇聯이 주선하고 中國이 協力한 것이라고 한다.<sup>71)</sup> 中國과 베트남은 이 會談을 지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캄푸치아 問題가 自體的 解決을 모색하고, 中國과 베트남의 關係改善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아프가니스탄의 蘇聯軍도 1988年

---

註 67)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蘇聯의 支援은 여전히다. 1985年6月末에 베트남 指導者 리 두안이 蘇聯을 訪問했을 때 1986~90年 사이의 베트남에 대한 蘇聯支援이 以前에 비하여 2배가 될 것이라는 約束을 받고 돌아 갔다.

68) New York Times, August 7, 1986.

69) Moscow International Service, in FBIS/SOV, August 11, 1987, p.B1.

70) 朝鮮日報, 1988年1月21日, p.5.

7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ember 17, 1987, pp.12~14.

5월부터 철수하여 12個月內에 철수를 完了할 것이라고 發表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2월에 열릴 예정인 파키스탄의 會談에서 合意가 이루어질 경우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지만, 1月初 세바르드나제의 돌연한 아프가니스탄 訪問과 또한 同時에 아마코스트 美國 國務次官의 파키스탄 訪問이 있었으며 작년 12월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美·蘇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에게 올해 5월로 豫定된 다음 美·蘇 정상회담 전에 아프가니스탄 問題를 解決하겠다고 約束하였다는 점<sup>72)</sup>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간의 일괄 타결안이 이미 작성되었다는 프라우다의 報道 등을 미루어 보아 아프가니스탄 問題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 만은 確實한 것 같다.<sup>73)</sup>

中國과 몽고와의 關係도 역시 改善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演說이 있은지 열흘 후에 中國副外相 리 슈칭은 갑자기 몽고의 울란 바토르를 訪問하여 兩國 사이의 영사 協정에 署名을 하였다. 리 부의상은 20年內에 몽고를 訪問한 最高位 中國人이 되었다.<sup>74)</sup> 이렇게 中國이 提示하고 있는 “3大 障礙要因”에 自體的인 變化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注目할만한 일이다.

사실 現在의 中·蘇關係에 있어서 “3大 障礙要因”은 보다 상징적인 機能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中國은 蘇聯과 接觸하는 接觸속에서도 그들의 獨立的 外交姿勢를 견지하려고 든다. 즉, 中·蘇화해를 中國의 주도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 가겠다는 의미를 준다. 또

---

註 72)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21, 1988, pp.14 ~ 15.

73) 朝鮮日報, 1988年1月21日, p.5에서 재인용

74) AP, August 6, 1986, quoted in Bohdan Nahaylo, “Sino-Soviet Relations : Will the Impasse be Broken?” op.cit., p.5.

한 美國 및 西方에 대하여 中·蘇화해의 한계성에 대하여 안심시키는 역할도 同時에 遂行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中國은 여전히 蘇聯과의 黨 關係의 回復을 거부하고 있다.

蘇聯共産黨의 27次 全黨대회에 사절을 派遣하지 않았고, 兩國間에 “3大 障碍要因”이 解決되지도 않아 中國이 蘇聯으로부터 安保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狀況에서 黨관계 回復을 考慮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黨 關係의 回復을 거부함으로써 中國은 다른 여러 側面의 國家接觸을 困難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蘇聯의 戰略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셈이다.



#### Ⅳ . 中 · 蘇 關係의 展望

中國이 “獨立自主 外交”를 강조한 이후 특별히 많은 國際問題에서 蘇聯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우주의 武裝化 反對, 즉 美國이 추진하고 있는 戰略防禦 計劃(SDI)에 대한 반대 뿐만 아니라 나미비아 및 앙골라에 대한 남아프리카 共和國의 개입이나 니카라과 反軍에 대한 美國의 원조를 반대하고,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개입을 反對하는 등의 問題에서 蘇聯과 中國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核武器를 먼저 使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에서나 南太平洋에서의 核武器 搬入 禁止問題 등에서도 일치하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中·蘇 두 나라가 가끔 軍縮問題에 대하여 協議를 하고 특히 1986年 10月 레이건 - 고르바초프의 레이카비크 頂上會談 직후의 蘇聯은 그 會談의 結果를 中國에 通報하는 친절을 보인적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兩國間에서 적절하게 討議되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共同關心事에 대하여 協力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課題라고 蘇聯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sup>75)</sup>

最近 中國의 反蘇的 外交政策이 미국과 소련에 均衡的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方向으로 轉換한 이후 第3世界에서의 中·蘇 對立이 緩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50年代 처럼 中國이 蘇聯의 指導와 保護 아래에서 安存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볼 때 國際政治에서의 中國의 부상으로 인하여 共產圈 內에서 혹은 第3世界에서의 中·蘇 競爭이 가열될 可能性이 크다. 만일, 中·蘇 關係가 충분히 進전되어 蘇聯으로서는 中國에

---

註 75) FBIS/SOV, August 6, 1987, pp. B1-B2

게 더이상 軍事的 壓力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蘇聯은 汎世界的으로 미국과 競爭 狀況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東北亞와 東南亞에서 강력한 軍事力을 維持하려들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적절한 影響力圈을 가지려는 中國과 이 일대에서 強力한 軍事力을 維持하려는 蘇聯의 이해가 계속하여 날카롭게 맞서 갈 것 같다. 이러한 불가피한 利害의 對立 때문에 1950年代의 中·蘇 同盟時期처럼 世界戰略의 協調體制로 中·蘇 관계가 발전할 수는 결코 없다.

현재의 蘇聯軍事力은 蘇聯 및 베트남에 대한 中國의 行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中國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增強된 蘇聯軍이 中國의 安保를 威脅하는 제일의 威脅要因이 되며 軍 現代化 및 미국과의 軍事 協力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中·蘇 緊張이 감소하고 東北亞에 대한 미국의 防衛 決意가 보다 확고하여짐에 힘입어 中國은 軍(PLA)의 規模를 縮小하고 소련과의 國境地帶에 대한 緊張이 현격하게 감소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兩國 國境 사이에 駐屯하고 있는 軍隊의 規模를 決定하기 위하여 中·蘇 軍縮 會談 같은 것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고르바초프는 이미 블라디보스톡 宣言에서 몽고에 駐屯하고 있는 蘇聯軍 중 1개사단을 撤收시키겠다고 公言한 바 있으며 協商에 의하여 撤收範圍를 더욱 擴大시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中·蘇 國境問題는 解決의 可能性이 크다. 中國은 19世紀 중엽 러시아가 強壓的인 不平等 條約을 통하여 中國으로부터 빼앗아간 150萬 평방km의 領土를 返還해 달라고 公式的으로 要請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수리江과 아무르江 연안의 몇개 島嶼의 歸屬이라던가 신강 위구르 地域의 山嶽地帶

의 歸屬 따위의 대수롭지 않은 것 들에 대한 中·蘇 國境問題는 그 자체적으로 대단히 重要的 問題는 아니었고 오히려 中·蘇關係의 惡化를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強調되어 왔다. 한가지 그런대로 重要的 爭點은 하바롭스크의 중심부 건너편 두개의 合流點에 位置한 海сай추 섬의 歸屬이다. 戰略的으로도 중요한 이 섬을 蘇聯사람들이 19世紀에 強制로 奪取하였었다. 그러나 高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宣言한대로 國境 確定을 위하여 江흐름의 중심부를 基準으로 하는 탈웨그(Thalweg)원칙이 適用된다면 이 섬을 中國에 返環해야 할 것이다. 兩國은 이미 1987年에 國境의 確定을 위한 合同 調査團을 구성하였고 2년내에 그 調査 結果를 報告하기로 되어있다.

經濟協力 問題는 中·소관계에서 가장 展望이 밝은 부문이다. 1985年 蘇聯貿易중 中國이 차지하는 比率은 高작 2%에 불과하였고 1950年代에는 두 나라의 經濟가 매우 密接하게 얽혀 있었으나 20年이상 계속된 對立과 격리의 결과 두 나라의 經濟協力 基盤이 대부분 상실되었다고 보여진다. 中國은 西方 및 아시아의 資本主義 國家들과 經濟交流를 增進시켜왔고 西方의 高급 技術을 誘致한다는 측면에서는 蘇聯의 重要한 競爭 相對國이 되었다. 그러나 中·소 經濟交流의 基盤에 대하여 과소 評價할 수는 없다. 蘇聯은 中國이 生産하는 食品 및 방직제품의 손쉬운 消費 市場일 뿐만 아니라 中國이 필요로하는 大型 機械 및 트랙터, 목재등과 또한 石油, 가스, 電力의 生産에 필요한 技術들을 提供할 수 있다. 그리하여 兩國은 相互 物物交換 거래를 할 수 있는 좋은 位置에 있다.

또한 蘇聯과의 交易에서는 陸上 交通을 이용할 수 있는 利點이 있고 陸路로 유럽과 連結시킬 수 있다는 利點도 있다. 單일 蘇聯의 中央 아시

아 地域의 鐵路 交通이 좀더 擴張된다면 蘇聯 및 東歐, 西歐로 向한 中國 貿易에 상당한 役割을 하게된다. 中國은 蘇聯의 시베리아와 극동 地域을 開發하는데 필요한 勞動力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點도 兩國의 交流에 重要的 要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1950 年代에 中國은 蘇聯의 産業技術에 전적으로 의지하였으나 현재에는 西方國家들이 그러한 役割을 하고있다. 그러나 蘇聯은 1950 年代에 建設한 工場들을 現代化 하는데 한몫을 할 수 있다. 더우기 中共內에 中·蘇 貿易의 擴大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그들은 蘇聯이 保護主義가 澎湃하여가는 西方 보다도 보다 安定된 市場을 提供하고 있고, 中國의 天然資源과 蘇聯의 發展된 技術을 交換해 준다는 合理的 條件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蘇聯에서 教育받은 李鵬 首相 같은 技術官僚들이 鄧小平 등의 革命世代를 밀어내고 執權하게 되면 蘇聯과의 經濟協力이 주는 利得에 대하여 보다 더 強調될 展望이다. 특별히 經濟開發이 당분간 中國의 第1次的인 目標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향은 可能性이 크다고 보여진다.<sup>76)</sup> 綜合적으로 中·蘇의 政策이나 經濟 動向을 볼 때 兩國의 經濟 交流는 확대될 展望이며 活潑한 經濟交流는 兩國 關係의 改善에 적극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註 76) William deB Mills, "Gorbachev and the Future of Sino-Soviet Relat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1, No. 4 (1986), pp. 540-541.

## V. 中·蘇關係의 改善과 韓半島

中國은 19世紀부터 열강의 帝國主義의 진출과 領土의 잠식으로부터 온전한 獨立을 保全하려고 몸부림쳐 왔다. 中國의 建國 이후에도 열강의 侵略으로부터 領土와 獨立을 保全하려는 것이 최대의 目標였고 政策의 方向이었다고 느껴진다. 毛澤東은 1950年 蘇聯과의 同盟이 中國의 安保를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하였고 그의 後繼者들은 1978年 中·日 友好協力 條約을 맺고 美國과의 關係를 정상화 시키면서 中·蘇 同盟條約을 廢棄하는 것이 中國의 安保를 위한 急先務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中國의 指導者들은 현실적인 勢力 均衡에 입각하여 中國의 獨立을 維持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東北亞에서 蘇聯의 威脅이 증대하자 美國 및 日本과 理念을 초월한 戰略的 紐帶를 摸索하여 東北亞 일대의 勢力均衡을 安定化시켰다. 현재도 基本的으로는 1978年에 確立된 틀에 따라 中國은 美國 및 日本과 연합하여 이 地域에서 보다 적극적인 蘇聯의 팽창에 맞서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中·蘇 關係가 상당히 더 進展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展望이다.

東北亞 地域의 國際關係가 美·中·日의 戰略的 協調속에 蘇聯의 팽창에 對應하는 현재의 틀이 기본적으로 持續될 것이라고 하는 展望은 무엇보다도, 蘇聯의 적극적인 아시아-太平洋 地域 進出은 계속될 뿐 아니라 加速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蘇聯 사람들은 蘇聯 전체 面積의 약 4分の 3이 아시아 大陸에 속하여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20%에 가까운 5천여만명이 人種的으로 아시아系 인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蘇聯은 유럽 勢力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勢力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세

력으로서 이 지역 國家들과의 交流나 往來가 비교적 소원하며 이 지역 國家들의 經濟나 政治에 별다른 影響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強大國이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후 아시아를 다루는 言論 매체의 기사가 눈에 띄게 增加하고 있다. 開拓의 여지가 많은 아시아에서 蘇聯은 새로운 活力을 얻으려고 있는데,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演說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向한 蘇聯 사람들의 이러한 관심과 의욕을 잘 代辯하여 주었던 것이다.

蘇聯은 이미 東北亞 地域을 軍事的으로 압도하고 있다. 蘇聯이 東北亞에 배치한 군사력은 1960년대 中國이 제기한 國境紛爭 속에 몽고 및 극동 시베리아의 安保에 대한 蘇聯의 우려 때문에 增強되었다. 더우기 1970년대 후반에 中國과 美國 및 일본의 軍事 協力 기미가 엿보이자 이러한 3個國의 軍事協力 體制가 蘇聯에 대한 포위를 시도한다고 認識하면서, 이것을 粉碎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蘇聯 軍事力은 더욱 강조되었다. 현재 蘇聯은 中·蘇 國境을 따라 50여개 사단의 50만명 가량의 兵力을 維持하고 있으며 1萬4千臺의 탱크와 1만 여문의 각종 포와 2천여대의 各種航空機 및 88隻의 순항 미사일 탑재 공격용 잠수함, 85隻의 主要 戰鬪 함정을 이 지역에 配置하고 있다.<sup>77)</sup>

蘇聯은 계속하여 中·蘇 國境地帶의 일부를 제외한 이 地域에서의 軍事力 및 여하한 측면의 影響力이라도 계속하여 增強하여 나아갈 것임에 틀림없다. 더우기 시베리아의 開發 및 蘇聯 太平洋 연안지역의 상당한 開發을 시도할 때에 이 地域 安全의 궁극적인 保障이 되는 軍事力の 增強을 摸索하려고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蘇聯이 太平洋 함대를 우선적으로

---

註 77) Chong Wook Chung, "Asian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Policy of the Soviet Union," Presented at the 4th Korean German Conference, October 5-6, 1987, p. 11.

증강시켜가고 있고, 오호츠크 해상에 蘇聯의 核 잠수함 基地를 擴大해가고 있을뿐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經濟的 支援을 확대하는 것 등은 이러한 蘇聯의 의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向하여 팽배하여 가는 蘇聯의 관심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軍事力의 增強 추세를 勘案할 때 중국은 美國 및 日本과 이 地域에서의 戰略的인 協力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中·蘇 交流가 상당히 진전한다 하더라도 中國이 美國 및 日本과 합하여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형태의, 東北亞에서 현존하는 勢力 均衡의 틀이 그대로 維持될 것이다.

이렇게 現存하는 勢力 均衡의 틀이 그대로 維持된다는 가정 속에서 본다면, 中·蘇關係의 改善은 이 지역의 對立 狀況을 安定시켜 주는데 肯定的으로 작용할 것 같다. 지금까지 美·蘇의 緊張 關係 여하에 따라 이 地域의 긴장도가 현격한 平行線을 보여 왔음에 견주어 볼 때 改善된 中·蘇 關係속에서 중국이 이 地域 安定을 위한 보다 積極的인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狀況은 중국이 對外 安定 지향적인 外交政策을 견지한다는 假定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다.

基本的으로 中·蘇 關係의 改善은 北韓에 대한 中國과 蘇聯의 競爭的 支持 傾向을 감소시켜 주므로 韓半島 緊張 緩和에 肯定的으로 작용할 것 같다. 中·소가 韓半島의 安定을 支持한다는 假定속에서 볼 때 北韓의 무모한 挑發政策을 견제하는 작업에 中·蘇가 協力할 수도 있을것 같다. 그러나 北韓과 韓半島에 대한 中·蘇의 미묘한 競爭關係를 고려하고 또한 위에서 살펴본 中·蘇의 戰略的 對立 狀況으로 미루어 보아 中·蘇가 적극적으로 공동 보조를 취하여 우리의 安保 狀況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中·蘇關係의 改善은 우리에게 韓半島의 安定化를 위한 보다 나은 外的環境을 造成시켜 줄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 Ⅵ. 結 論

1950年代의 末에 惡化되기 시작하였던 中·蘇 關係는 1969年 봄의 國境 武力衝突을 前後하여 最惡의 紛爭狀況으로 돌입하였고 1982年을 기점으로 상당한 改善의 可能性이 나타나다가 1986年에 그 돌파구를 맞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中國과 蘇聯 兩國은 상대방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이며 상대방과의 和解를 통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認識하게 된 것 같다. 1987年 가을 蘇聯에서는 최초로 中國을 소개 報道한 한시간짜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중국과의 만남”이 상당한 好評을 받았다. 蘇聯의 양대 新聞인 프라우다와 이즈베스티야도 이례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言及하면서 “中國 인민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텔레비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이 持續되기를 希望한다”고 言及하였다.<sup>78)</sup>

그러나 中·蘇關係는 아직까지 많은 可能性만을 제시하면서 改善의 成果는 未洽하다. 政治的으로는 “3대 障礙要因” 周邊에서 맴돌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中國은 지금까지 美國과는 여러번 政治 最高指導者들의 交換 訪問이 있었지만 蘇聯과는 아직도 頂上會談 한번 가지지 못하였다. 經濟 및 文化 交流가 현격히 擴大된 것이 사실이지만 中·蘇 貿易이 1985年 20億 달러였을 때 中國의 美國과의 交易은 7.0億 달러였고 中·蘇가 200명의 留學生 交流에 합의하였을 때 美國에서 공부하고 있는 中國 留學生의 수는 12,000餘名을 넘어서고 있다.

---

註 78) Pravda, September 5, 1987, p. 4, and Izevestiya, August 31, 1987, p. 3.



最近 中·蘇 關係 改善의 상당한 진전을 예고하는 움직임들이 관심을 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蘇聯軍 撤收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나 中國과 베트남 關係의 改善 조짐등을 통하여 “3대 障礙要因”의 조용한 解決이 摸索되고 있는 것이다. 2~3年 전만하여도 蘇聯軍의 아프가니스탄 撤收란 가까운 장래엔 전혀 不可能해 보였지만 이제는 이것도 하나의 現實의인 可能性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現實的으로 再評價한 目標을 向하여 정력적으로 促進한다”는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外交”의 結果라면 中·蘇 關係 改善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가 可能할 뿐만 아니라 임박하다고 보여진다.

또 한편에서는 中國에서는 작년 10月末 開催되었던 中共黨 13全大會에서 經濟改革에 대한 持續的인 推進이 確認되었을 뿐만 아니라 鄧小平을 비롯한 革命 세대들이 政治 일선에서 대부분 물러나고 專門官僚 出身의 비교적 젊은 세력들이 대거 부상하여 관심을 끌었다. 지금 부상하고 있는 中國 指導者의 상당 수는 1950年代의 中·蘇 밀월기에 蘇聯에서 專門 敎育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들 중 代表的인 사람이 政治局 常任委員이며 首相인 李鵬이다. 이러한 專門官僚 出身의 蘇聯 留學派가 득세하고 있다는 것도 中·蘇關係의 改善에 積極的인 要素로 작용할 것 같다. 蘇聯도 이러한 인물들을 주목하고 있는것 같다.<sup>79)</sup>

이렇게 中·蘇關係 改善의 상당한 진전이 豫想되지만, 아시아-太平洋 地

註 79) 李鵬은 20세때부터 7年間 모스크바의 동력학원에 留學하였다.

1985年 12月末에는 東歐를 巡訪하고 歸國中이던 李鵬 그 당시의 副首相이 모스크바에 들리 고르바초프와 兩國關係 및 國際問題에 대하여 견해를 교환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計劃에 없었던 것으로 蘇聯側의 要請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한다.

域에 대하여 보다 적극화 되고 있는 蘇聯의 관심과 이것을 뒷받침하는 蘇聯의 軍事力이 초래하는 中·蘇間의 戰略的 대치는 繼續될 展望이다. 이러한 戰略的 대치는 中·蘇 화해의 限界를 提示하여 줄 뿐만 아니라 美·日·中의 戰略的 協力에 바탕을 둔 現存하는 東北亞 勢力均衡의 틀이 中·蘇關係의 改善 속에서도 維持될 것임을 豫想케 한다. 現存하는 勢力均衡의 틀이 東北亞에서 維持되는한 中·蘇 關係 改善이 韓半島에 否定的으로 影響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 Ⅲ. 고르바초프의 아시아重視政策과 北韓의 役割

—最近 蘇·北韓間의 “特別關係” 發展 研究—

檀國大學校  
教授 金裕南



## 目 次

I. 序 論	123
II. 아시아와 美·蘇 頂上會談	129
III. 헬싱키 모델과 蘇聯의 아시아構想	136
IV. 平壤—모스크바軸論	143
V. 고르바초프의 對아시아戰略	149
VI. 쓸모있는 平壤政權	155
VII. 平壤이 줄 수 없는 것들	160
VIII. 蘇·北韓「特別關係」의 展望	166
IX. 結 論	173



## I. 序 論

본 研究은 다음과 같은 5가지 現象을 보다 正確히 그리고 보다 韓國的 눈과 想像力으로 설명하고 진단하려 한다.

① 中·短距離核( INF ) 파기협정체결에 따른 美·蘇의 協力時代 대두와 이들의 對南北韓政策 변화;

②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과 軌도를 같이하는 蘇聯의 對北韓政策 변화;

③ 고르바초프의 아시아重視政策<sup>1)</sup>과 北韓의 役割이 가져올 蘇·北韓 “特別關係” 양상;

④ 향후 5년간의 蘇·北韓關係 發展에 크게 영향미칠 韓國의 國內의 要素와 與件;

⑤ 1988年 서울올림픽대회를 전후해서 期待되는 美·蘇와 南北韓間 4者 關係 변화;

이상과 같은 研究目的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리라 믿는다.

---

註 1)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 書記長의 등장과 함께 크레믈린의 對亞政策에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는 본 研究가 의미하는 아시아重視政策이란 두가지 次元에서 생각한다. 첫째 아시아地域에 관한 정책적 비중이 유럽에 버금하는 方向으로 높아간다는 뜻이며, 둘째 對亞政策의 성격이 軍事安保 傾向에서 經濟·外交·文化等の 包括的 安保(즉 平和安保) 개념으로 큰 비중을 두는 方向으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본 研究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해 온 證據文獻調査( Documentation )<sup>2)</sup> 方法을 止揚하고 이른바 「觀念化」( Idealization ) 쪽을 택하는 理解方法을 추구하고 있다. 본 研究의 주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知識과 經驗을 바탕으로 蘇聯研究가 나아가야 할 方向은 西方의 見聞과 資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대로의 主觀的 想象力을 觀念化하는 분석방법이다」라는 것이다.

본 研究는 「蘇聯研究의 韓國的 觀念化」라고 할 수 있는 理解方法이 가장 代表的인 接近方法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韓國의 蘇聯研究는 西方, 특히 美國과 日本등의 蘇聯研究가 定하고 活用해온 蘇聯의 政策概念들을 우리의 思考로 되묻고, 되생각하고, 그리고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때마침 蘇聯의 改革·開放政策은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와 「글라스노스트」( Glasnost )라는 개념으로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 書記長(이하 편의상 “서기장”이라 稱함)은 世紀的인 「變革」의 英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研究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改革哲學도 원칙적으로는 「觀念論的 變革」( Idealistic Change )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와같은 까닭은 觀念( “ Idea ” 혹은 “ Vorstellung ” )의 變化는 새로운 사고, 즉 既存概念에 대한 새로운 認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

註 2) 「 Documentation 」方法은 韓國의 蘇聯研究와 같이 1次資料가 접하기 어렵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直接引用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蘇聯研究家가 西方을 통해 接하는 間接資料나 西方의 見解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한 韓國系 在美學者가 그러한 판단을 지적하며 “高見之”한 일간신문에서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느낀 바” 있다. 그러나 결코 肯定的 느낌만은 아니었다.



은 그의 政策的 最近著書 「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에서 「새로운 思考」 (New Thinking)<sup>3)</sup>를 그 책의 副題로 내세우고 있음을 알수 있다.

變身の 世界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變革의 論理를 새롭게 해득해야 한다. 蘇聯의 變身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戰術的 변모이던, 아니면 오늘날 러시아민족이 당면한 生存的 適應이던, 우리는 변하는 蘇聯 그대로를 이해하고 그 變化의 意味를 韓國의 立場에서 새롭게 소화시켜야 한다.

具體的으로 말해서 韓國的 蘇聯研究의 觀念化란 研究目的이 「正當化」 (Justification)에 있지않고 「檢證」 (Verification)에 있다는 것이다. 본 研究는 西方學風의 소산인, 예컨대 蘇聯의 對아시아政策이 전통적으로 “膨脹主義”인가 아니면 “守護主義”인가 어느 한쪽을 正當化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본 研究가 바라는 목적은 그러한 既存概念을 現實的으로 檢證할 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蘇聯에 관한 여러가지 觀念을 새롭게 하며 따라서 蘇聯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쌓아올리고자 한다.

고르바초프 리더쉽下의 蘇聯의 아시아重視政策과 北韓의 役割에 관한 理論과 가설이 적지않다.<sup>4)</sup> 그러나 본 研究는 그러한 理論과 가설들을 분

---

註 3) Mikhail S. Gorbachev, 「Perestroika :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1987) 참고바람.

4) 最近의 것으로 英國 國際戰略問題研究所 (I.I.S.S.) 제 28 차 총회에서 발표된 論文中 다음의 3 論文을 例로 들 수 있다. Herry Gelman, “The Soviet Union, East Asia and the West: the Kremlin’s Calculus of Opportunities and Risks;” Robert A. Scalapino, “Soviet Influence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the Coming Decade : Part I ;” Paul Dibb, “Soviet Influence in East Asia …… Part II, ” 「Adelphi Papers」, # 217 (I.I.S.S.), Spring 1987, pp.3 ~ 55 참고바람.

석적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있다. 그와는 다르게,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檢證的 接近方法으로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對아시아政策發言 要旨를 분석적 問題의 제기로 삼는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對아시아重視政策 發言은 제 27 차 蘇聯共產黨 全黨大會 (1986.2.25)에서 행한 그의 「政治報告書」에 반영됨으로써 蘇聯의 아시아構想이 公式化되기 시작했다. 그의 정치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言及은 과거의 蘇聯共產黨 全黨大會에서 없었던 일이다.

아시아가 蘇聯外交政策 主要對象地域으로 公式化하는 크레믈린의 聲明이 고르바초프의 政治報告書 내용을 구체화 해주는 發表로 이어졌다. (1986. 4.23). 이 蘇聯 外務省 聲明은 蘇聯이 「가장 큰 아시아·태평양세력」 (the Largest Asian and Pacific Ocean Powers)中 하나라는 것과 이 지역 國家들과 「雙務的 그리고 多者間 協議」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nsultations)를 강력히 제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政治體制와 理念 그리고 世界觀 차이를 불구하고」 (Despite the Difference in the Political Systems, Ideologies and World Outlooks) 「全아시아會議 開催」 (the Holding of an All-Asian Forum)를 제의했다.<sup>5)</sup>

그러나 고르바초프(결국 蘇聯)의 아시아重視政策의 代表的인 公式프로그램은 블라디보스톡市에 「레닌勳章」 (Lenin Order)을 수여하기 위해 그곳에서 行한 이른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블라디보스톡 宣言」 (Vlad-

---

註 5) "Soviet Government Statement on Asia - Pacific Region,"  
「Daily Report : Soviet Union」 (FBIS), April 23, 1986,  
pp. 1 ~ 2 참고함.

ivostok Speech )에 담겨있다. ( 1986.7.28 ). 그의 블라디보스톡 宣言은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기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되풀이하지 않는다.

여기서 본 研究目的에 부합되는 블라디보스톡 宣言內容을 간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蘇聯의 극동연안주지방은 傳統的으로 太平洋에로의 前哨基地이다.
- ② 極東沿海州地方은 資源과 國際的 위치로 보아 全體蘇聯國家經濟體系의 통일된 일환으로 그리고 國際的 分業體系의 連繫로 발전되어야 한다.
- ③ 蘇聯의 極東地方經濟體系는 궁극적으로 輸出指向的 국제경제구조로 發展함으로서 外國과 合資는 물론 “自由港”과 같은 수출특별지역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 ④ 蘇聯은 당연한 「아시아·太平洋國家」( Asian and Pacific Country )로서, 이지역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永住해 왔음으로써 이곳에 民族的·國家的 利害關係가 깊다.
- ⑤ 그런데 아시아·太平洋地域은 美國·蘇聯·印度·中國·日本·카나다·오스트레일리아등, 그리고 다수의 신흥공업국을 포함하는 世界第1의 政治·經濟圈이다.
- ⑥ 1970年 후반부터 美國의 이 地域에 대한 軍事化·核地帶化는 그 한계점에 달했으며 특히 「美·日·韓 軍事3角體制」( Militarized Washington-Tokyo-Seoul Triangle )가 蘇聯의 極東沿海州地方의 安保를 위협한다.
- ⑦ 此際에 蘇聯은 이 地域內에 위치한 모든 나라와 「例外없이」( Without Exception ) 雙務關係를 융통성있게 개선해 나가며, 한편 국제적 多者間 會晤도 동시에 추진한다.

⑧ 蘇聯은 헬싱키協定(1975)過程<sup>6)</sup>을 하나의 모델로서 「아시아·太平洋平和會議」(Asia-Pacific Peace Conference) 개최를 다시 한번 제의한다.

⑨ 蘇聯은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대한 여러形態의 非核會談과 아울러 재래식 무기감축을 포함한 多様な 軍縮協商을 제의하며 그러기 위해 모든形態의 상호신뢰방안(CBMs)을 환영한다.

⑩ 太平洋을 중심으로 蘇聯이 美國과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은 美國도 「하나의 큰 太平洋勢力」(A Great Pacific Power)라는 것이며, 때문에 美國의 참석없이 이 地域의 安保와 協力問題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⑪ 蘇聯은 韓半島의 긴장이 완화되고 戰爭의 위험이 가시고, 더 나아가서는 「全體韓國人의 民族問題」(The National Problem of Entire Korean People)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⑫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대한 國際的 安保와 平和構造를 실현하기 위해 蘇聯은 몽고, 北韓, 베트남, 라오스, 캄푸치아 등과 多様な 協約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北韓이 제의한 韓半島 非核地帶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

註 6) 蘇聯의 平和攻勢論理中 「헬싱키協定過程」(Helsinki Process)라는 表現이 자주 부각되고 있다. 즉 1975年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약칭 CSCE)가 이른바 헬싱키協定(Helsinki Final Act)을 체결함으로써 蘇聯은 유럽에서의 政治·外交·軍事的 位置를 確立할 수 있었다. 仔細한 內容은 本文 「헬싱키體制」참고바람.

7) 여기서 要約된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要旨가 「블라디보스톡 宣言」에 담겨있으나 본 研究에 합당성을 제시하는 내용만을 간추린 것이다. “Gorbachev’s 28 July Speech in Vladivostok,” 「Daily Report: Soviet Union」(FBIS), # 145, July 29, 1986 참고.

## II. 아시아와 美·蘇頂上會談

1986년 10월 레이카비크(Reykjavik)에서 前年 11월의 제네바회담에 이어 두번째 美·蘇頂上會談이 레이건-고르바초프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頂上會談의 主題인 中·短距離核(INF)<sup>8)</sup> 破棄協定에 合意하려 하기보다는 蘇聯의 「平和政策」(Peace Policy)을 世界에 홍보하는데 主眼點을 두는 듯 했다. 결국 레이카비크會談은 協商이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레이카비크頂上會談에서 능수능란한 協商家임을 世界와 蘇聯國民에게 보여주는데 성공했다.

레이카비크以後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78년 2월에 INF 교섭에서 戰略防衛構想(SDI)으로 알려진 우주무기협상과의 連繫條件을 분리한다고 發表했다. 그리고 4월에는 美國의 제안인 全面破棄인 「더블·제로·옵션」(Double-Zero-Option)을 수락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7월에는 美國의 레이건案인 「더블·제로·옵션」보다 한단계 앞서는 「글로벌·더블·제로·옵션」(Global-Double-Zero-Option)을 극적으로 제의함으로써 워싱턴에서의 第3次 美·蘇頂上會談과 아울러 오래동안 懸案으로 밀려오던 美·

---

註 8) 蘇聯의 平和指向의 宣傳과 弘報를 가리켜 蘇聯 스스로는 이를 「平和政策·平和프로그램·平和이니시어티브」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反하여 西方의 해석은 이것들을 「平和攻勢」(Peace Offensive)라고 한다. 그런데 고르바초프時代에 와서 蘇聯의 平和攻勢는 단순한 宣傳次元만이 아니라 多少의 「眞意」가 있다는 方向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見解가 있다.

蘇間 中・短距離核 ( INF ) 파기협정이 이루어진 것이다.<sup>9)</sup>

애당초 第3次 美・蘇頂上會談은 INF 협정체결을 계기로 美國에서 열리도록하는 원칙에 美・蘇가 합의하고 있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고르바초프는 INF 協定の 관건으로 남아온 아시아配置 蘇聯의 SS-20 미사일에 관한 「글로벌・더블・옵션」提議를 美國에 直接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第3國을 통해서 했다는데 特別한 意味가 있다.

즉 고르바초프는 이른바 「블라디보스톡 宣言」 1週年을 맞아 인도네시아의 「메르데카」 ( Merdeka )紙와 書面인터뷰에서 최초로 아시아配置 INF 破棄를 宣言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메르데카」紙가 書面으로 제출한 「블라디보스톡 宣言 1週年에 즈음해 어떤 變化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答한 것이다.

「南太平洋會議는 라로통가 ( Rarotonga )<sup>10)</sup> 協約을 낳았다. 인도네시아는 東南亞에서의 非核化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南太平洋에서의 불란서 核實驗을 강력히 反對하고 있다. 韓半島에서 核武器를 철수시켜야 한다는 세계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

蘇聯・美國間에 이루어지고 있는 INF 철폐협정에 관해 아시아國家들은 중・단거리 핵미사일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同時に 제거되어야 한다는

---

註 9) 美・蘇가 外相會談을 통해 1987년 7월이후 여러차례에 걸친 協商끝에 9월 兩國은 핵미사일 폐기협정에 「원칙적합의」를 보았다고 發表하고 12월의 워싱턴 頂上會談을 확정했다. 자세한 내용은「한국일보」, 「東亞日報」 1987.9.19. 참고바람.

10) 南太平洋國家 ( Tonga, Kiribati, Vanuatu 等 )와 蘇聯은 이른바 「라로통가協約」이라는 「南太平洋非核化地帶條約」을 체결했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蘇聯指導部는 그러한 아시아국들의 희망사항을 심사숙고한 끝에 책임지는 입장을 택했다.

.....

蘇聯은 아시아국가들의 의사와 그들의 희망대로 아시아쪽 蘇聯領土에 배치된 모든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破棄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다시 말해서 蘇聯은 중·단거리 핵미사일에 관한限 “글로벌·더블·제로” 개념을 제의한다.

.....

이경우, 蘇聯은 우리의 이러한 提議가 駐韓美軍이 소유한 核武器, 그리고 필리핀과 디에고·가르시아(Diego Garcia)에 반입된 美軍의 核武器撤收를 前提條件으로 連繫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蘇聯은 美國이 이러한 地域으로부터 核武器를 철수해 주었으면 하는 希望을 가지고 있다”<sup>11)</sup>

우리나라에서는 이와같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重大發言이 東南亞 한 나라 新聞과의 對談形式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그다지 驚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사실은 고르바초프의 아시아配置 INF 協商에서 駐韓美軍이 보유하는 核武器撤收를 先行條件으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內容이 韓國의 言論에서 言及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美國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메르데카」紙 인터뷰가 傳하는 메

---

註 11) 「Pravda」, July 23, 1987, 英文으로는 “Gorbachev Interviewed by Indonesian Paper Merdeka,” 「Daily Report : Soviet Union」 (FBIS), July 23, 1987, p. 4 인용함.

세지를 正確히 받고 當日 白堊館에서는 특별기자회견을 가졌을 뿐 아니라 美國은 즉각적인 肯定反應을 보이고 제네바軍縮 代表間 구체적인 協商推進을 수락했던 것이다.

美·蘇間의 INF 協定과 頂上會談이 劇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世界가 第2의 데탕트時代로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關鍵的<sup>12)</sup> 展開라는 것이다. 애당초 蘇聯은 美國과 함께 亞洲配置 중·장거리 핵미사일협상을 100基로 制限하는 對話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西方과 아시아의 輿論이 시베리아에 배치한 SS-20 등의 完全破棄를 원하는 方向으로 變하자 고르바초프는 이를 「블라디보스톡 宣言」의 後續措置로 利用한 것이다. 즉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美國에 앞서 아시아重視政策의 內實을 보여준 것이다.

韓國의 立場에서 관심거리가 될만한 「메르데카」紙와의 對話內容 가운데는 이미 以上에서 言及(引用)된것 말고도 몇가지가 더 있다. 첫째, 고르바초프는 現在 아시아·太平洋沿岸國家(資本主義國)들과의 원활한 經濟交易을 위해서 「蘇聯亞太經濟協力委員會」(The Soviet National Committee for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아시아舞臺를 적절하게 利用하는 外交手腕은 1987년 12월의 와싱턴頂上會談과 더불어 第2의 活力素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全아시아國家會議」 提議였다. 蘇聯은 美·蘇頂上會談의 성공적인

---

註 12) INF 協定과 頂上會談으로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을 아시아에서 除去했다는 意味에서 “關鍵的 제거”, 그리고 美·蘇關係改善問題가 아시아·太平洋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意味로 “關門的 전개”라고 表現하고 있다. 이와같은 現象을 西方世界는 “The Soviet Union's Asian Overtures”라고 한다.



계기를 놓치지 않고 발표한 한 聲明에서 이 地域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共同摸索의 方案으로 「全아시아國家會議」<sup>13)</sup> 소집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제 蘇聯은 1988년 上半期(6月以前)에 모스크바를 訪問하고 第4次 美·蘇頂上會談에 임하는 美國의 레이건大統領에 무언가 산뜻한 外交的 贈物을 주기위한 새로운 構想을 해야하는 立場에 있다.

레이건 美大統領의 上半期以前 모스크바訪問은 韓半島, 특히 韓國에게 상당한 意味가 부여되는 시기적 계기가 아닐수 없다. 韓國은 1988년 2월의 新政府(第6共和國) 出帆과 더불어 그해 서울올림픽대회를 치루어야 하는 일대 變革을 경험해야 한다. 韓國이 分斷國으로 1950년대 冷戰時代의 遺産을 안은채 蘇聯과 北韓 그리고 中國과 기타 東歐共產圈 國家들을 서울올림픽대회에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意味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韓國의 盟邦인 美國大統領이 서울올림픽 개막 3개월을 앞두고 모스크바를 訪問하고 第4次 美·蘇頂上會談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韓國의 「北方政策」<sup>14)</sup>은 이제 對蘇關係改善이 주축을 이루게 되는 國際政治構造로 變하고 있다.

第4次 美·蘇頂上會談이 취급하게 될 議題는 대략 第3次會談의 共同聲明으로 이미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를 要約하면 類型別로 ①戰略核·

---

註 13) “蘇, 아시아국가회의제의,” 「한국일보」, 1987.12.12, p.5 ;

“Joint Soviet-US Summit Statement,” 「Soviet Weekly」, No. 239314, December 19, 1987, pp. 3~4 참고함.

14) 韓國의 對共產圈 關係改善策은 1972년 「7.4共同聲明」이후 점진적 변화가 있어오다가 1980년대초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이범석씨가 國防大學院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韓國이 「北方外交」를 공식으로 추진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로서 한국의 대북한·대중국·대소련 接近策 등을 한데 묶어 「北方政策」이라고 稱하게 되었는데 이는 1970년대초 西獨의 「東方政策」에서 모방한 개념이라고 믿어진다.

在來式武器를 포함한 여러가지 軍縮 및 統制에 관한 案件, ②人權과 人道主義問題에 관련된 案件, ③韓半島·캄푸치아·아프간등에 관한 이른바 “地域問題” 이슈, ④美·蘇間의 雙務的 關係增進에 관한 案件이 모스크바 頂上會談에서 취급되리라 믿는다. 그런 경우 時期的으로 美·蘇가 모두 서울을 olimpik大會(1988.9.17부터 16日間)에 參加하게 됨으로서 모스크바會談은 韓半島問題를 深度있게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87년 12월 워싱턴 美·蘇頂上會談을 可能케 한 이른바 關鍵除去役割을 한 아시아의 中·短距離核미사일 이슈는 다시한번 蘇聯의 아시아重視政策을 檢證하게 된다. 아시아配置 SS-20 미사일 폐기제의를 美國에게 直接傳達하지 않고 아시아 國家의 言論에 發表한 것도 世界에게 蘇聯의 아시아重視政策을 實證하는 態度였다. 워싱턴會議直後 蘇聯은 극히 自然스럽게 그것도 미국의 首都에서 「全아시아國家會議」提議를 發表했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以上에서 볼수 있듯이 1986년 7월에 발표했던 「블라디보스톡 宣言」을 充實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최초로 發想한 「아시아·太平洋平和會議」가 헬싱키協約機構인 「유럽安保協力會議」(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약칭 CSCE)를 모방한 對아시아 平和攻勢라는 意味를 새롭게 되생각해야 할 것이다.

본 研究는 1975년 이른바 헬싱키協約(Helsinki Accords)<sup>15)</sup>이 체결되

註 15) “Helsinki Accords” 또는 “Helsinki Final Act”로 알려진 헬싱키協約은 그 背景에 西獨의 「東方政策」(Ostpolitik)과 제20회 뮌헨올림픽大會(1972)가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할 必要가 있겠다. 같은 맥락으로 韓國의 「北方政策」과 제24회 서울올림픽大會를 아시아·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어떤 형태의 平和協約 발전으로 연계가 可能性을 생각한다.

던 當時의 유럽·美國·蘇聯의 상황이 1980년대말 혹은 1990년대 초에 아시아에서 再演될 가능성을 심중에 두고 있다. 헬싱키協約을 탄생시킨 유럽安保協力會議(통칭 “유럽안보회”로 韓國에서 알려져 있음)와 당시 蘇聯의 입장을 무엇이었는가?

### Ⅲ. 헬싱키 모델과 蘇聯의 아시아構想

헬싱키協約이 이루어진 背景에는 西獨의 「東方政策」이 있었고 그러한 西獨의 獨者的 움직임에 대한 美·蘇의 強대국적 協력이 유럽의 德탕트構造를 정착시키고 있었다. 16) 蘇聯의 立場은 強력한 서독(經濟的으로) 이 美國圈에 종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따라서 西獨과의 정상관계 수립은 蘇聯이 바라는 「全유럽會議」(All-European Conference)를 성사시키는데 있었다. 1966년 말부터 西獨이 蘇聯과 기타 東歐圈國家들과 國交正常化 움직임(이미 西獨은 1963년부터 東歐圈과 貿易代表部를 교환하고 있었으므로)이 보이자 蘇聯은 유럽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全유럽會議」 개최를 제의하고, 이를 強력히 추진한 결과 헬싱키協約에 성공했다.

1975년 헬싱키협약이 유럽 35개국(알바니아는 불참)과 地理的 인접성을 이유로 美國과 캐나다가 참가하는 史上最初·最大규모의 「協約」(Agreement)이 그해 8월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헬싱키協約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理由가 蘇聯의 對아시아政策構想이 「헬싱키모델」 이라는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強調한다.

通稱 「유럽안보會議」(CSCE)는 「헬싱키協約」(The Helsinki Fi-

---

註 16) 西獨의 獨自路線과 「東方政策」에 자극받은 美國은 蘇聯과 서둘러 核擴散防止條約(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을 체결하고 美·蘇協力으로 西獨의 외교적 國力성장을 억제 하려 했으나 蘇聯은 이를 역이용하였다. Roy C. Mac Cridis, ed., 「Foreign Policy in World Politics」(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85. 5th ed.), pp. 97 ~ 104 참고함.

nal Act )을 탄생시킨 모체이며 지금도 이 유럽안보회의는 벨그라드會議(1977.6 ~ 1978.3), 마드리드會議(1980.11 ~ 1983.9), 그리고 스톡홀름會議(1984.1 ~ 1986.9) 등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지역의 平和機構로 實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1975년 헬싱키協約이 체결되던 당시의 유럽의 안보상황과 蘇聯의 外交的 目標에 있다.

헬싱키 協約이 있기까지는 유럽안보회의 헬싱키 會議가 1973년 11월 부터 1975년 9월 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또한 유럽안보회의가 1973년 헬싱키에서 성사되기 전부터 蘇聯은 2次大戰後의 유럽관계를 청산하는 多者會談을 제의해 온 것이다. 韓國에서 終戰이 이루어지고 蘇聯에서 스탈린이 死亡한후 1954년 2월 모스크바는 유럽會議가 바람직하다고 했다.<sup>17)</sup> 1966년 7월,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의 이름으로 蘇聯은 이른바 「부카레스트 宣言」을 통해 「全유럽會議」(All-European Conference)개최를 제의했다. 이때 西獨은 이미 폴란드(1963), 루마니아(1963), 헝가리(1963), 불가리아(1964), 체코슬로바키아(1964), 등과 貿易代表部를 교환하고 있었다.

후르시초프 蘇聯 공산당서기장의 對西獨和解政策은 1964년 8월 공산당 政治局內 궁중쿠테타로 후르시초프의 失脚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1969년 3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이름으로 蘇聯은 「유럽안보회의」(European Security Conference)의 개최를 제의했다. 당시 西獨에서는 社

---

註 17) Steve Smith and Michael Clarke, eds., 「Foreign Policy Implementation」(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Publishers, Ltd., 1985), PP.142 ~ 165 참고함.

會民主黨 (SPD)이 政權을 인수하고 브란트 (Billy Brandt) 首相의 「東方政策」이 蘇聯의 「유럽安保會議」제 의와 같은 政策路線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 西獨의 공식적 發表가 있었다.

드디어 蘇聯은 西獨政府와 「不可侵條約」을 체결하고 (1970. 8. 12) 동시에 經濟協力에 합의하는 등 쌍방간의 국경문제, 兩獨問題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實利外交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史家들은 훗날 西獨·蘇聯正常化는 브란트의 「東方政策」과 브레즈네프의 「西方政策」(Westpolitik)이 손잡고 성공한 경우라 했다.<sup>18)</sup> 이때 이미 西獨은 1967년부터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등과 大使를 交換하고 있었으며 물론 蘇聯도 西獨과 자유로운 大使(特使)交換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의 國交正常化는 이미 1965년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할나위도 없이 西獨과 國交正常化를 서두른 蘇聯의 궁극적인 目的은 蘇聯이 提議한 「全유럽安保會議」를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유럽安保會議는 전후 유럽의 국경과 東·西陣營의 分界線, 東獨에 대한 國際的 認定등을 한꺼번에 낚는 산모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西獨·蘇聯不可侵條約 체결후 (1970) 모스크바政權은 본 (Bonn)의 브란트정부의 협력하에 유럽안보회의 개최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이때 西獨은 이미 1972년 뮌헨올림픽大會 (第20次)의 개최권을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大會를 前後한 유럽의 政治·經濟的 視線이 西獨으로 쏠리고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가 유럽지역의 勢力으로 유럽安保會議에 초청된 것은 유럽

---

註18) Alvin Z. Rubinstein, 「Soviet Foreign Policy Since World War II」(Boston M. A. Little, Brown and Co., Ltd., 1985, 2nd. Ed.), P. 115 참고함.

의 主要國家들이 北大西洋同盟條約國 ( NATO)會員國으로서 미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美國은 처음부터 유럽安保會議가 蘇聯의 구상일뿐 아니라 미국과 미국의 유럽우방국을 이간하고 격리하려는 蘇聯의 外交的 술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美國의 냉소적 그리고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무려 22개월에 걸친 마라톤大會는 1975년 9월 4群으로 묶어진 決議文을 채택하는데 성공했다. 決議文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宣言」에 지나지 않으며 어떤 성격의 외교적 「條約」이 아님으로 해서 강제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 <sup>19)</sup> 그러나 이 協約에 署名한 國家는 「政治的 約束」에 대한 文明國家로서의 신사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물론 서명국들은 헬싱키 協約의 내용과 정신으로부터 直·間接的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약속을 지키는 편이 여기는 편보다 長期的으로 自國의 利得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文明國”의 장점이라 하겠다.

헬싱키 協約의 제 1군으로 묶어진 내용은 主題가 유럽安全保障問題이다.<sup>20)</sup> 내용을 보면 유럽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10개분야의 事業이 포함되어있는데 눈에 띄는 사업이 바로 「相互信賴構築方案」( Confidence - Building

---

註 19) 자세한 설명은 William E. Griffith, 「Superpowers and Regional Tensions : The USS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Lexington, M A :Lexington Books, D.C. Health and Co., 1982), pp. 31 ~ 39 참고 바람.

20) 헬싱키 協約 내용은 다음 文獻을 참고했음. : HMSO(1975),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Final Act」, Cmnd. 6198(London:HMSO, 1975); HMSO(1977), 「Miscellaneous. NO. 17(1977). Selected Documents Relating to problems of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1954-77」 Cmnd. 6932(London : HMSO, 1977 )

Measures - - 약칭 CBMS)인 것이다. CBM이라 함은 東·西間 一方이 군사훈련을 하는경우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참관인을 초청함으로써 서로가 信賴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즉 서로가 상대에게 위협을 느낄만한 軍事行動에 대하여 이해시키기 위한 군사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이다.

헬싱키 協約의 第2群의 내용은 經濟·科學交流에 관한 協力이다. 여기서 貿易關係, 産業政策, 科學·技術交流 등에 관한 구체적 協約이 言及되고 있다.

헬싱키 協約 第3群內容은 人權과 人道主義의 立場에서 서명국이 취해야 할 人的交流, 交信의 自由, 文化·藝術交流과 協力, 그리고 教育交流 등이 밝혀져 있다. 그리고 제4군은 유럽안보會議가 헬싱키大會 이후 정기·부정기적으로 또는 總會와 分科會가 개최되는 규정에 관한 것으로 요약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헬싱키 協約內容中 蘇聯이 바라고 있었던 부분이 제1군의 유럽안보와 상호신뢰구축방안이었다. 그런데 반해 西歐가 바랐던 것은 第3群에 해당하는 經濟協力條項은 쌍방이 골고루 바랐던 互惠條項이었다. 다시 말해서 蘇聯과 東歐는 安보條項에 實利를 얻는데 반해 美國과 西歐는 인권조항에서 승리함으로써 유럽안보회의는 그나름대로 東·西 兩陣營의 均衡的 관계개선이었다.

蘇聯은 헬싱키 協約以後 東獨이 즉시 獨立國家로서의 地位가 인정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蘇聯은 이 협약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관한 한 미국의 주장이 獨步의 일 수 없다는 事實을 確認한 것이다.

유럽의 35 개국이 한마디씩 하면 아무리 美國이 우월한 초강대국이라 해도



他國과의 協力이 불가피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sup>21)</sup>

蘇聯과 東歐만이 유럽 安保會議로부터 큰 利得을 본 것은 아니다. 西歐와 美國은 蘇聯支配圈인 東歐共產國과 直接的인 정치·경제·군사관계를 교류하고 타협할수 있게된 계기가 마련되고 따라서 재래식무기체제에 관한 軍縮協商인 「相互均衡軍事力減縮」(Mutual and Blanced Force Reduction-통칭 MBFR) 協商이 多者間에 이루어진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럽 安保會議와 헬싱키 協約은 애당초 蘇聯의 구상이고 作品이라는 데서 우선 심리적으로 蘇聯의 승리와 蘇聯의 “平和精神”이란 이미지를 남겼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다.

유럽 安保會議가 남긴 「헬싱키 모델」(Helsinki Model)이라 함은 헬싱키 協約의 내용을 두고 하는 말이면서도 보다 강조되는 점이 「過程」(Process)이었다. 유럽 安保會議 過程은 會議期間만도 무려 2년에 가까운 마라톤會議이기도 했지만 그사이에 개별적 쌍무간 토의와 협상 과정에서 蘇聯은 유럽을 상대로 35개국을 찾아다니며 政府·民間레벨의 광범위한 인사들과 接近할 수 있었다.<sup>22)</sup> 그때도 蘇聯은 對西方 經濟協力과 개방을 위해 부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역시 지금처럼 「新經濟機構」(New Economic Mechanism - - 약칭 NEM)라는 개혁용어를 사용하

---

註 21) John Borawski, Stan Weeks, and Charlotte E. Thompson, "The Stockholm Agreement of September 1986," 「ORBIS」. Vol.30, No.4, Winter 1987, PP.643~661 참고 바람. 여기서 筆者들은 1975 헬싱키會議이후 유럽안보회의가 1986년 스톡홀름會議에 이르기까지의 발전과 變化를 분석하고 있다.

22) Kristian Gerner, 「The Soviet Union and Central Europe in the Post - War Era」(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pp. 85 - 97 참조함.

고 있었다.

지금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第2의 「헬싱키過程」(Helsinki Process)를 실현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蘇聯이 1960 년대에 西獨의 「東方政策」흐름을 닮아듯이, 이제 고르바초프도 南韓의 「北方政策」에 呼應하는 아시아·太平洋平和會議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헬싱키過程은 蘇聯의 외교관뿐만 아니라 여러계층의 인사들이 자유롭게 西獨과 기타 西歐여러나라의 각계각층을 接觸하게 해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1972년 민헨올림픽과 헬싱키 協約은 1988년 서울올림픽大會와 아시아型 헬싱키協約을 대칭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라 하겠다.<sup>23)</sup>

---

註 23) 1969년 가을 西獨에서 브란트의 社民黨이 연정을 구성하여 집권당으로 등장하면서 西獨의 「東方政策」은 가속적으로 발전했고 蘇聯은 이를 好機로 利用했다. 1987년 南韓의 선거가 새로운 行政府(第6共和國)를 출범시켰고 이 新政府는 선거공약으로 「北方政策」을 내놓았다. 西獨의 경우 1972년 민헨올림픽大會가 있었고 南韓은 1988년 서울올림픽大會가 있다. 蘇聯의 외교확장이 매우 자연스러운 환경이다.

#### IV. 平壤 - 모스크바軸論

韓國의 北韓專門家中 상당히 많은수가 1984년 5월 金日成의 모스크바 방문후부터 平壤 - 모스크바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견해 쪽이다. 본 研究는 이에 대한 찬·반을 言及할 立場이 아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充足되는 환경이었다고 할 뿐이다.

그러한 새로운 平壤 - 모스크바關係發展을 「平壤 - 모스크바軸論」<sup>24)</sup>이라고 하겠다.

蘇聯이 北韓을 포함한 아시아의 親蘇共產圈으로부터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國內的 개혁·개방 정책과 그리고 대외적인 아시아 중시정책이후 소련의 그러한 希望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平壤 - 모스크바軸論이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蘇聯의 아시아關係 격월간지 「아시아 - 아프리카인민」의 英文版 「Asia and Africa Today」의 論調를 참고하기로 한다.

「世界는 지금 蘇聯이 제의한 多者間 協約에 의한 아시아安保問題 解決 方案을 알고있다. 우리의 提議는 相互信賴構築方案(CBMs), 非核地帶化를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多者間 그리고 雙務間 會議등이 포함되어 있다.

... 蘇聯은 최근 몽고인민공화국이 제의한 不可侵條約체결과 暴力使用禁

---

註 24) 엄격히 말하자면 「論」이라기 보다는 「說」에 해당되나 통칭상 「論」으로 편리하게 사용한다. 어찌되었던 「平壤 - 모스크바軸論」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등장과 함께 군사적 의미와 그리고 외교적 의미로 각각 다른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나, 北韓과 蘇聯이 새로운 「特別關係」모색이라는 점에서는 서로가 동의적이라 하겠다.

止條約체결 건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 내용을 보면 그같은 조약은 아시아·太平洋國家가 多數間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인도지나문제와 한반도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 . . 최근 北韓(북조선인민공화국)이 제의한 韓半島 非核地帶化案은 韓國問題를 平和的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sup>25)</sup> 그리고 南太平洋圈 9개국이 제의한 이 지역에 대한 非核地帶化案도 매우 적절한 方向으로 발전하고 있다. . . . 蘇聯이 아시아·太平洋에 관해 평화적 정책들을言及할 때에는 분명히 헬싱키 過程의 경험과 유럽安保體制를 아시아에 반영시키도록하는 구상이다. 헬싱키 체제에서 얻은 쌍무적 그리고 다자간 協議經驗은 아시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 아시아회의 개최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 . . 그러한 方向에로의 기본적인 자세는 모든 아시아 國家들이 그들의 정치·사회적 제도의 차이를 불문하고 동참해야 한다. 그들의 동참명분은 영원한 평화, 안정 그리고 平和共存의 원칙으로 포괄적인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sup>26)</sup>

같은 격월간지 다음 호에 게재된 아시아·太平洋平和構想到에 관한 아시아전문가들의 表現도 대등소이한 내용이였다. 그러나 한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몽고와 北韓이 계속 蘇聯의 變因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1960년

---

註 25) 자세히 관찰하면 蘇聯의 「아·太平和會議」構想의 배경에는 北韓등 아시아 社會主義國家의 적극적 협력을 성공의 필수조건으로 생각한다는 모스크바의 의중을 알수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은 모스크바의 대 北韓視角의 變化가 모색되는 새로운 平壤-모스크바관계이다.

26) Vladimir Tikhomilov, "Pacific Cooperation," 「Asia and Africa Today」, NO.5, September-October 1986, p.16 著者 Tikhomirov는 蘇聯科學아카데미 산하 東洋學研究所 研究委員으로 알려져 있다.

대 유럽안보會議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WTO)가 蘇聯의 대변인역할을 했던것과 유사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당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이름으로 「全유럽안보會議」를 촉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의 경우, 蘇聯의 대아정책형성과정에서 상당한 影響力을 지닌것으로 알려진 티타렌코(Mikhail Titarenko)박사(蘇聯科學아카데미 산하 極東研究所 所長)의 서두부분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몽고가 매우 중대한 제의를 했다. 몽고의 제의는 여러가지이나 특히 주목되는 바가 건설적인 판-아시아(Pan-Asia)대화 제의인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亞·太國家들이 相互不可侵條約과 暴力使用禁止條約을 체결하는 제의이었다. . . . 北韓도 社會主義國家들 사이에서 최근에 와서 능동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로 보인다. 北韓은 南·北韓間의 信賴를 회복하려 함에 있어서 그리고 南北對話를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조치)들은 南北韓 쌍방간 대결을 피하게 하고 정치·군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켜준다.」<sup>27)</sup> 사실 蘇聯政府(外務省)의 1986년 3월 23일자 아시아 政策에 관한 성명이 있을 후 몽고의 수도 울란·바토르(Ulan-Bator)에서 3월 27일 몽고-北韓-라오스-캄푸치아-베트남-蘇聯등 6개국 의 원연맹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會議는 형식상 亞·太平洋과 안보문제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토의했다고하나, 실제에 있어서 제 27차 소련공산당 전당

---

註 27) "Round Table Discussion --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n Pacific Region," 「Asia and Africa Today」, NO.6, November - December 1986, P.21 참고인용함.

대회가 채택한 외교노선중 아시아·太平洋地域에 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支持表明해 주기 위한 모임이었다.:

「아시아社會主義議員聯盟會議는 아시아에 있어서 軍事的 위협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쏘아시아회의를 제의하는 바이다. 아시아사회주의의원연맹은  
아시아의 평화와 安保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증대함으로써 社會  
主義圈뿐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極東에  
서 相互信賴回復構築方案을 구현하고, 상호불가침조약과 暴力使用禁止條約을  
체결하고, 南韓에서 모든 核武器를 철수하고, 한반도를 非核地帶化하고, 그  
리고 동남아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간에 대화를 증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환영한다. 특히 아시아사회주의의원연맹은 이상의 모든 평화와 안  
보를 위해 蘇聯共產黨 第27次 全黨大會가 채택한 포괄적 國際安保體制  
具現을 向한 모든 構想을 전폭지지 한다.」<sup>28)</sup>

아시아·太平洋地域에는 유럽에서와 같이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없  
기때문에 蘇聯은 몽고와 北韓으로 하여금 蘇聯이 말하고자 하는 아시아  
安保會議案을 對外的으로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몽고  
의 경우는 蘇聯이 말하는 아시아·太平洋平和會議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도 國益에 보탬이 될뿐 부정요소가 없다는 것이다.<sup>29)</sup> 그러나 北韓의 경  
우는 평양정권의 대남관계로 볼때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다시 말해

---

註28) "1st Asian Socialist Parliamentarians Meeting Held," <MO-  
TSAME> 「Daily Report : Asia」(FBIS), March 28, 1986,  
p.F1 인용함.

29) 몽고는 어차피 蘇聯의 政治·經濟·軍事的 隸屬國으로서 構造的 종  
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國力과 잠재력 그리고 지리적위  
치조건이 蘇聯의 아시아政策변화에서 得이 있으리라 믿어진다.

서 蘇聯의 아시아·太平洋平和會議 構想은 대부분이 平壤政權의 對南政策과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sup>30)</sup> 여기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平壤 - 모스크바軸論」이다. 蘇聯의 亞·太政策變化는 새로운 평양 - 모스크바 관계를 요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세력변화와 蘇聯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이끌고 나가는 개조(페레스트로이카)와 開放(글라스노스트)政策에 부합되려면 北韓은 상당히 많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3種의 引用文에서 본 바와 같이, 蘇聯은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의 능력있는 외교적 대리인(國)을 찾고있다. 울란·바토르 社會主義議員聯盟(아시아)大會는 물론 蘇聯의 전략적 조작으로서 아시아圈 社會主義國家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蘇聯의 아시아重視政策을 추진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다. 사실 蘇聯은 지금처럼 아시아에서 동업자가 요구되는 때가 없을 것이다. 地政學的 위치로 보나 國力으로 보나 東北亞에서는 北韓이며 東南亞에서는 베트남이 蘇聯의 대리인(Surrogate)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表現하면 「모스크바 - 평양 - 하노이軸」(Moskva - Pyongyang - Hanoi Axis)라 하겠다.

역사가 반드시 윤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蘇聯의 헬싱키體制構想은 그 과정과 실질적 경험이 大戰略變更으로 이어질 때 思考力으로 再

---

註 30)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金裕南, “고르바초프時代에 있어서 蘇聯의 外交戰略과 南北韓,” 金達中 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서울: 法文社, 1987), pp. 286 ~ 312 참고바람. 金日成이 느끼는 根本的 딜렘마(平壤 - 모스크바관계)에 관한 筆者의 견해는 다음을 참고바람. 金裕南, “北韓 - 蘇聯關係의 變化,” 李洪九·스칼라피노 共編「北韓과 오늘의 세계」(서울: 法文社, 1986), pp. 151 ~ 182.

생되고 있다. 1960 년대의 東歐圈은 하나로 결속된 蘇聯의 대리인이었다.<sup>31)</sup> 설사 부분적인 저항이 있었다고 해도 체코와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의 경우처럼 손쉽게 진압하거나 숙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그렇게 결속된 대리인이 없으므로해서 지금부터 蘇聯은 새로운 다국적대리인 (體制)을 만들거나 아니면 능력있는 개별적 대리인 (國)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하노이 - 평양 - 모스크바軸은 당장 効力を 발휘할 수 있는 多者機構로 급성장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蘇聯은 하노이와 평양정권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 대리인작용을 짜내기 위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註 31) 자세한 내용은 Christopher Coker,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 The Washington Papers # 111 > (Washington, D.C.:CSIS, Georgetown University, 1984), pp. 42 ~ 62 참조바람.



## V. 고르바초프의 對아시아戰略

고르바초프政權이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리더쉽이 要求한다고 믿어지는) 政策的 우선순위는 目的과 方法<sup>32)</sup>을 어떻게 區分하는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본 研究는 假說的 前提로서 고르바초프의 對亞戰略의 目的은 「國內的 經濟發展(改革·開放政策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과 極東에서의 外交的 國威增進(아시아·太平洋平和會議와 관계를 유지하며)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원칙적인 路線위에서 具體性を 생각하기로 한다.

勿論 지금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추구하고 있는 經濟改革政策은 유럽을 비롯한 西方世界的 技術과 資本에 걸고있는 기대도 크지만 極東지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욱 커보이는 까닭이 있다. 이는 시베리아와 蘇聯의 極東沿海州가 차지하는 經濟的 潛在力과 이와 地理的으로 連繫되는 日本經濟와 그리고 韓國·臺灣·싱가포르 등의 新興工業國家가 있기 때문이다. 蘇聯이 經濟的으로 발전하려면 시베리아·極東沿海州가 蘇聯의 核心經濟로 開發되어야 하며 對西方門戶開放도 蘇聯의 極東沿海州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블라디보스톡 宣言」에서 分明히 하고 있다.<sup>33)</sup>

---

註 32) 여기서 말하는 「目的과 方法」이라 함은 例컨대 蘇聯이 北韓을 蒙古처럼 隸屬化시키는 일이 對亞政策의 目的일 수도 있고 方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Means”와 “Ends”가 서로간에 從屬變數이기도 하고 어느 한쪽의 獨立變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3) 地理的으로 소련영토의 3/4에 가까운 넓이가 아시아에 屬하며 소련이 유지하는 全體邊方의 1/3이 아시아에 놓여있다. 소련 전체 人口의 30%가 아시아에 거주하며, 전체 人口의 20%가 아시아系이다. 이로서 蘇聯의 心臟部는 유럽에 있으되 팔·다리는 아시아에 있다는 「유라시아」國家이다. Leonid Korenev, “The Far East Region of Soviet Union, “ 「MN Information」 (Moskva), No.63, 1986, p.5 참고바람.

蘇聯經濟發展과 極東地方과의 관계는 서로가 從屬變數關係에 있다. 다음은 극동의 外交的 國威增進問題와 蘇聯의 안전보장잇슈이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蘇聯이 더 以上 軍事力에 의존하는 安保措置만으로는 不충분한 時代에 살고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그러한 覺醒은 美國의 레이건大統領과 認識을 같이함으로써 1987년 12월 10일에 첫 출발로 中·短距離核戰力廢棄協定을 체결한 것이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국가안전」(National Security) 問題에 관한 認識을 「包括的 概念」(Comprehensive Concept)으로 이해한다는 事實이 매우 重要視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包括的 安保概念이란 그의 第27次 全黨大會 政治報告書中 「黨의 基本的 對外戰略路線」에 따르면 二元的 觀念으로 해석된다.

즉 국가안전이란 사회주의 同盟國關係의 向上으로부터 얻어지는 國家安全만이 아니라 資本主義世界와의 競爭的 協力關係 增進으로 얻어지는 安全問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國家安全이란 人類가 高度의 복잡한 文化生活로 발전할수록 軍事的인 安全만이 아니라 經濟等 기타 분야의 安全要素가 국가의 安全保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른바 「經濟安保」(Economic Security)이라는 用語가 돋보일 정도로 強調되었던 것이다.<sup>34)</sup>

위에서 여러번 言及되었듯이 蘇聯이 아시아勢力으로 地位를 굳히고자 한

---

註 34) Mikhail S. Gorbachev, 「Political Report of the CPSU Central Committee to the 27 th Party Congress」(Moskva: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1986), p.96 참고함. 여기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表現中 “經濟安保問題에 關한 國際大會”라는 말이 있다.

다는 事實은 여기서 말하는 蘇聯國內經濟의 발전과 極東(蘇聯의 시베리아·極東沿海州地方과 한반도를 포함한 東北亞地域)地方的 包括的 安保를 얻고자 하는 方法論的 過程이다. 어떻게 보면 이는 蘇聯이 達成하고자 하는 目的에 이르는 단계적 手段이다.

브레즈네프時代의 크레믈린의 아시아·太平洋政策이 「反美·中國包圍戰略」이었다면 고르바초프時代의 아시아·太平洋政策은 「協美·親亞太戰略」이라고 하겠다. 즉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美國과의 多元的인 協力이 이루어진다면 이지역내 모든 국가들과 기본적인 友好關係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美國과 蘇聯은 브레즈네프의 死亡을 계기로 건전한 相互協력과 善意的 競爭關係에로의 발전을 토의해오다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1985년 3월 登場以後, 美·蘇雙務關係와 함께 第3世界의 美·蘇利害關係地域에 關한 協商을 추진, 進行해 왔다. 特히 아시아·太平洋地域內的 利害地域(韓半島를 포함)에 對한 상호협력이 매우 두드러진다. 蘇聯은 強大國政治構造를 배경으로 하는 「協美·親亞太戰略」을 추구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아시아重視政策은 결국 그의 「亞太平和會議」제의와 함께 모두가 「協美·親亞太戰略」과 一致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고르바초프의 아시아戰略은 그 性格과 戰略構造가 첫째 美國을 疎外시키고는 不可能하며, 둘째 역설적이지만 도리어 美國의 協力を 要하는 것이다. 現 國際政治的 권력구조는 근본적으로 霸權主義的이며 따라서 共存主義的인 가운데 美·蘇超強國이 서로가 協力的일때 第3世界에서 「共同主權」(Condominium)<sup>35)</sup>

---

註 35) 第3世界에 대한 美·蘇 「Condominium」 理論에 의하면 地域內 또는 世界平和를 위해 美·蘇 超強大國이 利害得失을 주고 받는 (혹은 分割支配하는) 協力關係를 의미한다. “Soviet-American Condominium” 理論에 관해서 Frank D. Margiotta, ed., 「Evolving Strategic Realities Implication for U.S. Policymakers」(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80), pp.16~17 참고 바람.

的으로 行動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1975年 헬싱키 協約에 따라 이른바 東·西間의 共同主權과 分割支配가 분명해 짐으로 해서 그곳에서의 蘇聯의 位置가 確固하게 되었다. 이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그의 先任者들이 이루지 못한 아시아·太平洋에서의 美·蘇 共同主權·分割支配의 時代를 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共同主權”이란 사실상의 主權行使처럼 美·蘇의 영향력이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여러가지 形態의 영향력행사를 의미한다.

第3世界の 立場에서 蘇聯이 추구하는 「콘도미니움」( Condominium ) 政策은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아시아的 視角에서 잠재적 威脅과 危機感을 同時에 느낀다. 특히 아시아人的 立場에서 美國이 이제 이 地域에 대한 蘇聯의 進出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沮止하지 않겠다는 態度를 읽을 수 있게 된것이 큰 變化이다.

美國의 전통적 反共戰略(大戰略)이었던 封鎖政策(Containpolicy)이 1975年 베트남戰終熄以後 서서히 그 強度를 弱化시켜 왔으나 이제 고르바초프時代에 와서 美國은 西紀 2000년대의 共產主義勢力과의 關係에서 죽은 戰略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르바초프는 亞太地域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目的들을 현실적으로 成就可能한 戰略對象으로 생각한다.<sup>36)</sup>

①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經濟的으로 아시아·太平洋地域內的 모든 多者間 經濟機構(“太平洋共同體”를 포함한)에 적극적으로 參與하는 한편 시베리

---

註 36) 「고르바초프의 아시아政策 關係主要資料」(國土統一院, 1987.3)라는 자료집이 포함되어 있는 3종의 演說文에서 많은 참고가 있었음.

아開發에 亞太國參與를 적극 유도하면서 蘇聯의 極東沿海州地方을 開放的 經濟特別區로 發展시키려 한다.

②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政治的으로 아시아·太平洋地域內的 모든 國家 (韓國을 포함하여)들과 正常關係를 유지하는 實利的 友好·協力關係를 기대하며, 따라서 多様な 多者間 安保機構 (“亞·太平和會議”를 포함하여)와 雙務的 상호신뢰구축방안 (CBMs)<sup>37)</sup>를 제의하고 계속 추진하려 한다.

③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軍事的으로 아시아·太平洋地域內的 모든 國家 (韓國을 포함하여)들과 雙務的 그리고 多者間에 있어서 특정국가 혹은 特定地域에 대한 暴力(武力) 사용금지조약이나 非核地帶化協約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言及한 바대로 現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對아시아 平和攻勢는 複合的이며 동시다발적 多元性を 띠고 있음으로 해서 그의 이른바 平和案 (Peace Programs)은 政治·經濟·軍事등 모든面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事業別 分類가 불가능하다. 例컨대 고르바초프의 亞·太平和會議 제의는 對外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會議의 성격은 政治的이나 다분히 軍事的이며 따라서 經濟·文化·人道的이기도 하다.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가 채택한 헬싱키 協約 自體가 複合的인 것이라는 데서 대략 짐작이 가는 일이

---

註 37) 상호신뢰구축방안 (CBMs)은 그 성격이 政治的 (高位人士의 상호방문), 經濟的 (經濟交流), 그리고 軍事安保的 (軍事問題에 관한 情報交換)인 것들로 복합적이거나 기본적인 신뢰회복은 政治的 交流이다. 仔細한 內容은 H.G. Skilling, “CSCE in Madrid” [Problems of Communism], July - August 1981, pp.1 ~ 16 참고 바람.

다.<sup>38)</sup> 이와같은 고르바초프의 아시아構想 안에서 平壤政權의 位置를 알고  
자 한다.

---

註 38) 韓國系 러시아人 Georgy Kim (東洋學研究所 副所長이며 Asia and Africa Today」誌의 主編輯長)의 “ Soviet Union and Problems of Peace and Security in Asia ”, 「Asia and Africa Today」 No.2(March-April 1984 ), pp.3~14 참고.

## Ⅵ. 쓸모있는 平壤政權

平壤과 모스크바사이가 平壤과 北京사이보다 「멀다」, 「가깝다」, 혹은 「같다」라는 表現은 너무나 익숙한 用語들이다. 西方의 評價는 金日成이 北京과 모스크바의 勢力(힘)을 교묘히 利用함으로써 時期的으로 親中國·親蘇聯 쪽으로 편향 또는 轉向하기도 하며 이들 兩勢力이 保合일때는 獨自路線을 지켜왔다고 한다.<sup>39)</sup> 본 研究의 軸점은 高爾巴초프의 새 아시아政 策에서 平壤政權이 쓸모있는가 하는 問題意識이 되겠다.

于先 平壤-모스크바關係의 構造的 틀을 생각한다. 여기에는 몇가지 特徵이 있다. 첫째 같은 社會主義制度를 가지고 있다. 둘째 平壤政權은 모스크바政權에 從屬의이다. 셋째 모스크바政權은 平壤政權의 後見國이다. 이와같은 세가지 特徵外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一般的으로 이러한 세가지 만으로 서 北韓과 蘇聯關係의 구조적 特徵으로 본다.

모든 社會科學徒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사회현상을 構造機能主義的으로 說明하러 할때 體系( Systems )를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北韓·蘇聯關係도 全體와 部分, 그리고 上位-下位體系로서의 구조·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sup>40)</sup> 그렇다면 모스크바·평양關係를 하나의 統一된 體系로 볼 때 보다

---

註 39) 이 點에 關係서는 國內 北韓專門家나 西方專門家(특히 美國의)들 사이 에 異見이 없다. 그러나 이는 비단 北韓만이 對東歐·對中國 姿勢의 특 징이 아니라 모든 中·小共產國이 自主性を 유지하러 할때 中道에서 左 右로 「鍾」을 흔들어 떨수밖에 없다. 참고로는 Suk-Ryul Yu, “Po- litical Succession and Policy Change in North Korea,” 「 Journal of E/W Studies 」 Vol. XV, No.1, Spring-Summer 1986, pp.2~27을 소개함.

40) 構造·機能主義(Structural-Functionalism)에 對해서는 Gabriel A. Almond 의 “Structural-Functional Approach”에 해당하는 意味를 뜻하고 있다. 「The Politics of the Developing A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

알기쉽게 說明된다고 본다. 이를 하나씩 具體的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特徵인 社會主義 同質性 내지 社會主義·國際主義面을 생각한다. 蘇聯의 立場에서 보면 北韓이 社會主義國이라는 意味가 매우 크다. 金日成의 蘇聯 「붉은 軍隊」의 行蹟이 어찌되었건(소련軍 特權與否) 北韓은 蘇聯에 의해 세워진 社會主義國家라는 意味로 蘇聯의 생각으로는 자신이 北韓 社會主義의 「戴冠者」(Corronator)인 것이다.<sup>41)</sup> 그렇기 때문에 蘇聯의 立場에서 보면 北韓의 社會主義制度가 모범적인 面을 지니는 發展모델일것을 바라고 있다. 쉽게 말해서 蘇聯이 만든 北韓 社會主義國家이기에 좀처럼 特別한 異變이 없는 限 蘇聯은 이를 버릴 수 없다. 따라서 蘇聯 - 北韓關係는 단순히 社會主義·國際主義(Socialist Internationalism)이나 社會主義 連帶性(Socialist Solidarity)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둘째 特徵인 北韓의 對蘇從屬關係는 동맹정책이 구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强者-弱者의 屬性이다. 즉 제아무리 훌륭한 美辭麗句로 평등한 同盟條約을 체결했어도 強大國과 弱小國이 서로가 盟邦이 되는 경우 그 條約關係가 유지되는 한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隸屬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國際政治의 現實이다. 즉 北韓은 蘇聯의 「隸屬國」(Cliental State) 또는 다른 表現으로 「衛星國」(Satellite State)이나 같은 뜻이다.

셋째 特徵인 모스크바政權은 平壤政權의 「後見國」(Custodian State)<sup>42)</sup>

---

註 41) 蘇聯의 對北韓 關係文獻은 대부분 소련軍이 “朝鮮解放”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5), pp.68~69; Ivan Kovalenko, ed., 「Soviet Policy for Asian Peace and Security」(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1), pp.166~176 참고함.

42) Dan Caldwell, 「Soviet International Behavior and U.S. Policy Options」(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5), pp.11~59 참고함.



이라는 事實이 平壤政權이 蘇聯에게 從屬國 地位를 유지하는데 대한 보상이 되고 있다. 이른바 社會主義 宗主國 ( Suzerain State )으로서의 蘇聯이 北韓에게 베풀어야 하는 義務라고 할만한 소정의 지원과 保護가 있다. 다시말하면 平壤政權 위에서 宗主國으로 군림하는 代身 (代價로), 소련이 치루어야 하는 이틀테면 「保險料」는 그 量과 質에 따라서 平壤 - 모스크바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北韓 - 蘇聯間의 구조적 특징을 새롭게 생각한다는 事實은 막연히 平壤 - 모스크바關係가 「緊密化」 되었다던가 아니면 「疎遠化」 되었다는 表現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基準이 되고 있다. 그런데 兩國關係가 緊密化이거나 소원화의 어느 경우에도 不變해 온 특징이 「社會主義 連帶性」이다. 사회주의 연대성을 내세워 平壤 - 모스크바關係를 說明하려 할 때 아무 것도 確實히 알 수 없다.

分明하게 區別되어야 할 것은 平壤 · 모스크바關係의 總論的 명분론과 各論的 실이론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蘇聯의 對北韓 態도와 立場은 總論的인 것으로서 特別한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

① 北韓이 말하는 「韓半島 平和維持와 긴장해소를 위한 여러가지 發起를 전적으로 支持한다는 蘇聯의 發言」;

② 北韓이 제기한 「對南連席會議와 駐韓美軍 撤收主張과 기타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努力」을 支持한다는 蘇聯의 立場 ;

③ 「별들의 戰爭」 계획으로 알려진 「戰略防衛構想」( SDI )은 물론 世界的인 규모의 反美運動을 추진해야 한다는 北韓을 찬양하는 蘇聯의 反應 .

以上과 같은 類型에 屬하는 蘇聯의 對北韓 支持發言 · 立場 · 反應은 모두

가 原則論的인 것이다. 이와같은 公式的인 表現은 事實상 蘇聯·北韓關係를 尺度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基準이 되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以上과 같은 內容의 蘇聯-北韓關係 表明은 둘의 사이가 最惡의 경우로 떨어진 때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다.<sup>43)</sup> 이것들은 이른바 別意味가 없는 美辭麗句로써 眞正 社會主義 連帶性이 와해되는 것을 西方世界에 대해 숨기려하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北韓과 蘇聯사이가 「가깝다」, 「멀다」, 혹은 北韓-中國사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部分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各論」에 해당하는 보다 具體的인 言質과 行動에 있다고 본다. 「總論」的인 것이 원칙적 그리고 名分論的인 것이라면 「各論」的인 북한-소련관계는 實際的이며 구체적인 言約과 실천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위에서 言及한 「從屬關係와 後見關係」는 북한과 소련이 各各 相對方에게 各論的인 협력關係를 유지하는 現實的 同盟政策이다.

고르바초프의 立場에서 보았을 때 平壤政權이 蘇聯의 衛星國으로서 쓸모있는 同盟國이 되려면 다음의 條件들을 充足시켜 주어야 한다.<sup>44)</sup>

---

註 43) 이에 關해서 다음의 文獻을 참고 했음. “金日成 訪蘇와 朝·蘇緊密化” 「ユリマ評論」, 1987年 1·2月號 (「北朝鮮 動向」) <「民族統一」> 1987年 1·2月號에 引用된것, pp.60~69; Michael Armacost, “U.S. Can Meet Soviets’ Third World Challenge,” < Armacost Remarks at Brown University >, September 26, 1986 ( USIS Information Service Sources ).

44) 여기에 要約된 蘇聯(고르바초프)의 對北韓 기대사항은 1984년과 1986년 「朝·蘇頂上會談」 當時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兩側의 演說文 內容을 참고로 한것임. 「金日成의 施政演說」(國土統一院, 1987.1); 「고르바초프의 아시아政策關聯 主要資料」(國土統一院, 1987.3) 등 참고함.

① 蘇聯이 變하는대로 북한이 따라서 變身하며, 宗主國(蘇聯)이 시키지 않아도 主義主義的으로 蘇聯이 지향하는 方向으로 앞장서 나가는 일 ;

② 蘇聯이 願하는 바를 북한이 알아서 미리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支持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宗主國(蘇聯)이 國際輿論等을 감안해 차마 못할 일을 손수 代行하는 일 ;

③ 蘇聯이 反對하는 바를 북한이 잘 알아서 選別하여 대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宗主國(蘇聯)이 국제 여론 등 여러가지 理由로 反對하지 못할일을 代行하는 일

以上은 北韓이 忠誠스러운 對蘇從屬關係를 유지할때 기대되는 北韓의 역할이다. 그러나 북한이 蘇聯의 충성스러운 衛星國으로 쓸모있는 役割을 해야하는 理由는 소련이 북한의 「後見國」으로서의 役割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點에서 金日成이 모스크바로부터 忠誠에 對한 補償으로 기대하는 서비스(Services)라고 생각된다.<sup>45)</sup>

① 北韓은 蘇聯의 대북한정책이 보다 구체적인 各論的 立場에서 지금 北韓이 必要로 하는바를 支援하는 일을 기대 ;

② 北韓은 蘇聯의 對北韓立場이 보다 無條件的이며 보다 長期的인 後見者로서의 寬容을 베푸는 일을 기대 ;

③ 北韓은 蘇聯의 對北韓姿勢가 보다 보수주의적이며 軍事主義的 同盟體制로 體系化해주는 일을 기대

---

註 45) 여기서 要約된 北韓(김일성)의 對蘇 기대사항은 1984年과 1986年 「朝·蘇 頂上會談」 當時 모스크바에서 발표된 兩側의 演說文內容을 참고한 筆者 자신의 해석임. 「金日成의 시정연설」(國土統一院, 1987. 1) ; 「김일성 시정연설분석」(국가안전기획부, 1986.12) 등 참고함.

## VII. 平壤이 줄 수 없는 것들

超強大國의 世界戰略的 構圖에서 보면 大國에 의존적으로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國家(경우에 따라서는 “政權”)를 지탱해 나가는 弱小國의 꼴이 가소로울때가 있을 것이다. 특히 소련에 대한 北韓의 꼴이 그럴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蘇聯은 마르크스·레닌主義 敎理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고 社會主義經濟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모두가 蘇聯이 「標準」이 되길 바란다. 그런데 北韓 金日成의 「主體思想」이니 「自主經濟」니 하는꼴이란 蘇聯을 짜증스럽게 하고도 남을 일이다.<sup>46)</sup>

分明히 蘇聯은 蘇聯이 변하는대로 따라서 변하고 시키는대로 하는 北韓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모스크바는 平壤政權이 率先하여 소련이 願하는바를 앞장서 해주길 바랄뿐 아니라 蘇聯이 싫어하는 일을 알아서 避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北韓 나름대로도 蘇聯이 해야할 後見國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後見國으로서의 서비스가 未洽하기 때문에) 從屬的 忠誠心을 더이상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蘇聯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1985년 3월 등장 이후 그리고 1986년 3월초 第27次 蘇聯共產黨 全黨大會以後 급변하고 있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政策은 金日成으로서는 想像을 초월하는 改革·開放政策이었다. 그래서 金日成은 고르바초프를 直接 만나고 改革·開放政

---

註 46) 筆者가 알고있는 바로는 蘇聯의 政治學者和 經濟學者(대부분 소련科學 아카데미 산하 各種 研究所 學者)들이 西方世界의 동료학자들과 私席에서는 北韓의 「金日成主義」가 社會主義 基本도 갖고있지 못하다고 꼬집고 있다. 그뿐 아니라 最近(지난2년부터)에는 韓國學者들과의 對話에도 소련學者들은 北韓을 「異常한 나라」(Strange Country)라고 했다.

策路線에서 본 北韓의 位置와 役割을 타진할 必要를 느낀 것이다. 이것은 바로 1986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의 「朝·蘇頂上會談」이다.<sup>47)</sup>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1986년의 金日成 - 고르바초프會談에 대하여서는 具體적으로 그 회담내용이 公開된 바 없다. 다만 雙方은 「따뜻하고 화기애찬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던가 「會談에서 토의된 모든 問題에서 完全한 見解의 일치를 보았다」는등 말하자면 總論的 原則만을 言及했을 뿐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예측이 가능한 案件들이 있었으리라 믿어지나 여기서는 例示的 言及으로 그친다.

추측하건대 고르바초프는 頂上會談 당시 이미 이른바 「블라디보스톡 宣言」이 있는지 3個月이 지나고 있었으며 時期的으로 北韓·蘇聯 關係가 交流·接觸等에 있어서 가장 緊密해지고 있었던 1986년이었기에 고르바초프의 아시아重視政策과 더불어 北韓의 역할이 필히 討議되었으리라 믿어진다. 1986年은 특히 「朝·蘇頂上會談」을 前後하여 최초의 「朝·蘇 合同 海軍訓練」이 東海에서 있었던 해이다.

결국 1984년 5월의 「朝·蘇頂上會談」과 그리고 1986년 10월의 「朝·蘇頂上會談」 사이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速度로 平壤 - 모스크바 關係의 발전이 있었다. 軍事的으로 그리고 經濟的으로도 蘇聯은 北韓이 바라던 種

---

註 47) 고르바초프 書記長을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로 떠나기前(10月 18日 ~ 21日까지) 金日成은 東獨 國家評議會議長 호네커의 平壤訪門을 맞아 一種의 政策的 助言을 듣고(東獨의 경험等) 모스크바로 向했던 것이다. 이보다 앞서 3月 8日에는 카스트로 쿠바首相을 평양에 불러 카스트로의 助言과 '88 서울올림픽大會의 南北韓 共同主催宣言을 했다. 이 宣言때문에 결국 쿠바는 蘇聯 및 기타 東歐圈의 參加에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에 끝내 不參할 수 밖에 없었다.

과 量의 對北韓 援助를 제공한 것이다.<sup>48)</sup> 이때쯤 蘇聯의 對外弘報刊行物들은 蘇聯의 「붉은 軍隊」가 「解放軍」으로 북한에 진주했고 1961年 7月 6日字 「朝·蘇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은 「血盟의 象徴」이라는 用語를 남발하고 있을때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蘇聯은 북한의 69個 基幹産業 施設을 新設 혹은 再建해주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때였다.<sup>49)</sup>

특히 1986年 10월의 김일성-고르바초프會談에서 蘇聯이 北韓으로부터 얻으려했던 協助는 우리의 想像을 더욱 앞지르고 있다. 즉 고르바초프는 그의 「블라디보스톡 宣言」을 實踐으로 옮기기 위해 北韓이 韓半島 緊張緩和와 南北韓關係의 정상화를 위한 劇的인 措置를 취해줄것을 강력히 要求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와같은 事實은 1987년초에 들어서면서 北韓이 取한 對南對話姿勢와 그리고 같은 때에 소련의 放送과 기타 對外刊行物이 소련의 對北韓壓力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證明하고 있다. 여기서 단편적인 한例를 들면 다음과 같은 蘇聯의 放送이다 :

「모스크바 相逢時 고르바초프同志와 金日成동지 사이에서 이룩한 原則的 合意에 따라 두나라들은 核戰爭위협을 제거하고 軍備競爭을 중지하며 아시아·太平洋地域과 朝鮮半島에서 平和와 安全을 공고히 하는 問題들에 선차적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

註 48) 仔細한 內容은 Herbert J. Ellison, Univ. of Washington, "The Soviet Union and Korea," The 6th Korea-U.S. Conference on Northeast Asian Security (外交安保研究院·美國 Johns Hopkins University 共同主權), 서울, 1987.12.14~15 발표논문, pp.13~19 참고 바람.

49) Aleyander Ryafov, "USSR-DPRK Fruitful Cooperation," 「Asia and Africa Today」, #6, 1986, pp.57~58 참고함.

지난 1년 간에 모스크바에서 蘇聯外相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外相의 상봉이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蘇聯側 특사인 外務省 副相 로가체프가 金日成동지를 만나 고르바초프 동지의 워싱턴訪問과 蘇·美頂上會談의 內容을 數日前에 통보해 주었습니다.

.....

蘇聯과 美國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폐기조약은 朝鮮의 非核地帶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提案을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sup>50)</sup>

以上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1986년 10월의 모스크바 會談以後 지금까지 蘇聯은 北韓으로 하여금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宣言」이 暗示하는 平壤의 役割을 솔선해서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우리의 상상력이 미치는 바대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 ① 現 국제정치질서는 對決보다 制限된 協力과 競爭의 시대로 변하고 있으며, 蘇聯의 改革·開放政策도 그러한 추세와 一致하는 것이다.
- ② 改革·開放時代의 소련은 아시아·太平洋地域을 상대로 하는 平和攻勢政策을 추구할 것인바, 北韓의 종속적 役割이 크게 기대된다.
- ③ 1988年 서울올림픽大會를 계기로 韓半島는 世界속의 「平和의 상징」으로 대두하며, 아울러 展開될 2000년대의 아시아·太平洋時代의 到來를 逆

---

註 50) 「모스크바 放送」, 1987년 12월 30일 “朝·蘇對外政策分野協助,” 「공산권방송」(국가안전기획부), 1987년 12월 31일, 제 2497호, pp.38-40을 재인용함.

行할 수 없다.<sup>51)</sup>

고르바초프는 北韓으로부터 全的으로 새로운 對南政策을 기대한 것이다. 蘇聯은 北韓이 要求하는 新型武器를 제공하는 代身 「朝·蘇軍事協力」을 擴大하는 만큼 對外政策面에서도 「朝·蘇協力·調節」을 바랬던 것이다. 다시말해서 고르바초프는 北韓을 改革과 開放의 「同志」로 새롭게 할 뿐 아니라 기존하는 平壤-모스크바關係를 한次元 높히는 量과 質的 同盟體系의 格上을 構想했던 것이다.

格上된 平壤-모스크바關係는 蘇聯의 아시아勢力(Asian Power) 기반을 確固히 해줄 수 있는 반면 北韓의 國際的(그리고 地域的) 地位를 보다 安定한 기반위에서 向上시켜 줄 수 있다고 본것이다. 格上의 量的 變化란 기존하는 兩國關係의 여러分野(政治·經濟·軍事·文化·教育등)를 더욱 活性化하여 최소한 現 南韓과 美國이 유지하고 있는 友好親善協力關係 水準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格上의 質的 變化란 보다 現實的이고 實利的인 「互惠關係」를 증진시키며 役割分擔<sup>52)</sup>을 최소한 現 蘇聯과 東歐圈사이에 유지되는 制度的 장치만큼 「朝·蘇關係」도 체계화되어야 한다

---

註 51) 이곳에 要約된 內容은 전혀 근거가 없는 가상적 「空論」이 아니다. 1987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亞·太 科學者大會에 참석했던 蘇聯과 학아카데미 산하 東洋學研究所와 國際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IME-MO), 그리고 소련과학아카데미 서기국 소속 高位人士들의 見解를 반영해서 構想된 시나리오이다.

52) 役割分擔이란 外交·安保的 分擔을 의미하는데 현재 바르샤바조약국이 나 COMECON 가맹국들은 비교적 蘇聯의 「이니셔티브」를 上層構造로 받아 자신들의 증속적 變化를 下層構造로 이룬바 「System·Sub-system關係」로 체계가 서있다. 현재 북한과 소련사이에 外交·安保的 體系分業이 없기 때문이다.



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合理的 改革主義 思想을 金日成에게 注入시키려 했거나 아니면 說得하려 한것이다. 그러나 金日成 父子를 포함한 이데올로기의 強硬主義勢力은 現實主義的 論理를 모르고 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北韓으로부터 아직도 얻지 못한, 이른바 「開化된 協力」( Civilized Cooperation )은 아직도 完全히 포기된 것만은 아닌듯 싶다. 지금 고르바초프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朝·蘇協力關係」는 스탈린時代의 「無知스러운 忠誠과 後見」이 아니라 「開化된 關係」( Civilized Relations )인 것이다.

## VIII. 蘇·北韓 「特別關係」의 展望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그의 第27次 공산당 全黨大會에서 행한 정치보고와 그의 이른바 「블라디보스톡 宣言」등에서 「開化된 方法」(Civilized Manner) 그리고 「開化된 協力」(Civilized Cooperations) 이란 單語를 사용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메르데카」紙와의 인터뷰에서도 「開化된 關係(Civilized Relations)가 政治·經濟·外交·人間的 모든 交流에서 자유롭게 發展」<sup>53)</sup> 할 것을 要求했다. 즉 소련은 이제 스탈린시대의 前近代의 國際關係(세력정치) 패턴을 버리고 文明國다운 국제 關係를 지키는 國際關係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本 研究은 고르바초프가 추구하는 新時代의 「朝·蘇關係」改善은 단순히 北韓을 軍事와 經濟的으로 원조함으로써 소련이 北韓의 主要港口에 소련해군(태평양함대)이 入港權을 얻는다던가 蘇聯空軍의 北韓영공통과권을 얻으려는데 있다고 보지 않는다. 고르바초프의 對北韓關係改善은 보다 포괄적이며 먼 눈으로 보는 「朝·蘇同盟戰略」으로서 北韓이 소련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의 多項들이 되리라는 것이다.

최근 蘇聯은 自國의 외교목표가 北韓의 외교목표와 동일하다는 點을 구태여 강조하면서 이른바 모스크바의 改革·開放政策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平和攻勢와 對亞太政策이 平壤정권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

註 53) “Gorbachev Interviewed by Indonesian Paper Merdeka”, 「Pravda」, July 23, 1987. pp.1~2, 「Daily Report : Soviet Union」(FBIS), July 23, 1978. p. cc9.

意味를 전달하고자 한다. 1987년 12월 30일자 「모스크바放送」이 언급한 「朝·蘇關係」를 한 예로 본다.

「蘇·朝關係는 맑스·레닌성 原則과 사회주의적 國際性 원칙에 기초해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

總秘書(고르바초프 서기장)는 나라의 平和統一, 군사긴장 제거를 目的으로 하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 정책에 연대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

朝鮮同志들은 소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對外政策 目的이 같다고 한 두번만 강조하지 않았읍니다.

.....

이것은 우선 아시아에서 平和를 공고히하고 全體人民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核軍縮을 달성하는 것입니다.」<sup>54)</sup>

現在까지 나타난 여러가지 間接資料에 의하면 아직도 북한은 고르바초프의 對亞·太平和攻勢戰略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一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 같은 現狀은 1984년 5월의 「朝·蘇頂上會談」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北韓의 입장이다.<sup>55)</sup> 다시 말해서 蘇聯의

---

註 54) 「모스크바放送」, 1987년 12월 30일 “蘇·朝親善과 協助”, 「공산권 방송」(국가안전기획부), 1987.12.31, 제2497호, pp.34~37에서 要約 함.

55) 그 當時 체르넨코 서기장과 김일성의 만찬연회석상연설을 토대로 보면 北韓은 이른바 南北韓과 美國으로 形成되는 「三者會談」만을 강조했는데 反해 蘇聯은 「三者會談」에 關係 직접적인 言及을 회피하고 東北亞에서의 “신뢰구축방안”(CBMs)이었다. 仔細한 分析內容은 金裕南, “北韓·蘇聯關係의 변화”, 李洪九·스칼라피노 공편, 「北韓과 오늘의 世界」(法文社, 1986), pp.151~182 參考 바람.

對亞·太政策變化는 國內의적 “客觀的” 現實變化로 불가피한데 反해 北韓만은 1950 년대의 對決戰略을 고수하려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과 世界的인 데탕트時代 그리고 國際的인 改革·開放政策등의 全體的 체계로 보아 소련이 1988 년 서울을 olimpik大會를 절대로 不參할 수 없는 大會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의 立場인 남북한공동주최를 聲緩하면서도 쿠바와 같이 공동주최가 아닌 서울올림픽大會에 보이코트 하겠다는 約束을 피해온 것이다. 이제 蘇聯과 中國等 多數의 共產國이 서울올림픽大會에 參加를 정식통보하고 北韓과 쿠바등 소수의 國家만이 不參하게 된것이다. 이 문제를 소련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점이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對亞·太 大戰略에 의하면 韓半島問題(즉 우선적으로는 對北韓問題)가 급선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1985 년 11 월이래 1988 年末까지 모두 4 번에 걸친 동북아에 관한 美·蘇年例協議會(第3 세계에 관한 全般的인 현안을 다룸)에서 美·蘇는 주로 아프간問題와 한반도문제를 重點的으로 協議하였다고 한다.<sup>56)</sup> 그러나 結局 北韓의 대남정책은 서울올림픽 보이코트의 경우처럼 그리고 KAL 858 機 爆破테러行爲가 보여준 것처럼 고르바초프의 「開化된 關係」에로의 改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蘇聯의 立場에서 보면 지금처럼 忠誠스럽고 理知的인 北韓의 協력이 必

---

註 56) 1988 년 1.월중순 美國務省 소련담당 부차관보 Thomas Simons 와의 私談에서 그는 서울올림픽문제등을 둘러싼 韓半島잇슈가 美·蘇會談의 큰 몫을 했다고 이야기했으며 韓半島問題討議때 남북한 參觀인의 參席을 제의한 本 교수의 말에 보다 많은 多者形態(南北韓以外 더 많은 參觀國 包含)로는 가능하다고 答함.

要한 때가 없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全般的인 외교정책 哲學과 蘇聯의 改革·開放政策의 외교적 수단으로 보아도 그는 南北韓을 實存하는 두개의 國家로 인정하는 「두개의 韓國」政策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유럽에서 東獨이 蘇聯에게 충실하고도 이지적인 從屬國 이듯이 蘇聯은 북한도 「極東의 東獨」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다.

여러가지 面에서 동독과 蘇聯關係는 「特別한 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東獨은 군사적으로 소련의 對西歐 전초지인 同時에 정치·외교·경제적으로 는 東獨이 蘇聯의 對西方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1975年 소련은 헬싱키 協約으로 인해 「두개의 독일관계」를 正常化시키고 따라서 발칸半島를 안정시켰다. 이제 소련은 亞·太會議를 통해 아시아에서 새로운 協約(多者協約)을 얻고 한반도를 안정시키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北韓의 대 소협력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른바 「朝·蘇特別關係」는 최소한 西紀 2000年을 통한 고르바초프의 構想일 수 있다. 現在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최소한 두가지 先行條件 가운데 한가지는 成就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韓國의 「北方政策」이 소련의 서울올림픽大會 參加로 무르익어갈 단계에 왔다. 이는 蘇聯이 1969年 맞이했던 西獨의 「東方政策」과 같은 環境條件으로 韓國의 「北方政策」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1972년의 뮌헨올림픽大會가 1975년의 헬싱키 協約으로 가는 主要한 西獨의 올림픽外交였다. 같은 맥락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大會는 蘇聯이 추구하는 2000年代의 아시아·태평양시대와 혹은 가상해서 「히로시마 協約」<sup>57)</sup>과 같은 외교적 결실을 可能케하는 契機가 될 수 있을

---

註 57)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블라디보스톡 宣言」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회담 場所로서 최초의 원폭으로 희생당했던 히로시마(Hiroshima)가 적격이라고 함.

것이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고르바초프의 원대한 構想은 北韓이라고 하는 變數가 統制될 수 있는 要素일 때만 가능하다. 北韓은 소련의 아시아重視政策에서 平壤의 위치와 비중을 잘알고 있으리라 믿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 동안 지연되어온 蘇聯의 對北韓 군사·경제지원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즉 北韓은 1975년부터 蘇聯으로부터 MIG-23機와 SA-3 地對空미사일, 그리고 SCUD - B型 地對空미사일 등을 要求해 왔다.<sup>58)</sup> 그러나 진정 蘇聯이 이러한 新型武器를 北韓에 실지로 제공한 것은 이들이 이미 「舊型」이 되었을 때이다.<sup>59)</sup>

本 研究는 1985년 이후부터 북한에 제공된 이른바 新型武器는 그것도 金日成과 체르넨코(당시 書記長)가 駐韓美軍은 북한뿐 아니라 소련의 極東地方의 安保威脅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른바 아시아의 “準NATO” 라고 하는 「美·日·韓 三角軍事體」의 위협이 존재한다는데 意見을 一致한 다음에 생긴 일이다.

本 研究의 主張은 진정한 意味에서의 「蘇·北韓特別關係」는 아직도 存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時代에 蘇聯이 바라는 「朝·蘇協力」은 改革主義的 北韓, 開放主義的 北韓, 그리고 共存的 北韓을 意味한다. 이는

---

註 58) 북한 最近武器體制에 關係서는 「Pacific Threat Digest」(Intelligence Center Pacific), August 1987, pp. 10~16 參考.

59) 1985년경 韓國은 이미 F-16 C/D機 반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駐韓美軍은 이미 F-16機를 보유하고 또한 랜스(Lance)미사일을 소유하고 있을 때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북한에 MIG-23機와 SCUD B型미사일을 제공한 것은 新型武器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다. Harry Gelman and Norman D. Levin, 「The Future of Soviet-North Korean Relations」(RAND Corporation/U.S. Air Force, 1984), p.5 參考바람

金日成의 대남공산화통일정책과 正面으로 위배됨은 물론 金日成唯一思想으로 體系화된 북한의 政治文化에 적응될 수 없다. 오로지 可能的 경우란 김일성의 死亡과 同時에 김정일을 除去시키고 새로운 改革主義리더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蘇聯은 자신의 對아시아관계와 그리고 對北韓關係 실제를 생각하며 건설하게 雙方이 모두 함께 아시아에서 成長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리라는 것이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그러한 비존을 가지고도 남을 새로운 形態의 소련의 지도자이다. 이러한 視角에서 볼때 蘇聯은 韓·美關係를 부러워할 것이다. 소련은 韓·美關係의 여러 次元을 알고싶어 한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形態의 「朝·蘇同盟關係」는 고도의 정치·외교·경제적 融通性을 要求한다고 해서 모두가 「開化」의 肯定的 要素만을 지닌 「평화·안정·공존」의 보따리만이 아닐 것이다. 東北亞에서의 소련이 바라는 북한은 이 지역에서의 蘇聯의 안전보장과 直結된다. 그럴수밖에 없는 까닭은 超強大國이 地域內的 弱小國과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理由가 國益中 最優先順位에 있는 地域 安保問題를 心中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 위가 될수 있는 洗練된 「朝·蘇同盟體制」는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말대로 包括的 安保개념이다. 경제안보·문화안보·외교안보등은 모두가 軍事安保의 機能的 屬性들이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그러한 包括的 安保協力을 북한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다. 1976년 10월에 最初로 시작된 「朝·蘇海軍合同訓練」은 1987년 10월에도 있었다. 이번에는 海軍뿐 아니라 空軍이 포함됨으로써 그 規模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입장에서는 美國이 해마다 日本自衛隊와 그리고 韓國軍과 合同訓練을 하는限 그러한 「朝·蘇合同訓練」이 매우 自然스럽다고

할 것이다.<sup>60)</sup>

---

註 60) 本 研究가 알고 있는 間接資料에 의하면 1986년 10월 合同訓練에는 10餘隻의 軍艦이 참가한데 反해 1987년 10월 합동훈련에는 15餘隻의 군함과 약간의 항공기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 Ⅸ. 結 論

「朝·蘇關係」를 고르바초프時代に 크고 긴 눈으로 보아야 한다. 요사이 平壤 - 모스크바間에 人的交流가 증가하고 모스크바의 對北韓發言이 잦아졌다고 알고 있다. 서방은 소련의 貨物들이 蘇聯의 극동연해주로부터 소련극동해군회사 소속의 船舶들에 의해 北韓의 羅津, 淸津, 元山, 咸興등의 동해안의 항구는 물론 西海岸의 海州, 南浦등에 이르는 여러항구에 入港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表面的 긴밀성을 지나서 깊게 파고들면 그 內面에는 「朝·蘇關係」의 심상치 않은 갈등이 있다.<sup>61)</sup> 한가지 분명한 것은 北韓이 最近 소련으로부터 改革과 開放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압력은 中國으로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받아오고 있었다.

1987년 한해를 회고하고 청산하는 蘇聯의 모스크바 放送은 고르바초프의 新年辭를 걸드려 「새해는 蘇聯에서 改編(改革)의 새 단계가 始作되는 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라앞에는 사회를 가일층 民主化하며, 경제를 根本적으로 개편하는 호 상연관된 두가지 課業이 나서고 있다.

.....

正月 초하루부터 대다수의 國營기업소들이 完全 독립채산제, 자주투자제, 企業自治制의 조건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고르바초프 동지는 소련사람들이 改編(改革)의 길에서 새로운 큰 措置를

---

註 61) Robert A Scalapino, "Soviet Influence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in the Coming Decade : Part I", 「ADELPHI PAPERS」 # 217, Spring 1987 (I I S S), pp.27 ~ 34 參考함.

취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각자의 生活이 改善되고 物質的으로나 정신적으로 풍부화 될것이라는 確信을 表示했습니다.」<sup>62)</sup>

그러나 같은날 北韓의 放送「朝鮮中央放送」은 고르바초프의 新年辭를 報道하면서 전혀 「改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사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新年辭內容의 핵심은 「페레스트로이카」(改編)이었다. 그런데 북한방송이 핵심적 要旨를 삭제하고 부차적인 言及만을 보도했다는 것은 지금 北韓이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으로 國內的인 불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해 준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北韓의 「朝鮮中央放送」이 1987年을 마무리하는 방송내용에는 「黨의 衛業계승에서 基本은 後繼者問題」라는 이른바 金正日後繼問題만을 강조하고 있었다.<sup>63)</sup>

올해도 金日成의 新年辭는 1987年의 新年辭와 비교해서 조금도 和解的이지 못하다. 對南政策에서 상투적인 「南北韓 連席會議」란 南韓側이 주장하는 기존 諸會談의 再開를 피하고 다만 서방세계를 向한 弘報的 目的으로 판에 박은 말을 되풀이할 뿐이다. 한가지 새로운 바가 있다면 美·蘇間의 중·단거리핵군(INF) 撤廢協定을 肯定的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蘇聯의 平和攻勢를 意識하여 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의 死亡以前에도 고르바초프는 북한으로 하여금 점차 蘇聯의 「새로운 思考」(New Thinking)<sup>64)</sup>를 理解할 수 있도록 하는 점진

註 62) 「모스크바 放送」, 1988년 1월 2일(고르바초프 新年辭), 「공산권 방송」(안전기획부), 1988.1.3, p.36 인용함.

63) 「조선중앙 放送」, 1987년 12월 31일(黨의 위업계승에서 기본은 후계문제), 「북한방송」(안전기획부), 1987.12.31, p.15 인용함.

64)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추구하는 「페레스트로이카」政策은 현실에 부합되는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새로운 思考」(Novoye Razmyshlenie)라고 한다. 仔細한 내용은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New York: Bessie/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1987), pp.3-4 參考함.

적 接近을 시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本 研究의 견해는 그렇게 할것이라고 믿는다. 코르바초프는 于先 金日成이 원하는 軍縮과 경제원조를 加速化한 다음 北韓으로 하여금 對外的인 융통성을 지니도록 하는 部分的 개방정책을 要求할 것이 주어진 狀況에서 매우 가능하다. 蘇聯은 블라디보스 特市の 자매도시인 北韓의 元山을 同時에 開放하는 등의 「朝・蘇協力」을 주도함으로써 북한에게 有益한 외교적 役見人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편 그러한 過程을 통해서 蘇聯은 北韓으로 하여금 사실상 美國과의 對話와 接觸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機會가 있을때마다 「三者會談」을 言及하지만 蘇聯은 中國의 중개로 이루어질 南北韓과 美國으로 하는 三者會談을 분명하게 언급하거나 支持해 본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美・蘇間 워싱턴頂上會談의 결과 서로가 緊密한 協力關係로 발전함에 즈음해서 蘇聯은 자연스럽게 美・北韓 關係改善을 증용할 수 있게 되었다.

北韓의 金永南 外交部長이 모스크바를 訪問할 당시의 發言 등에서 북한이 「社會主義의 東方前哨地를 防衛」(Defending the Eastern Post of Socialism) 한다는 表現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最近에는 소련의 볼셰비키革命 70週年 紀念行事에 북한의 特使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朴成哲 副主席이 蘇聯에 稱성하겠다는 發言을 했다.

「朝鮮勞動黨과 조선인민은 蘇聯의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國際共產主義運動과 그리고 世界革命에 기여하는 것을 고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한편 그러한 우리의 努力은 帝國主義의 종주국인 美國帝國主義와 正面으로 맞서서 對抗함으로써 平和와 社會主義 東方前哨를 견고히

防衛하는 일이다」<sup>65)</sup>

그런가 하면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外國의 祝賀客들 앞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21년 레닌의 「新經濟政策」(NEP)를 찬양하면서 「社會主義建設은 世界的 그리고 社會的 條件이 다른 環境에서도 적응하며 勝利할수 있는 새로운 思考」<sup>66)</sup>를 要求한다고 했다. 朴成哲은 소련에게 1950年代型의 사회주의적 연대성과 忠誠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客觀的 狀況의 變化”에 따라 適應할줄 아는 理智的이고 지각있는 “社會主義建設”과 소련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北韓은 1983年 랑군폭파암살사건을 저지르고 國際輿論을 의식한 나머지 對南協商을 제의한 바 있다. 이번에도 1987年 KAL 858機 폭파테러행위 다음 세계의 여론이 두려워 對南協商을 또다시 제기해 왔다. 1983年 소련공군기에 의한 KAL 007機를 피격할 당시 고르바초프는 書記長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KAL 858機 事件은 그에게 적지않은 外交的 負擔이 되고 있다. 이번에 蘇聯이 서울올림픽大會에 大舉參加하면서 北韓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고르바초프는 南北韓間에 에스칼레이트되고 있는 緊張高潮 狀態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東北亞에 位置한 모든 나라가 相互信賴構築 方案을 包含한 평화합의를 즉시 개최해야 한다는 現實的 名分과 科學的 根

---

註 65) 위의 引用文은 英文으로부터 번역된 것임으로 우리말 表現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DPRK Pak Song-chol Speaks”, 「Daily Report : Soviet Union」(FBIS)#216, Nov. 9, 1987, p. 52.

66) “Gorbachev Addresses 4 November Meeting”, 「Daily Report : Soviet Union」(FBIS), #213, November 4, 1987, p. 22 參考함.

據를 發見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北韓의 만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代身 이를 平和會議開催의 客觀的 구실로 받아들일 可能性이 높다.<sup>67)</sup>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對亞·太構想속에서 그의 對北韓構圖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다소의 굴곡이 있으나 長期的으로는 「朝·蘇特別關係」가 극히 필연적으로 전망된다. 그 시기가 서기 2000年代初라고 해도 좋다. 「朝·蘇特別關係」란 알기쉽게 말해서 오늘의 한·미관계처럼 開化되고 先進化된 파트너쉽關係이다. 한가지 분명치 않은 것은 그때쯤 韓·美關係가 지금보다는 낮은 水準으로 군사화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根幹的 安保體制가 永續하면서도 주한미육군은 철수되는 狀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水準에서 「朝·蘇軍事關係」도 가능하리라 본다.<sup>68)</sup> 그렇게 될수있는 唯一한 상황은 北韓에 새로운 리더의 登場이다.

그러한 2000 년대를 위해 소련은 南北韓關係가 于先 경제분야에서부터 서로가 교류하고 協力하는 基本問題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이와같은 언질은 소련을 訪問하는 西方學者들로부터 흔하게 전해들은 이야기이다. 이를 추려

---

註 67) 北韓이 한국에 對해 테러행위를 저질렀을때 美國과 蘇聯은 超強大國의 立場에서 이를 世界戰略的 (Globalistic)으로 해석하고 사건발전의 전망을 스스로의 安保問題와 연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蘇聯이 北韓을 몰아부치지 않아도 美國은 韓國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問題를 擴大하려하지 않는다. 여기에 超強 (Super Power)의 公同심리가 작용한다.(Condominium).

68) 美·蘇는 第3世界問題를 놓고 상호 협의·협력하는 데탕트時代가 있다. 1990 년대이후 蘇聯의 「太平洋時代」와 美國의 「環太平洋時代」가 和解하는 경우 韓半島를 비롯한 亞·太地域이 政治-經濟-文化의 中心部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측은 蘇聯科學아카데미산하 「美國·카나다研究所」 A. V. 코르네예브 (Korneyev) 博士가 1987년 9월 私席에서 한말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서 간단하게 要約한 蘇聯의 立場은 다음과 같다.

①오늘날 韓半島에는 그 성격과 構造上 각기 다른 두개의 經濟모델이 存在함으로써 서로가 補完의 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②南北韓의 經濟協力은 우선 韓國人의 宿원인 統一을 앞당기는데 대한 政治적 效果로 발전될 수 있으며 따라서 經濟交流는 現 政治的 現象(두개의 政府)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③北韓이 자본주의 國家들과 交易 및 경제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現實인바, 南北韓 經濟交流는 미국을 包含한 기타 자본주의국가에 北韓이 進出하는데 용이하다.<sup>69)</sup>

끝으로 이러한 蘇聯의 對韓半島觀을 理解하는데는 고르바초프 書記長의 말대로 어떻게 해서 「새로운 思考」로 世界를 보게 되었나 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美國의 NBC-TV放送局의 부로코우(Tom Brokow)와의 텔레비전·인터뷰에서 그가 美國訪問 1週日을 앞두고 蘇聯이 추구하는 軍縮會談과 東·西和解體制는 소련이 안고 있는 經濟問題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事實을 숨기지 않았다.<sup>70)</sup>

같은 맥락에서 韓半島(南北韓)問題를 새로운 사고로 해결하겠다는 고르바초프의 戰略도 蘇聯의 시베리아開發과 極東沿岸地方의 産業基地化 그리

---

註 69) 여기에 要約된 內容은 國土統一院 資料管理局이 제공한 다음의 文獻에 기반한 것이다. G. D. 토로라야(Torolaya), 「極東의 諸問題」 1987年 1호, (南北韓 經濟協力の 展望)(소련과학아카데미 산하 極東研究所).

70) "Gorbachev", An Interview With Tom Brokow (NBC-TV), December, 1.1987.

고 궁극적으로는 蘇聯의 經濟安保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有利하게 作用될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의 經濟力과 技術이 소련의 시베리아開發과 그리고 極東沿海州地方의 産業化에 어느나라보다 좋은 條件이다. 韓國은 中進國이기 때문에 日本처럼 지배적인 영향력을 두려워할 必要가 없고 競爭力에 있어서도 日本을 능가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對韓接近은 그리 性急한 것이 아니다. 서울올림픽大會에 大舉參加한 이후에도 意味있는 文化·經濟 交流으로 발전하려면 數年이 더 걸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蘇聯은 먼저 南北韓間의 關係改善을 要求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고르바초프의 「朝·蘇特別關係」樹立이 장기적인 對東北亞同盟政策의 디딤돌이기 때문이다. 소련은 北韓이 永遠한 弱體社會主義國家로 남아있는限 南北韓關係 正常化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韓國의 對蘇政策(北方政策)은 장기적으로 「朝·蘇特別關係」를 展望하는 「새로운 思考」(New Thinking)를 要求한다.





## IV. 韓國의 對蘇接近方案 摸索

—最近 蘇聯의 對內外政策 動向과  
對韓視角의 分析을 中心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教授 奇連洙



# 目 次

I. 序 論	185
II. 對內政策 動向과 對外政策	189
A. 相互連繫와 非連繫	189
B. 對內改革과 對外與件	195
III. 對外政策 動向과 對韓政策	203
A. 對外政策 動向	203
B. 蘇聯의 對韓政策	207
1. 蘇聯의 對極東 認識	208
2. 韓半島 周邊의 狀況	210
3. 蘇聯의 對韓政策	218
IV. 對蘇接近方案 摸索	225



## Ⅰ. 序 論

오늘날 고르바초프書記長의 집권체제로 굳어지고 있는 소련의 최고 권력층은 이미 단순한 엘리트의 세대교체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정책 수행에 있어서 對內外的으로 커다란 改革의 變化를 추구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세계 여러 전문가·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러나 比較史學的 歷史發展의 단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비록 革命에 의한 變化일망정 變化란 결코 총체적일 수는 없는 것이며 언제나 持續的인 요소들의 바탕 위에서 서서히 또는 급격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本稿는 시종 유의할 것이다.

사실 지난 1985년 3월 전세계 뉴스의 각광을 받으며 미하일·고르바초프가 蘇聯共產黨 書記長의 자리에 올랐을 당시 서방세계의 시각은 한마디로 크레믈린이 새로운 改革의 바람에 휩싸이게 될 것이며, 국제정치기상도에도 對內政策과의 連繫的 선상에서 세찬 평화공세의 비람을 물고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즉 고르바초프書記長의 소련은 브레즈네프時代 말기의 동맥경화증적 對內外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해 對內改革을 추진하고, 對外的으로는 對內改革을 위한 對外與件을 마련하기 위해 西歐와 美國, 아시아를 향해 적극적인 平和攻勢와 더불어 對中國和解政策을 펴나가게 될 것이라고 서방측은 전망하였다.

과연 이미 집권 3주년을 넘어 선 고르바초프는 黨書記長 취임 이래로 가히 정열적이라 할만한 對內改革의 추진, 對美軍縮協商 및 對아시아·太平洋平和政策 등으로 전세계 뉴스의 초점이 되어 왔다. 특히 對外政策에 있어서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톡宣言을 통하여 앞으로는 소련이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대해 보다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강력히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美·日·中·蘇 등 4強이 둘러싸고 있는 地政學的 중심지로서의 韓半島 문제는 이제 南·北韓 당사자에게는 물론 주변 4強에게도 보다 더 可視的이며 現實的인 문제로 다가서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국제정치기류 및 소련의 對아시아·太平洋政策의 움직임 속에서 최근 韓國은 아시아·太平洋地域의 중요한 정치·경제발전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정치·경제발전의 부진에 따른 對內的 어려움(특히 88서울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문제까지를 포함하여)과 이에 따른 對外孤立으로 인하여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韓國으로는 보다 더 여유있고 아량있는 입장에서 구체적이고도 획기적인 對北韓 및 對北方政策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기회에 소련에 대해 능동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함으로써 南·北韓의 관계개선은 물론 앞으로의 南北統一에 관한 문제까지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동적인 對蘇接近方案의 모색과 실현은 또한 韓國 자신의 국가안보는 물론 국력신장과 국가위신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本稿는 이상과 같은 기본시각을 바탕으로 「韓國의 對蘇接近方案 摸索」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제Ⅱ장에서는 소련에서의 對內外政策 사이의 相互連繫, 非連繫의 문제와 더불어 최근 고르바초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對內改革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外交政策이란 國家目標 달성을 위한 對內政策의 對外的 연장으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주지의 사실 때문이다. 특히 相互連繫의 정도에 있어서 최근

고르바초프의 對內改革 시도가 오늘날 소련의 새로운 對外政策 실시에 매우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제Ⅲ장에서는 최근 소련의 對外政策 동향이 어떤 것이며, 이는 對內改革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항목을 달리하여 새로운 對世界政策의 시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련의 對極東 및 韓半島 周邊 狀況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소련의 對韓政策 실상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것은 곧 넓게는 소련의 對世界政策 동향, 좁혀서는 韓半島를 圍繞하고 있는 美·日·中·蘇 4強의 역학관계에 대처하는 소련의 태도를 통하여서만이 소련의 對韓視角은 분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제Ⅳ장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Ⅱ, Ⅲ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韓國의 입장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對蘇接近方案을 정치·외교·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해보고자 노력하였다.

本 研究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연구진행을 위해서 소련의 對內外政策에 대한 공식노선을 천명, 발표, 전달한다고 볼 수 있는 「프라우다(Правда)」와 이즈베스찌야(Известия)」 그리고 소련의 對아시아·太平洋政策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는 소련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간행 학술지 「極東의 諸問題(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를 주된 1차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 밖에 소련 학자들의 저서도 1차자료로 사용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1차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 validity ), 신뢰성( credibility ), 신빙성( reliability )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연구자 자신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명백한 기준을 설정하여 구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연구자로서는 脈絡的 分析( contextual an-

alysis ), 通時的 分析 ( overtime analysis ) , 및 가급적 다양한 媒體源 ( various sources of media ) 을 통한 자료인용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 II. 對內政策 動向과 對外政策

### A. 相互連繫와 非連繫

어느 나라의 경우나 對內外政策이 相互連繫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당해국가의 外交政策 수행이 곧 그 국가의 國家目標 (National goal) 또는 國家利益 (National interests)의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는 서방세계는 물론 소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政權 수립 이래 오늘날까지 소련의 학자들이나 소련 당국은 外交政策을 논할 때 國家利益의 경합 및 勢力均衡 (Balance of power) 정책은 무시하는 듯한 非連繫的 입장을 수시로 강력히 보여왔다. 즉 勢力均衡이 아닌 勢力關係 (Correlation of forces)가 역사적 필연성 속에서 소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리라는 신념과 함께 이데올로기적 理想 (소련과 전세계에 共產主義 사회 건설)을 내세우면서 그들 자신만이 資本主義 국가들과는 달리 世界平和를 위한 對外政策을 펴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동체 제국가의 對外政策은 노동자 계급과 다른 여러 근로자 계급 및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사회주의 제국가의 外交政策은 社會主義的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平和

---

註 1)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 A Framework for Analysis*, 3rd ed.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1977), pp. 145~162 ; Charles O. Lerche and Abdul A. Said, *Concepts of International Politics*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1964), pp. 5, 16 ; В.Л. Нихамин и др.,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М. : Политиздат, 1985), с. 18~43.

共存의 원칙 위에서 수립된다. ……….

자본주의 제 국가의 對外政策은 독점적인 부르조아 계급의 국제적 지위의 유지와 강화를 지향하며, 社會主義와 革命的民族解放運動의 반대를 투쟁 목표로 한다. 국제긴장을 야기하고, 국지적인 무장분쟁을 일으키며, 팽창주의적이고 침략적인 外交政策 수행은 帝國主義 諸國家의 본성이다.”<sup>2)</sup>

社會主義 外交政策에 대한 이상과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소련 역시 실제에 있어서 對內外政策이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소련 당국이나 소련의 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와 대비시킨 사회주의 국가의 對外政策 특성을 앞서와 같이 밝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對外政策이란 계급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국가의 對內政策과 끊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sup>3)</sup> “소련의 對外政策은 소련에 共產主義를 건설하기 위한 유리한 國際的 與件을 확보하고 소련의 國家利益을 보호하는 것이다”<sup>4)</sup>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소련의 주장은 對外政策을 통한 國家利益의 추구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통한 共產主義의 건설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합리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本項에서는 현재 소련에서 추진중인 諸改革의 핵심을 이루는 經濟改革과 관련하여 相互連繫와 非連繫의 문제를 논해보고자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찰이 되겠지만,

---

註2) A. A. Громько и др., ред.,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т.1, 4-ое изд.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84), п.р.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3) Там же.

4) 現行 蘇聯憲法 제 28 조

오늘날 소련에서의 對內改革의 중심인 經濟改革의 목표는 사회·경제발전의 촉진이며, 사회·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최종목표는 소련에 共產主義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5)</sup> 즉 소련의 對內經濟改革이 對外與件의 조성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소련에서 추진중인 사회·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한 經濟改革이 사회주의의 祖國이라는 소련에 共產主義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소련 자신만의 國家利益의 추구를 위한 것이든, 이것이 對外與件의 조성을 필요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經濟的 自立主義 ( autarky )와 相互依存 ( interdependency )의 문제이다.<sup>6)</sup>

自立主義란 기본적으로 세계경제 체계를 社會主義와 資本主義라는 두 경제체제간의 대치관계로 규정하면서 양자는 서로에 대해 相互協力的 價值中立의 입장에 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환언하면 소련에 의한 西方技術의 도입이나 蘇聯 經濟의 對西方 개방화는 소련사회 내에 서방의 정치·경제 및 이데올로기의 침투를 가져와 소련체제 자체의 존립에 커다란 피해를 줄 것임으로 對外政策에 있어서도 對內經濟改革을 위한 對外宥和보다는 對外政策과 무관하게 對外強硬의 입장에서 歷史的 必然性에 따라 유리한 勢力關係 ( correlation of forces )를 확보하자는 태도이다.

결국 自立主義의 입장은 서방, 특히 미국을 이데올로기상의 심각한 敵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相互依存的 經濟協力이나 緊張緩和, 또는 平和共存 등은 오직 共產主義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그때그때

---

註 5) Правда, 26 февраля 1986 ( 제 27 차 黨大會 고르바초프書記長의 政治報告 ) ; Правда, 7 Марта 1986 ( 제 27 차 黨大會 黨綱領 新編 )

6) 安澤源, 「新蘇聯政治論」 ( 서울 : 博英社, 1987 ), pp.249 ~ 365.

곧 청산해야만 하는 전략·전술일 뿐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自立主義는 근본적으로 정치·경제관계는 물론 對內外政策 관계에 있어서도 非連繫를 지향하는 입장인 것이다.

帝國主義의 본성은 변화될 수 없다……帝國主義가 잔존하는 한, 戰爭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平和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언제나 소련과 帝國主義間的 모든 분야에 걸친 제휴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련을 감히 침범하려는 모든 침략자들을 엄단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만이 제고될 수 있다.<sup>7)</sup>

한편 相互依存的의 입장은 소련에 의한 西方技術의 도입이나, 蘇聯經濟의 對西方 개방화는 과학기술 혁명이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필연의 단계로 등장한 현대세계에 있어서 경제의 國際化와 더불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서간의 경제적 경쟁에 있어서 질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소련으로는 相互破滅이 분명한 核·宇宙戰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의 정착으로 相互依存的 經濟協力을 추진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相互依存的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自立主義와는 달리 정치·경제관계는 물론 對內外政策 관계에 있어서도 相互連繫를 지향하는 입장인 것이다.

데탕트를 와해시키려는 反動的 帝國主義 勢力들( reactionary imperialist circles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적대적 체제( the two opposing systems )에 속한 국가간 협력

---

註 7) Ye Rybkin 의 論評記事. Military Historical Journal ( January, 1977 ) ; Soviet World Outlook, Vol.2, No.2 ( February 15, 1977 ), P.10. 安澤源, 前掲書, P. 333 에서 再引用

은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國際  
緊張의 緩和( relaxation of international tensions )를 증진  
시킨다 …… 데탕트는 東·西經濟 교류를 촉진시키는 한편,  
이같은 經濟交流은 다른 한편으로, 국가간의 平和關係를 강  
화시키는 것이다.<sup>8)</sup>

對內外政策간의 相互連繫·依存의 입장은 오늘날 經濟發展이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로 되어 있는 소련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정  
책적 선택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소련은 對西方 經濟協力 및 宥和政策  
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 기상도가 불  
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勢力關係( correlation of forces )가 자신들에게 유  
리하게끔 전환되도록 對外政策을 전개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非連繫·  
自立主義 주장은 자본주의의 위기는 역사적 필연성인 것이며, 소련의 국가  
안보와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은 소련의 경제발전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對  
西方 經濟協力的 추진이나 對外宥和政策보다는 정치·경제의 非連繫的 입장  
에서 對外強硬策을 펴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정책 실시  
있어서 相互連繫와 非連繫의 입장을 보다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 양자  
간의 관계는 國家利益의 추구하고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변증  
법적 발전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련의 對內外政策의

---

註 8) O. Bogomolov, " Economic Relations between Socialist and Capitalist  
Countries , " Mirovaia ekonomika i mezhdunarodnye otnoshniia , 1980 ,  
No.3. 이 論文은 Soviet and Eastern European Foreign Trade , Vol.  
17, No.3 ( Fall 1981 ), PP. 65 ~ 66 에 全文 英譯되어 있음. 安澤源,  
前掲書, P. 343에서 再引用.

수행이 일관되게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非連繫・自立主義의 입장인 것 같으면서도 그 근저에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합리화 되는 현실적인 國家利益 추구의 相互連繫・依存主義가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나라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면(주로 오늘날과 같은 經濟改革의 필요성에 의해) 소련의 相互連繫・依存的 입장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어디까지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시적 강조를 저변에 담고 있다.

사회주의는 국가간 정치적 및 경제적 모순, 사상적 분쟁에 대한 해결의 수단으로서 戰爭을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무기와 폭력이 없는 세계, 각각의 人民이 발전의 길, 자기 생활양식을 자유롭게 택하는 세계—이것이 우리의 理想입니다. 이것은 共產主義思想의 人道主義, 그의 도덕적 가치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核危險, 軍備競爭을 반대하며, 전반적인 平和를 보존 및 공고화 하기 위한 투쟁은 黨이 세계무대에서 앞으로 실시할 사업의 기본방향이 되는 것입니다.<sup>9)</sup>

---

註 9) Правда, 26 февраля 1986, С.7 (제 27 차 黨大會 코르바초프書記長의 政治報告).

## B. 對內改革과 對外與件

소련의 勤勞者들이여! 사회생활을 쇄신시킬 페레스트로이  
까(Перестройка)의 革命的 事業을 창조적으로 성취합  
시다.<sup>10)</sup>

오늘날 소련의 對內政策 동향은 “革命的 黨, 그것은 곧 페레스트로이까의 黨이다”<sup>11)</sup>라고 고르바초프書記長이 주장하고 있듯이 한마디로 페레스트로이까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이는 서방세계에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거센 열풍으로 불췌비끼革命 70주년을 맞이한 소련방 전역을 뒤덮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書記長의 집권 이후 같은 해 4월 黨中央委員會 總會(Апрельский Пленум)를 시발로 오늘날까지 출판된 黨機關紙 프라우다(Правда a:진리, 진실)는 물론 이즈베스찌야(Известия :보도, 소식) 그리고 黨의 對內外政策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學術誌들인 共產主義者(Коммунист), 經濟의 諸問題(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й), 極東의 諸問題(Вопрос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등을 살펴보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열풍의 강도가 점점 촉진·심화되고 있음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까(перестройка)라는 러시아어는 원래 어떤 행위의 변경, 반복, 再開始 등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 페레(Пере-)와 건축, 編成, 조직 등의 의미를 지닌 명사 스트로이까(стройка)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재

---

註 10) Правда, 11 октября 1987, с.1 (10월 社會主義 大革命 70주년 기념을 위한 蘇聯共產黨 中央委員會의 호소문중에서). 강조점은 필자의 것임.

11) правда, 14 октября, 2 ноября 1987.

건, 개혁, 재조직, 재편성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이 용어는 오늘날 소련 사회에서 社會主義的 體制의 근본 골격은 원래대로 유지한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改編을 단행함으로써 소련의 사회, 경제 발전을 보다 능률적으로 촉진시키고자 하는 거국적 改革運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改編運動은 특히 경제운용과 그 구조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두고 [사회·경제발전의] 촉진이라고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經濟成長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성장의 새로운 질, 즉 과학기술의 진보, 경제의 구조적 페레스트로이카(改編), 관리, 조직, 노동에 대한 자극의 효과적인 제형태의 기초 위에서 生産을 부단히 집약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sup>12)</sup>

한편 이와 같은 對內政策의 改革 열풍속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더불어 同伴者的 運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글라스노스트(гласность)이다. 이 용어는 알리다, 진술하다, 말하다라는 러시아어 동사 글라시찌(гласить)의 명사형으로公表 또는 公開라는 의미이다. 또한 목소리, 의견, 투표, 發言(權)등의 의미를 가지는 골로스(голос)라는 말과도 어원을 같이 한다. 말하자면 오늘날 소련의 改革政策에서 글라스노스트(公開)란 소비에트 政權 수립 이래로 레닌을 제외한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의 시대를 거치면서 누적되어 온 개인 숭배를 위한 강압정치, 관료주의로 인한

註 12) Правда, 26 февраля 1986, с.3. 강조점은 필자의 것임.



폐쇄·비밀·비능률적 비합리와 과오를 국민에게 솔직히 시인·公開하고, 이를 토론에 붙여 광범위하게 輿論을 수렴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對內政策의 각분야에 걸쳐 民主化( демократизация )를 이룩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발전을 촉진시켜보겠다는 것이 본래의 의미라 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의 글라스노스트는 특히 정치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글라스노스트(公開)의 확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원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政治에서의 문제입니다. 글라스노스트 없이는 民主主義, 대중의 정치적 창조, 관리에 대한 그들의 참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을 되는데로 하며 눈가림식으로 일하는데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國家에서와 社會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 人民의 統制( контроль народа ) 아래, 人民의 면전에 있는 글라스노스트의 조건이 불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글라스노스트를 부단히 작용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sup>13)</sup>

이상과 같이 오늘날 소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對內改革 동향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바탕으로 經濟改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게끔 정치·사회적 民主化를 달성하여 사회·경제발전을 촉진시켜보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재개혁의 시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디로부터 연유하는 것일까? 그것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나타난 오늘날 소련

註 13) Правда, 26 февраля 1986, с.7. 강조점은 筆者의 것임

의 사회, 경제발전 모습이 초기 革命家들의 理想이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데로 부터 기인한다. 즉 스탈린의 절대권력적 개인숭배와 黨까지에 대한 君臨, 강압적 집단화 정책과 급격한 중공업 우선 정책, 제 2 차 세계대전을 통한 소비니즘적 愛國主義 등은 국민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희생을 강요함과 동시에 民主主義 規範의 완전한 파괴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나라가 상당한 經濟發展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훗날 사회·경제발전이 정체되고 침체되는 길을 걷게끔 하였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과오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으나 강경, 보수파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였고, 스스로는 주관적인 主意主義를 자행함으로써 스탈린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경제부문에서는 더욱 커다란 침체를 가져왔다. 브레즈네프의 경우도 두 전임자들의 통치결과로 인한 사회·경제발전의 침체 상태를 개선시키고자 코시킨首相을 통한 리베르만식 經濟改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對外軍事強硬策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였으며, 장기집권의 결과 그의 통치 말기에는 체제내에 親族登用 현상 및 官僚主義가 極度로 팽배하여 蘇聯의 社會·經濟發展은 動脈硬化症的 重症의 沈滯狀態에 빠졌다. 결국 전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회·경제발전의 만성적 침체 상태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고르바초프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혁명 초기의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지난 1986년 2월 제 27 차 黨大會 政治報告를 통해 지난날에 대한 반성, 비판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改革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蘇聯共產黨 지도부는 이룩된 것을 당당히 평가하면서 政

治 및 실천활동에서의 우리의 실책들, 經濟와 社會精神 部  
 문에서의 불리한 경향들, 그런 현상들의 원인에 대하여 黨  
 과 人民에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의무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해 동안 객관적 요인뿐 아니라 우선 주  
 관적 원인들로 인하여 黨 및 國家機關들의 실천적 행동은  
 時代며 생활 자체의 요구들로부터 뒤떨어졌습니다. 나라발전  
 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빨리 쌓였습니다. 惰  
 性, 관리형식과 방법의 침체성, 사업에서의 動的 성격의 감  
 소, 官僚主義의 만성 - 이 모든 것은 사업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침체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세는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中央  
 機關들뿐 아니라 지방들에서도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변경  
 시키지 않고 사업을 개선할까 하는 이상한 심리가 우세하  
 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무들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  
 니다. 말하자면 잠깐만 멈춰서면 심리를 떨어질 수 있습니  
 다. 성숙된 문제들의 해결을 피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입장  
 은 나라, 國家, 黨에 너무나도 큰 손해를 끼칩니다.<sup>14)</sup>

70 년대에 우리 經濟에서는 난관이 많아졌으며, 경제의 성  
 장속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소련공산당 강령에 제  
 기된 經濟發展 과업 그리고 제 9 차 및 제 10 차 5개년 계  
 획의 보다 낮은 과제들도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연간

---

註 14) Правда, 26 февраля 1986, с.2.

으로 예정된 사회강령도 완전히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과학과 교육, 보건, 주민들에 대한 文化 후생봉사의 물질적 토대의 낙후가 허용되었습니다.<sup>15)</sup>

제 11 차 5개년계획에 다수 종류의 공업품과 농산물 생산에서 蘇聯共產黨 제 26 차 대회가 예정한 경계선이 돌파되지 못했습니다. 기계제작공업, 원유 및 석탄공업, 전기기술공업, 흑색 야금공업과 화학공업, 기본건설에서 심각한 미달량이 허용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표시로 효과성 제고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과제의 수행이 보장되지 못했습니다.<sup>16)</sup>

오늘 黨과 전체 人民의 제 1 차적 과업은 經濟發展에서의 불리한 경향을 결정적으로 극복하며 그에 응당한 동적 성격을 부여하며 대중 앞에 열성과 창조, 진정한 혁명적 개혁의 廣野를 열어주는데 있습니다.

다른 도리는 없습니다. 經濟를 촉진적으로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社會綱領의 빛 좋은 개살구로만 남아있게 되는데 동무들, 그 강령은 긴박한 것입니다.<sup>17)</sup>

지금까지 고찰해온 바와 마찬가지로 고르바초프書記長이 소련의 사회·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諸改革은 그 최대의 목표가 經濟改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對內經濟改革의 최대목적은 또한 제 27 차 黨大會에서 채택한 黨

---

註 15) Правда, 26 февраля 1986, с. 4.

16) Там же, .

17) Там же.

綱領 新編 제 2 장에 언급되고 있듯이 소련에다 共產主義를 건설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다.<sup>18)</sup> 동시에 볼셰비키革命 70주년을 기념하는 黨中央委員會 호소문의 결언부분인 “蘇聯共產黨 제 27 차 대회의 革命的 레닌主義 노선으로 전진하자—소비에트 국민의 보다 더 좋은 생활을 위해 平和와 빠레스트로이까의 길로! 마르크스·엔겔스·레닌의 위대한 革命的 가르침 만세!”<sup>19)</sup> 라는 외침은 오늘날 蘇聯共產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諸改革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더욱 확실히 하여 주고 있다. 한편 1977 년 10 월 7 일 채택된 現行 蘇聯憲法 제 28 조에는 “소련방의 對外政策은 소련방에 있어서의 共產主義 건설을 위한 바람직한 國際的 與件을 확보” 하는데 있다고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1986 년 3 월에 채택된 黨綱領 新編 제 4 장에서도 蘇聯共產黨의 國際政策의 기본 목적과 방향은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사회의 완성과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을 위한 유리한 對外與件의 확보, 세계전쟁 위협의 제거, 전반적인 안정과 군비철폐의 달성에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sup>20)</sup> 이와 같은 소련당국의 입장은 제 27 차 黨大會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고르바초프書記長의 政治報告에서 더욱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동무들! 나라의 經濟 및 社會發展에 관한 기본 과업은 蘇聯共產黨의 國際的 戰略도 규정합니다. 그의 기본 목적인 공고한 平和와 自由의 조건에서 노동할 가능성을 소비에트 人民에게 보장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對外政策에 대한 黨의 선차적인 강령적 요구는 본질에 있어서 이렇습

註 18) Правда, 7 марта 1986, с.4.

19) Правда, 11 октября 1987, с.1. 강조점은 筆者의 것임.

20) Правда, 7 марта 1986. с. 7.

니다. 현 정세에서 그 요구를 실행한다는 것은 核戰爭에 대한 물질적 준비를 우선 중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社會主義는 국가간 정치적 및 경제적 모순, 思想的 紛爭 해결이 수단으로서 戰爭을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무기와 폭력이 없는 세계, 매개 人民의 발전의 길, 자신의 생활양식을 자유롭게 택하는 세계 - 이것이 우리의 理想입니다.

이것은 共產主義 思想의 人道主義, 그의 도덕적 가치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核危險軍備競爭을 반대하며 전반적 平和를 보존 및 崇高화 하기 위한 투쟁은 黨이 세계무대에서 앞으로 실시할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남아있습니다.<sup>21)</sup>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볼 때 소련의 對外政策 목표는 소련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완성단계인 共產主義 사회의 건설을 위한 對外與伴의 확보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소련에서 추진되고 있는 經濟改革을 중심으로 한 諸改革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이로써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소련에서 共產主義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음도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오늘날 소련의 對外政策은 결국 소련의 經濟發展을 위한 對外與伴의 확보, 즉 對內改革과 이를 위한 對外與伴의 相互連繫 속에서 결정되고 또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

註 21) Правда, 26 февраля 1986, с. 7.

### Ⅲ. 對外政策 動向과 對韓政策

#### A. 對外政策 動向

최근 소련의 對內政策 동향이 페레스트로이카(改編)와 글라스노스트(公開)로 대변되듯이, 오늘날 소련의 對外政策 동향은 우선 노보예·므이술레니예(новое мышление: 새로운 思考)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다. 이 노보예·므이술레니예는 흔히 “노보예·뿔리찌체스꼬예·므이술레니예(нов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새로운 政治的 思考)”<sup>22)</sup> 라고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지칭하기도 하며, “노바야·필로스피야·브네슈네이 뿔리찌끼(новая философ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對外政策의 새로운 哲學)”<sup>23)</sup> 라는 명칭으로까지 비약되기도 한다.

노보예·므이술레니예(новое мышление)란 용어는 새로운, 새롭다라는 뜻의 형용사 노보예(новое)와 생각, 思考 또는 고찰이라는 의미의 명사 므이술레니예(мышление)의 합성어이다. 이는 오늘날 소련의 對內改革, 즉 소련에서 사회·경제발전의 촉진으로 共產主義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안정된 對外與件 조성을 위해 국제정세를 보다 새롭게 인식·파악하고, 이에 따라 對外政策도 보다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전개해나가야 한다는 태도를 지칭한다. 따라서 이 용어는 前項에서 언급한 政治·經濟와 對內外政策간의 相互連繫論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對外政策에 대한, 그리고 國際政治에 대한 소련의 노보예·므이술레니예

---

註 22) Правда, 5 декабря 1986, с. 4.

23) Правда, 10 июля 1986, с. 4.

(새로운 思考)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

레닌 이후, 특히 최근 수십년 동안 역사적인 상황은 근본적으로 모습이 바뀌었다. 우리는 核·宇宙時代에 들어선 것이다. 核이라는 괴물,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인류는 거대한 위협에 처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核의 참화를 예방하고 平和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모순들을 무시하지 않고 과학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理論과 實際상으로 역사 앞에 제기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蘇聯共產黨은 해결의 답을 제시하였다. 그것이 바로 노보예·뿔리찌체스꼬예·므이술레니레(нов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мышление : 새로운 政治的 思考)이다 ..... 原子核·宇宙時代에 있어서 戰爭과 武力政治의 포기, 이것이 곧 노보예·뿔리찌체스꼬예·므이술레니레의 주된 전제개념이다. .... 복잡하고 심각해진 오늘날의 國際紛爭·不和는 과학기술 나아가 군사력 또는 무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政治的 交渉의 방법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 어떤 한 나라의 安全이 다른 어떤 나라의 安全을 희생시키고서 이뤄질 수는 없다. 安全이란 동일한 것이며, 平和와 安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sup>24)</sup>

---

註 24) Правда, 5 Декабря 1986, с. 4. 강조점은 필자의 것임.



결국 고르바초프書記長의 노보예·므이슬레니에<sup>25)</sup> 속에서는 역사상 核時代의 도래와 더불어 전개된 흐루시초프書記長의 소극적(방어적) 平和共存論,<sup>26)</sup> 브레즈네프書記長의 적극적(공격적) 平和共存論<sup>27)</sup>이 이제 과학기술 혁명이 극에 달한 核·宇宙時代に 접어들면서 相互依存的 平和共存論으로 크게 변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相互依存的 平和共存論은 核·宇宙時代に 있어서의 레닌의 “平和共生論(мирное сожителство)”<sup>28)</sup>으로 주장될 수도 있게 되었다.<sup>29)</sup>

한편 노보예·므이슬레니에의 개념에서 核·宇宙時代의 共存 또는 共生の 측면을 내세워 平和攻勢를 통한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軍縮會談을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안정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相互依存的의 측면을 통해서 西歐의 도움 내지는 西歐와의 相互協力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하

註 25) 고르바초프書記長은 최근 「우리나라와 全世界를 위한 빠레스뜨로이카와 노보예·므이슬레니에(Перестройка и новое мышление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и для всего мира)」라는 저서를 썼고, 이 저서에 대한 出版記念會가 지난 11월 1일 모스크바의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다. Правда, 2 ноября 1987.

26) 奇連洙, “蘇聯外交政策의 展開,” 「슬라브研究」, 제 3권(1987), pp.77~80.

27) 上揭論文, pp.80~83.

28) 平和共生(мирное сожителство)이라는 말은 트로츠키가 1917년 11월 최초로 사용했으며, 공식적으로는 레닌이 프롤레타리아國家의 존속을 위해 부르조아政府와의 共存이라는 의미로 1922년 처음 사용하였다. 스탈린도 역시 1925년 제 14차 黨大會에서 平和共生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1927년 제 15차 黨大會에 와서야 비로소 平和共生이란 용어 대신 平和共存(мирное соществование)이라는 용어가 처음 외교원칙으로 등장하였다. 寺谷弘壬, 「소련의 內外政策」, 李昶兩 譯(서울:養英閣, 1983), pp.150~152.

29) В.П. Нихамин и др.,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М.: Политиздат, 1985), с.7.

여 소련의 최고 당면과제인 사회·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유리한 對外 與件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고르바초프 對外政策의 최대목표이다. 바로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의도는 그 자신의 연설들은 물론 그의 노보예·므이슬레니레政策을 뒷받침해주는 소련 科學院 회원 프리마코프(Е. Лри-маков)의 논설 “外交政策의 새로운 哲學(Новая философ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에도 잘 나타나 있다.

核慘禍를 방지하도록, 文明社會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협동동작이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날카로워지고 있는 전인류적인 문제들도 협력하여 각자에게 유익하게끔 해결하기 위해서도 협동동작은 요구됩니다. 두 체제간의 경쟁·대립투쟁과 세계 공동체 국가들의 相互依存性에로의 자라나는 경향의 결합 속에서 오늘날 발전의 현실적인 변증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립투쟁을 통해서 어렵게 일정한 정도 암중모색적으로 모순적이지만 相互依存하는, 많은 면에서 전일적인 세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sup>30)</sup>

과거 우리나라의 對內外政策 사이의 유기적인 連繫는 결코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다.…… 소련의 사회·경제 발전을 급격히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生産費 지출과 나라의 확실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軍備支出과의 相互關係를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sup>31)</sup>

---

註 30) Правда, 26 февраля 1986, с.3.

31) Правда, 10 июля 1987, с.4.

결국 지금까지 고찰해 온 바를 통하여 최근 고르바초프書記長의 對外政策 동향을 분석해 보면, 그는 對內改革, 특히 經濟改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보예·므이슬레니에(새로운 思考)라는 전략적 이론을 바탕으로 국제적 긴장완화를 통한 주변의 안정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즉 對內經濟改革을 위해 對美 적극적인 군축회담을 통한 軍費支出 억제의 시도, 相互依存的 經濟協力の 시도, 西方의 기술 획득 도모, 對西歐 平和攻勢는 물론 사회주의권내의 단결 강조와 더불어 對中國 和解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소련은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 조성의 노력 속에서 1975년 헬싱키宣言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제도적 안정상태에 들어간 유럽보다는 이제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게다가 앞으로 다가오는 世紀에 커다란 經濟的 잠재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는 아시아·太平洋 지역의 極東地域에 더욱 더 강력한 相互依存的 平和攻勢를 펴올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아시아·太平洋 지역의 極東地域에 韓半島는 위치해 있으며, 1民族 2國家로 분열된 상태에서 세계 정치·경제의 주역을 담당하는 美·日·中·蘇라는 4強에게 圍繞당하고 있는 것이다.

## B. 蘇聯의 對韓政策

本稿에서 소련의 對韓政策이라 함은 對韓國, 즉 對南韓政策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 소련이 1945년 韓半島의 해방 이후 韓國政府에 대해 특별히 어떤 정책이라 할만한 것을 실시해 왔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때 이는 극히 부정적이다. 그것은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 소련은 對北韓 지지 일변도의 입장에서 極東 속의 韓半島에 대한 地政學的, 軍事戰略的 정책만을 펴나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南韓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 내지

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에서 국내정치와 상황이나 주한미군을 연루시키는 군사적인 측면만을 들추어 비방 일변도의 논평을 가해왔을 따름이기 때문이다.<sup>32)</sup> 이러한 소련의 對韓姿勢는 1970年代 후반 및 80년대 초반 韓·蘇간에 예·체능인과 학자들의 공공연한 직접 또는 간접적 접촉들이 활발해지고, 간접교역 등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듯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蘇關係는 여전히 실제적인 관계의 개선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소련의 對韓視角이 두드러지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후 소련이 노보예·브이슬레니에政策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對아시아·太平洋 접근정책을 펴면서부터이다. 그리고 그 視角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다.<sup>3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外交政策的 차원에서 소련의 對韓政策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라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現時點에서 결국 “蘇聯의 對韓政策”이라는 연구는 그 내용이 “蘇聯의 對韓視角 분석”으로 정리되어 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관계 전문가·학자들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바로 이점으로부터 관계 전문가·학자들은 對蘇接近方案을 적극 모색해 보아야만 된다는 당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 1. 蘇聯의 對極東 認識

스탈린의 對日牽制的 아시아政策, 후르시초프의 對美牽制的 아시아政策,

註 32) 奇連洙, 「蘇聯의 對韓政策에 관한 主要發言 및 報道」, 국통정 78-12-1469 (서울: 國土統一院, 1978); В.И. Андрианов, “Южная Корея в планах империализма”,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4/80, (1980), с. 194~196.

33) Г.Д. Толорая, “Корея: перспектив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евер-Юг”,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87 (1987), с. 71~76.

브레즈네프의 對中牽制的 아시아政策의 시기를 거쳐 고르바초프時代에 들어선 소련은 이제 노보예·므이슬레니예(새로운 思考)라는 對外政策의 기본 노선을 바탕으로 對世界政策, 對아시아政策을 전개해 나가면서 최근 韓半島를 포함한 極東地域을 우선은 다음과 같이 地政學的, 軍事戰略的인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다.

소련의 對外政策, 특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하나인 極東地域에서의 對外政策이 분석되고 있다. 이곳에는 蘇·美·日·中의 이익이 상호교차되고 있으며, 위험스러운 韓半島의 긴장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極東의 상황은 심각하게 복잡해졌다. 美國은 太平洋에서 자신의 군사력을 증대시키면서 蘇聯, 中國 그리고 朝鮮〔北韓〕의 해안에 해군력을 더욱 더 가까이 전진배치하고 極東의 諸地域에서 전쟁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팀·스피리트》라는 해양군사기동훈련은 더욱 더 도발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으며, 미국의 군함들은 더욱 자주 日本〔東海〕와 「호쯔끄해」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軍事費支出이 전에 자신들의 국회에서 결정했던 국민소득 1%의 선을 넘어섰으며, 軍事裝備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美·日·南朝鮮 간의 軍事同盟組織이 거의 다 이루어져가고 있다.<sup>34)</sup>

그런데 이와 같은 소련의 極東에 대한 軍事戰略的인 측면에서의 인식이 과거와 크게 다른 것은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 前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

註 34) М. С. Капица, “Проблемы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5/87 (1987), с. 3.

核·宇宙時代의 도래와 더불어 소련이 美, 日; 中과 경쟁적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的인 측면은 물론, 軍事安保的인 측면에서까지 相互依存的인 立場임을 공식적인 전제로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소련은 人類共同體가 우선 살아남아야 된다는 과제가 모든 모순, 국가들간의 모든 불화 및 의견의 불일치, 社會運動, 서로 다른 그룹들 간의 이해관계에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자세가 바로 노보예·프이슬레니예의 기본노선이고 또 이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極東과 같은 모순이 팽배해 있는 지역에 완전히 들어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고르바초프書記長의 相互依存的인 平和共存論은 이 지역내의 준비축소와 함께 지역내 국가들 간의 상업경제, 과학기술, 학술·문화의 相互協力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협력은 오늘날 소련의 사회·경제발전 촉진계획에서 최대의 관심사중 하나로 되어있는 시베리아·極東地域의 개발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의견도 구체적으로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sup>35)</sup>

## 2. 韓半島 주변의 狀況

核戰爭에서도 선제공격 및 제2가격력의 우세한 확보가 보다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브레즈네프의 軍事的 優越性 추구를 바탕으로 한 積極的인 平和共存論과 레이건의 힘을 바탕으로 한 對蘇强硬政策의 대결

---

註 35) Правда, 22 Мая 1985, с. 2: 라지브·간디 印度首相 환영만찬 석상의 고르바초프書記長 연설; Правда, 26 февраля 1986, с. 2~10: 제 27次 黨大會의 고르바초프書記長 政治報告; Правда, 24 апреля 1986, с.1,3 : 소비에트政府宣言; Правда, 29 июля 1986, с.1~3 : 고르바초프書記長의 블라디보스톡演說; Правда, 23 июля 1987, с. 1~3 : 고르바초프書記長의 인도네시아 신문 《메르데카》에 대한 답변; М.С. Капица, “Проблемы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은 1970년대 말과 80년대 초의 국제정치기상도를 新冷戰( New Cold War ) 體制로 바꾸어 놓은듯 싶었다. 이러한 시기에 中·蘇 및 日·蘇關係 역시 개선보다는 상호 긴장과 불신이 여전한 상태였다. 반면에 美·日·中의 相互關係는 소련의 對아시아進出 위협을 공동으로 의식하면서 反蘇協力 내지는 反蘇提携體制의 기미까지 보이는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美·中의 접근과 中·日關係의 개선은 소련으로서는 내심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의 발전이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태진전 속에서 집권을 하게 된 고르바초프書記長은 極東地域의 對外政策 수행에 있어서 우선 소련이 對外孤立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政策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軍縮을 위한 美·蘇頂上會談 및 對中國關係 개선에 적극 나서게 되었으며, 對日本關係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관심을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緊張緩和와 平和攻勢를 통한 유연한 對外政策 노선을 고르바초프는 核·宇宙時代의 노보예·프이슬레니예 ( 새로운 思考 ), 즉 相互依存的 平和共存論의 對外戰略으로 합리화 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소련의 對外政策 基本戰略이 極東地域은 물론 세계 어느곳에서나 對美牽制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美·蘇는 세계 도처에서 競合關係에 있어 왔으며 그 대결의 1차적인 정면은 유럽이었고, 아시아는 부차적인 정면에 불과하였다. 즉 소련은 유럽의 정면에서 北大西洋條約機構 ( NATO )에는 바르샤바條約機構 ( WTO )로, 유럽經濟共同體 ( EEC )에는 東유럽經濟相互援助會議 ( COMECON )로 대치·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1975년 헬싱키宣言 이래로는 국제정치기상도속의 유럽이 제 2차 세계대전 후 현상고정의 안정된 상태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는 바르샤바條約機構, 東유럽經濟相互援助會議, 北大西洋條約機構, 유럽經濟共同體와 같은 상호 대치·균형을 이루는 집단결속기구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國際現實 속에서 미국은 특히 極東地域에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일련의 사태진전을 통해 강력한 對蘇優位の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소련도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아시아·太平洋地域을 새로운 對決場으로 인식하면서 “그중 가장 광목할만한 것은 東北亞方面에서의 軍事力 증강이다. 근래 소련은 東北亞 方面에서 陸海空軍의 戰力增強에 血眼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해군의 경우는 그 戰力에 있어서 倍 이상의 증강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 韓半島는 소련에게 死活的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大韓海峽의 통항문제 때문이다. 블라지보스토크에 主基地를 둔 소련의 太平洋艦隊가 東支那海에 주둔하고 있는 그들의 印度洋艦隊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大韓海峽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大韓海峽의 연안국은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소련이 韓半島 전체를 지배하거나 韓半島 전체에 소련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생길 때 소련으로서는 편리하기 그지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sup>36)</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1984년 5월, 22년 7개월만에 이루어진 金日成의 제 9차 訪蘇, 1985년 北韓外相의 訪蘇, 1986년 1월 蘇聯外相의 北韓訪問, 同年 10월 金日成의 再차 蘇聯訪問, 1987년 3월 北韓勞動黨 黨秘書 黃長燁의 訪蘇, 同年 5월 蘇聯國防次官 겸 海軍參謀總長 체르나빈과 역시 國防次官 겸 民防衛司令官 보고로프의 연이은 北韓訪問 등과 함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북한에 대한 소련의 經濟·軍事

---

註 36) 金燦奎, “韓半島의 地政學的 重要性,” 「國際問題」, 182號(1985. 10), p.13.



支援政策이 활기를 띠면서 특히 軍事協力關係가 현저히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니다.

한편 소련은 위에서 언급해 온 바와 같은 地政學的, 軍事戰略的 측면에서의 對아시아攻勢政策과 함께 아시아大陸에서의 緊張緩和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유럽에서 데탕트를 실현시켰던 1975년 헬싱키安保會議과 같은 全아시아安保會議를, 더 나아가 太平洋에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참가하는 太平洋會議까지를 제의하고 나섰다. 다음은 각각 1985년 5월 21일 蘇聯을 방문중인 라지브·간디 印度首相을 위해 베푼 크레믈린의 만찬석상에서 全아시아安保會議를 주창한 고르바초프의 연설, 1986년 2월 25일 第27次 黨大會에서 행한 고르바초프의 政治報告, 1987년 7월 28일 고르바초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행한 太平洋會議의 제의 등에 관한 연설의 일부이다. 이것들은 각각 韓半島 주변의 狀況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고르바초프書記長의 對아시아·太平洋 적극 진출정책의 核心的인 내용들이라 하겠다.

유럽에서는 《(긴장)완화》라는 개념이 태어났습니다. 이 크게 포용력 있는 말에 諸民族이 제기한 모든 것을 요약한 역사적 문서가 헬싱키에서 조인된지 바로 그때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이루어진 것들이 大洋 건너〔미국〕로부터 불어오는 氷風으로 많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것들이 어려운 여건들을 견디어내고 남아서 단단한 뿌리들을 파헤치고, 諸民族에게 뚜렷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도 아시아는 아마도 유럽 못지 않게, 아니 어떤 개별적인 지역에서는 유럽에서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고통스

럽게 평화나 安全保障의 확보에 관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에 아시아大陸과 이곳의 개별적인 어떤 지역에서의 安全保障을 위해 몇몇 상황에 따라 중요한 일련의 건설적인 발의들이 있었습니다 ……

이제 이와 같은 諸發議를 감안하고, 동시에 유럽에서의 방법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아시아에서의 安全保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접근, 그리고 이러한 방향에서 아시아 諸國의 노력을 결합시킬 가능성에 관해 생각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헬싱키로 가는 길도 고르고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의견의 교환과 건설적인 해결의 공동추구를 위해 앞으로 그 어떤 쏘아시아적인 大集會가 실현되기까지 두 나라간의 交涉이나 여러 나라들 사이의 協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sup>37)</sup>

아시아와 太平洋 지역의 意義가 커갑니다. 이 광활한 지역에는 복잡한 모순이 적지 않게 있으며, 그리고 일부地域에서의 政治的 事態가 확고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해결과 자기 앞길을 지체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아마 불건전한 문제들의 政治的 調整을 위한 노력, 그리고 동시에 그 기초 위에서 하다 못해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에서 軍事對決의 첨예성을 없애버리고 거기에서의 정세를 안정시

---

註 37) Правда, 22 мая 1985, с.2.

키기 위하여 그 노력을 상응시키고 그후 단합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sup>38)</sup>

蘇聯은 또한 아시아 및 太平洋의 나라입니다 …… 아시아 · 太平洋地域에서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생각은 허공 위에서 수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 바로 그 경험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반차·칠라(平和五原則)》와 반동諸原則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外交的 經驗으로는 朝鮮에서의 停戰에 대한 긍정적인 모범, 1954년도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會議, 따쉬켄뜨에서의 인도·파키스탄協定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공동의 經濟問題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련의 국가들의 노력이며, 諸般 충돌사태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하려는 시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東南아시아國家聯合(ASEAN)의 활동이나 雙務的 關係에는 긍정적인 것이 적지 않습니다. 《太平洋共同體》라는 기도가 배격된 이후 《太平洋經濟協力》이라는 방안이 토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였으며, 물론 만일 이런 協력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불력의 反社會主義的 계획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차별도 없는 자유로운 토론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協力的 가능한 기초에 대해 깊은 생각으로 가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새로운 世界經濟秩序의 조성과 서방 및

---

註 38) Правда, 26 февраля 1986, с.8.

동방에서의 統合經驗에 관한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광범위한 과학 및 정치적 강구안들이 이런 토론의 나쁘지 않은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깝지 않다고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大洋〔太平洋〕에 접하고 있는 전체 나라들의 참가 아래 헬싱키식의 太平洋會議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만일 그 소집에 대하여 합의를 이룩하는 때면, 회의진행 장소에 대해서도 약속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가 하나의 代案입니다. 원자탄의 첫 희생자인 이 도시가 왜 바로 아시아와 太平洋의 《헬싱키》가 될 수 없겠습니까? 39)

위와 같은 고르바초프書記長의 東아시아安保會議와 太平洋會議에 대한 발의는 이미 그 발상의 연원을 1969년 6월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保 구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더 멀리는 1930년대 초반인 스탈린 時代까지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40) 다만 고르바초프의 對아시아政策이 太平洋地域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며, 특히 經濟的인 측면에서 相互依存的 協助를 促求함과 동시에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변화이다.

한편 韓半島를 圍繞하고 있는 美·日·中·蘇의 相互關係를 소련이 오늘날 어떻게 把握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

---

註 39) Правда, 29 июля 1986, с.2~3.

40) 木村明生, 「아시아 安保構想: 스탈린부터 고르바초프까지」, 金達中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서울: 法文社, 1987), pp.113~144.

음과 같다.<sup>41)</sup> 우선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지만 미국은 政治·軍事적으로 日本 및 南韓과 結탁하여 3角軍事同盟關係를 結成함으로써 極東地域에서의 소련의 行동을 강력히 制限하고자 하며, 日本과 相互協力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소련의 시도를 극히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소련은 본다. 또한 최근들어 미국은 中國을 더 이상 對蘇聯 직접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戰略的 相互作用”의 체제내에서만 인식하고 있을 따름이고, 동시에 中國은 워싱턴의 간청을 거절하면서 완전히 獨立의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련은 생각한다. 또한 미국은 소련과 北韓의 友好協力 증진關係를 軍事戰略的 우위의 추구로 조작·선전하고, 서울측에 대한 군사지원 약속을 계속 강화하면서 駐韓美軍의 지속적인 주둔과 함께 極東에서 자신들의 帝國主義的 패권확장의 전초기지로 南韓을 이용하고 있다고 소련은 주장한다. 이 밖에도 소련은 자신의 對日關係가 최근에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그것은 相互協議에 따른 대화의 결과이고, 앞으로는 특히 經濟的인 측면에서 雙務的으로 더욱 활발히 關係가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은 이제 對美 및 對西歐와의 한계에 이른 關係에서보다 對蘇關係에서 더 많은 國家利益 추구의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소련은 내다보았다.<sup>42)</sup> 마지막으로 소련은 中·蘇關係에 대해서 이제 양국간의 關係는 근본적으로 변하였다고 본다. 즉 과거의 不和를 청산하고 최근 5년동안에 무역량이 몇배나 증가하였으며 經濟·科學技術·文化等 諸關係가 부활되었고, 정부당국자들의 접촉도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경문제 조정에 관한 회담은 물론 더 많은 關係正常化를

註 41) М.С. Капцица, “Проблем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42) Там же, с. 8.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韓半島에서의 非核平和地帶 설정과 軍備縮小에 관한 北韓의 제의에 대해서 中·蘇 양국은 적극적인 의견일치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sup>43)</sup>

### 3. 蘇聯의 對韓政策

蘇聯의 對韓政策은 19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聲明書가 發表된 후 蘇聯이 “물론 韓半島의 問題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南·北韓 자신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韓半島上的 人위적인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韓半島上에 있는 2個 政府間的 經濟的, 政治的 그리고 文化的 關係의 改善이다.”<sup>44)</sup>라고 주장한데서부터 실질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물론 1966年 아시아 集團安保에 대한 蘇聯의 構想이 표면화 되기 시작한 이래로 蘇聯의 對韓姿勢가 과거 韓半島에서 北韓만을 인정했던 스탈린·후르시초프時代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즉 南北共同聲明書 발표 이전인 1969年 6월 브레즈네프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世界 共產黨 및 勞動黨大會 석상에 “현재 急變惡化中인 世界情勢는 世界大戰 도발의 위험이 가장 강한 地域에 集團安保體制의 設立을 强要하고 있다. 특히 나는 아시아에 이런 設立을 제안한다.”<sup>45)</sup> 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보조를 맞춰 모스크바 大學의 자도로지니教授는 곧 “蘇聯이 아시아集團安保를 위해서는 韓國과 협력을

---

註 43) Там же, с. 7~8

44) Правда, 5 июля 1972.

45) Partii-Dokumenty i materialy (國際共產黨 文書 및 資料), 모스크바 1969, p.91. 金淵洙,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張惠煥編, 「蘇聯의 外交政策: 外交政策의 社會·經濟的 背景」(서울: 大旺社, 1983), p.9에서 再引用

해야만 한다.”<sup>46)</sup> 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蘇聯이 韓半島에서 韓國을 체제가 다른 하나의 國家로서 사실상의 政府로 비록 그것이 蘇聯의 立場에서 韓國과의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南朝鮮이라고 칭하기는 한 것이었지만 공개인정한 것은 7.4 南北共同聲明書에 대한 公式論評에서부터였다.

한편 韓國 역시 1969~70年 사이 共產諸國과의 무역 및 政治的 關係의 可能性에 대해서 진지한 고려를 하기 시작했었다. 1971年 韓國政府는 蘇聯과 中國이 “적대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大韓民國의 주권을 인정하면 中·蘇와 外交關係를 가질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韓國의 外交官들은 그들의 蘇聯相對役과 接觸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으며 또한 “非敵性” 共產國과의 交易을 허용하는 諸般規定의 수정을 실시하였다.<sup>47)</sup>

이상과 같은 상호 움직임에 뒤이어 양국 사이에 실제로 일어났던 1973年 5月 國際會議 參席을 위한 韓國 연극인의 蘇聯 入國許可, 같은해 6월의 韓國經濟人聯合會 會長과 韓國 신문기자의 레닌그라드 관광입국 허용, 共產圈에 대한 정식적인 문호개방을 선포하고 또한 이를 요구한 韓國政府의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8월 韓國代表들의 모스크바·유니버시아드大會 참가(당시 北韓은 이에 항의하여大會에 불참하기까지 하였다), 더우기 同年 8月 駐美蘇聯大使 도브르이닌이 韓國의 金東祚 駐美大使와의 비

---

註46) Gregory G., “USSR-China-Rhetoric,” *Far Eastern Economic Review* (Hong Kong), 1971. 4.17. p.11.

47) Ralph N. Clough, “The Soviet Union and Two Koreas,” in *Soviet Policy in East Asia*, ed. Donald S. Zagori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82), p.193.

밀會談에서 “南·北韓 UN 同時加入後 양국간의 國交暗示說”<sup>48)</sup> 등은 國際輿論界에 蘇聯의 韓國承認은 이제 시간문제일 따름이라는 추측을 낳게까지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蘇聯의 우호적인 對韓態度는 北韓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70年代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견지되어 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蘇聯은 1978년 여름 蘇聯의 알마아타에서 개최된 世界保健機構(World Health Organization)會議에 韓國政府의 각료인 保社部長官과 그의 대표단 일행 및 수행기자에게까지 입국을 승인했으며, 한 기자에게는 모스크바에서 서울로의 통화가 허용되고, 지방신문이기는 하지만 당시 까자흐스탄스까야·프라우다는 이 회의를 보도하면서 大韓民國(Republic of Korea)이라는 韓國의 정식 국가명칭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sup>49)</sup> 그밖에도 1979年 8月 第11次 國際政治學會(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을 당시 16명의 韓國政治學者들이 蘇聯을 訪問한 사실과 1980年代初 韓國의 大統領補佐官 咸炳春의 모스크바 非公開訪問, 1981年 6月 大韓貿易協會 副會長이 第12次 世界貿易協會 總會에 參席하여 蘇聯의 對外貿易省 次官과 일련의 非公式 接觸을 가졌던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蘇聯側에서도 1982年 10月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太平洋通信機構會議와 世界博物館協議會 아시아地域會議에 각각 蘇聯의 타스(TACC) 通信社 기자 및 文化財博物館長이 참석한 바 있고, 이어서 1983年 4月에는 서울의 國際協同組合 理事會에 協同組合 關係專門家가 파견

註 48) 「朝鮮中央通信」, 1973년 8월 19일.

49) Clough, “The Soviet Union and the Two Koreas,” p.194.



되었다. 그러다가 同年 9月 KAL機 피격사건으로 韓·蘇關係는 한동안 급격히 冷却되는 듯 하였고, 人的 交流도 중단되는 듯 하였으나 兩國關係는 얼마후 다시 점진적인 증진의 관계로 환원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 이래로 1986년, 1987년에 이르면서 특히 蘇聯의 많은 운동선수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國際運動競技大會에 參席하였는데 과거와는 달리 아무런 부자연스러움도 없이 이들의 도착이며 경기하는 모습들이 大衆放送媒體를 통하여 직접 보도되었다. 이제 서울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각종 競技의 蘇聯 選手들이 蘇聯 마크를 부착한 운동복을 입고서 경기에 임하거나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이 과거처럼 눈에 띄는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진전 말고도 또 하나 蘇聯의 對韓視角에 있어서 劃期的인 變化는 蘇聯의 학자에 의해 南·北韓 相互經濟協力の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極東의 諸問題」誌, 1987年 第1號에 실린 “朝鮮：南·北經濟協力の 전망”에서 필자 딸로라야는 南·北韓이 서로 經濟協力を 통해 相互 利益을 얻게 될 것이며, 나아가 韓半島의 統一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蘇聯科學院 學術誌를 통한 蘇聯 學者의 의견개진은 이제 政治·經濟的인 측면에서 蘇聯의 對韓基本視角도 크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sup>50)</sup>

이상과 같은 韓·蘇 양국간의 接觸動向 및 蘇聯의 對韓視角 변화는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 구상으로부터 시작된 蘇聯의 對韓政策이 앞으로 더욱 發展的으로 지속되리라는 展望을 가능케 해줌과 동시에 머지않아 蘇聯이 韓半島에서의 1民族 2國家 2政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

---

註 50) Г.Д. Толорая, там же.

설지도 모른다는 짐작까지 낳게 해준다. 그러나 이처럼 蘇聯의 對韓姿勢가 1970年代에 들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호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국간에 특별한 關係進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障礙要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1970年代에 들어선 이후 오늘날까지 蘇聯이 韓國에 호의적인 態度를 보이고 있긴 하나 그의 對韓半島政策은 여전히 一方的으로 北韓만을 지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韓國을 美國의 膨脹的인 帝國主義戰略과 결탁한 軍事獨裁政府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51)</sup> 환언하면 이는 蘇聯當局이 韓國을 하나의 體制가 다른 사실상의 國家로 인정하면서 韓國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데올로기를 함께 하는 北韓과 對外問題로 인하여 결정적인 不和의 關係까지를 감수하는 측면이 고려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실로 최근 蘇聯은 對아시아·太平洋政策에서 對西方 相互依存的 平和共存論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내 社會主義國家들의 結속을 보다 強力히 推進하고 있다.<sup>52)</sup> 특히 이점에 관해서는 北韓의 對中國關係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고르바초프體制的 定着과 더불어 蘇·北韓의 關係가 政治·軍事的

---

註 51) 奇連洙, 「蘇聯의 對韓政策에 관한 主要發言 및 報道」: 韓國外國語大學校 蘇聯 및 東歐問題研究所 編, 「80年代에 있어서 매스컴 및 學術雜誌에 나타난 蘇聯의 對韓視角」, 研究叢書 제 12집(서울: 韓國外國語大學校 蘇聯 및 東歐問題研究所, 1986): В.И. Андрианов, “Южная Корея в планах империализма,”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во Востока 4/80 (1980), с. 194 ~ 196 : Правда, 9, 22 марта 1985 및 29 июля 1986.

52) 아키노, 유타카, “고르바초프 「아시아政策」의 基調,” 「國際問題」 206호 및 207號(1987)

인 側面에서 급속히 밀착되어 가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둘째, 中·蘇紛爭의 심화와 더불어 다른 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도모하고 中國을 봉쇄하고자 하는 政策의 일환으로 구상된 아시아集團 安保體制의 거론이 蘇聯의 확실한 실제적 對韓政策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브레즈네프時代까지는 아직 아시아集團 安保體制를 현실적으로 서두를만큼 급하거나 對外的 環境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蘇聯이 이와 관련된 적극적인 對韓政策을 펴지 않았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이제 蘇聯은 고르바초프書記長의 등장과 더불어 달라진 對內外政治氣流 속에서 노보예·므이슬레니에(새로운 思考)를 바탕으로 아시아·太平洋地域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對美·中國對決의 자세보다는 이들과 적극 和解·協助의 자세를 모색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아시아·太平洋 國家임을 強力히 선언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러한 國際環境에 대한 認識·變化 속에서 蘇聯은 對中國牽制用이었던 아시아集團 安保 구상을 全아시아會議, 나아가 헬싱키式 太平洋會議로까지 확대·발전시켜 가면서 노보예·므이슬레니에 속의 相互依存的 平和共存·共生論으로 對世界平和攻勢를 펴고 있다.

이와 같은 國際情勢의 變化감각 認識 속에서 앞으로 蘇聯은 對아시아·太平洋政策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시기를 보아 언젠가는 머지 않아 北韓의 立場은 물론 韓半島 주변의 狀況을 고려해 가며 아주 적극적인 암시로 對韓接近態度를 보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韓國의 地政學的 軍事戰略的 위치나, 아시아·太平洋圈에서의刮目할만한 韓國의 經濟力 성장을 감안할 때 蘇聯으로서의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셋째, 韓國의 政治的 不安定성과 政府 當局의 準備不足이라 하겠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韓國政府가 특히 5.16 事件으로 인한 軍의 政治介入이

있는 뒤로 항상 正統性 시비에 쫓기면서 막연히 그때그때 蘇聯의 호의적 태도에 대처하는 것 이외에 어떤 理論上의 일관되고 確固한 信念을 가지 고서 다각적이며 능동적으로 對蘇接近方案을 모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韓國의 소극적 태도는 물론 韓國이 원천적으로 항상 東·西 양진영의 冷戰에 의한 희생자의 입장에서 이데올로기적 被害意識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데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들어와 韓國政府當局이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의 연장선상에서 對北方政策 宣言 등으로 對共產圈 내지 對蘇接近의 준비를 착실하게 모색해 나가고 있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며 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공식 국가명칭을 사용하여 앞으로 中國과의 國交正常化를 推進시켜 나가겠다고 執權黨의 高位黨職者가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韓國의 對蘇政策에 대한 분위기과 방향을 가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發言임에 틀림없다.<sup>53)</sup>

---

註 53) 朝鮮日報, 1987年 11月 29日 字 1面

## Ⅳ · 對蘇接近方案 摸索

지금까지 本稿에서 고찰해온 바를 통하여 소련의 對外政策 수행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적 양상을 지적해낼 수 있다.

첫째, 어느 시기나 경우를 막론하고 소련의 對外政策은 전통적인 自國安  
保的 戰略·戰術의 차원에서 國家利益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對外政策  
의 결정과 수행은 공식적으로는 언제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통한 共產主義 건설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合理化 되고 있  
다.

둘째, 오늘날 고르바초프書記長이 전개하고 있는 소련의 對外政策은 그 基  
本戰略이 레닌의 平和共生論,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 후르시초프의 消極的  
平和共存論, 브레즈네프의 積極的 平和共存論에 뒤이은 相互依存的 平和共存論이  
다. 또한 레닌과 스탈린時代의 外交政策은 戰爭不可避論的 非核時代 對外戰  
略이며, 후르시초프와 브레즈네프時代의 外交政策은 戰爭可避論的 核時代 對  
外戰略이고, 고르바초프의 外交政策은 戰爭回避論的 核·宇宙時의 對外戰略이  
다.

셋째, 레닌의 對外政策 基本路線인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와 平和共存論의  
辨證法的 相互關係 속에서 진행중인 고르바초프의 對外政策은 노보예·미이  
슬레니예(새로운 思考)의 기초 위에서 무력이나 전쟁에 의하지 않고, 정  
치적 교섭을 통하여 수행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政治·  
經濟, 對內外政策간의 相互連擊論的 立場에서 相互依存的 平和共存이라는 對  
外戰略攻勢와 더불어 對內社會·經濟發展의 촉진 추구하고 함께 더욱 이데올로기의  
측면을 내심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위와 같은 特徵的 양상을 고려해 볼 때 韓國은 對蘇接近을 시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5개의 기본적인 문제를 전제로 숙고한 후에 구체적인 接近이나 接近方案을 摸索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첫째, 이데올로기를 도외시한 蘇聯對外政策의 이해는 가능하지 않다. 특히 蘇聯對外政策 수행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과 平和共存原則의 辨證法的 相關關係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둘째, 그때그때 소련의 현실적인 國家利益의 추구내용이 무엇인가를 명백히 파악해야만 한다. 그것은 帝政러시아는 물론 그 이전의 러시아對外關係까지를 거슬러 올라가 當該時代의 傳統的인 國家利益의 추구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후, 오늘날 이데올로기의 지원을 받아 결정 수행되는 蘇聯外交行態가 對內改革의 목표와 어떻게 連繫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셋째, 韓國은 對蘇關係에서 양국의 이데올로기적 相違性을 분명히 인식하고, 상호 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의 相互補完的 協力關係를 적극 추진해나가야만 된다. 바로 이 相互補完的 協力論은 고르바초프의 相互依存的 平和共存論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그리고 相互補完的 協力的 문제는 이미 앞서서도 언급된 바 있는 蘇聯學者 딸로라야의 논문에서도 南·北相互經濟協力的 제안과 더불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韓國政府는 소련측에 대해 이와 같은 자신의 입장을 항상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르바초프時代에 전개되는 소련의 對外政策에 있어서 相互依存的 平和共存論이 고조에 달하는 시기를 잘 포착하여 적극적인 對蘇接近을 시도해야 한다. 아마도 그 시기는 소련이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宣言을

바탕으로 헬싱키式 太平洋會議를 재차 강력히 거론할 때가 될 것이며, 그것은 소련이 아시아·太平洋地域의 經濟協力活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일 것이다. 또한 美·日·中의 相互關係가 다시 더욱 긴밀하게 발전되고 이에 따라 아시아·太平洋條約機構 ( Pacific Asian Treaty Organization : PATO )와 같은 것이 창설될지도 모른다고 소련이 깊이 우려할 때가 韓國으로서는 소련에 접근할 수 있는 好機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소련의 政治文化 속에 자리잡은 러시아적 傳統의 이해와 러시아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專門家·學者·外交官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능한한 미리미리 많이 양성하는 일이다. 國家와 國家 사이의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人間과 人間 사이의 관계로 좁혀진다고 볼 때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生活樣式과 思考方式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어떠한 정상적인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한 人間の 生活樣式과 思考方式이 궁극적으로는 그가 속해있는 나라의 歷史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도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한 나라의 歷史와 그 歷史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信念體系 ( belief - system )로 형성된 政治文化의 이해는 국가간의 관계를 맺는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문제일 것이며, 이때 상대국 言語의 이해는 일차적으로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제 對內改革과 相互連繫 속에서 노보예·므이슬예니예 ( 새로운 思考 )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고르바초프書記長의 對아시아·太平洋政策을 생각하면서 앞에 언급한 韓·蘇 양국간의 相互關係 증진 장애요인, 오늘날 蘇聯對外政策의 특징적 양상, 韓國의 對蘇接近 시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시도되어질 수 있는 韓國의 능

동적이고도 적극적인 對蘇接近方案들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가 크게 제시될 수 있겠다.

첫째, 政治·外交의인 측면에서 韓國은 소련이 기회있을 때마다 소련이 참가하지 않는 韓半島問題의 거론에 대해 무시 내지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온 점을 고려하여 極東地域에서의 地域安保를 내세워 南·北韓, 美·日·中·蘇 등 6개국이 모체가 되는 일종의 多者間 相互經濟協力 平和會談 같은 것을 주도적으로 제의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多者間的 회담 속에서 각각의 국가들 사이에 雙務關係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곧 고르바초프의 노보예·므이슬레니예에 의한 쑤아시아會議 주장이나 對아시아·太平洋 적극 진출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韓國의 主體性을 살림과 동시에 소련의 제의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일 수가 있어서 中國으로부터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됨은 물론, 北韓에게도 보다 폭넓고 아량있는 韓國政府의 입장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소련의 공식 국가명칭(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을 거론한 國交正常化 제의도 일단은 政府聲明書 형식을 빌어 내놓아 볼 수 있다.

둘째, 軍事的인 측면에서, 앞에 제기한 政治·外交의 接近方法을 성취하기 위해 韓國政府는 무엇보다도 소련과 北韓이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팀·스피리트》 軍事機動訓練을 과시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와 더불어, 機動訓練의 규모, 시기, 회수 등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駐韓美軍에 대해서도 이를 철수시킬 수 없다는 韓國側의 일방적인 논리전개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北韓과 소련을 향해 相互 雙務的인 관계의 발전에 따라 철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軍備縮小會談 진전이나, 地域內的 相互協力的 平和安全保障



體制같은 것의 결성에 따라 駐韓美核基地도 제거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도 있다.

한편 北韓이 제의하고 소련과 中國이 동시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는 韓半島의 非核平和地帶化 및 軍備縮小會談 제의도 對蘇積極接近의 모색을 위해서는 대안의 마련과 더불어 충분히 고려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軍事的인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들 중의 하나는 韓國의 입장에서 美國이나 日本 또는 中國과의 접근관계까지를 포함하여 소련이나 北韓을 자극시킬 소지가 있는 행위는 신중히 삼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련의 경우에는 그의 傳統的 政治文化의 기저에 항상 對外恐怖 및 嫌惡症이 세계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는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셋째, 經濟的인 측면에서 오늘날 소련이 자신들의 사회·경제발전의 촉진을 위해 최우선적인 당면과제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시베리아 極東地域 개발에 韓國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우선 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그것은 이 지역 개발에 韓國이 제공할 수 있는 技術 및 勞動力의 문제를 관계 학자·전문가들을 통하여 면밀히 연구·조사하는 작업이다. 이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相互補完的 經濟協力の 바탕을 전제로 韓國의 입장에서 소련과 相互 交역을 할 수 있는 商品 및 市場構造를 보다 자세히 조사·연구하여 지금까지의 양국간 非公開 間接무역을 직접무역으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도 우선은 政府聲明과 같은 적극적인 公開姿勢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넷째, 社會·文化的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점증되어온 각종 접촉, 상호방문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는 보다 단계가 높은 學術交流를 시

도해보는 것이다. 학술교류는 우선 자료의 교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서의 국내의 여러 연구소에서 수행된 韓國의 對蘇關係 研究資料들을 양국간의 관계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취사선택하여 소련의 大學이나 각종 研究機關에 보낸다. 이를 위해서는 政府가 출선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우편업무를 보장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韓國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도가 소련의 각종 엘리트 그룹 내에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다음 학자·예술가들의 人的 交流를 시도한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對蘇接近方案 摸索은 사실 소련이 韓國社會의 政治的 安定과 民主化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韓國의 經濟發展과 더불어 소련에 의해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權力的 正當性 시비와 함께 社會의 安定과 政治의 民主化가 염려되는 상대방과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대화와 관계발전을 도모해나갈 나라는 국제 무대에서 社會主義國家나 資本主義國家를 막론하고, 또 다른 어떤 體制의 國家라 할지라도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民으로부터 正統性을 부여받아 安定을 확보한 政府가 經濟發展의 기틀 위에 아량있는 입장에서 일관되고 자신있는 對北韓 및 統一政策을 펴나갈 때 南·北關係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蘇聯은 對韓政策에 있어서 北韓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훨씬 덜 받게 될 것이다.

(附錄 I)

## 고르바초프 改革과 金日成의 選擇



## 周邊情勢 研究를 위한 워크샵 結果 要約

### I. 一般事項

가. 日 時: 1987.3.27. 15:00 - 19:30

나. 場 所: 南北對話事務局 會談場

다. 參加者:

金裕南(檀國大)

金富起(外交安保研究院)

鄭漢九(外交安保研究院)

辛承權(漢陽大)

文首彥(崇實大)

奇連洙(外國語大)

라. 討議主題

○ 고르바초프의 改革과 金日成의 選擇

第1主題: 고르바초프 登場以後 蘇聯의 對內外 政策 變化

第2主題: 蘇·北韓關係密着 趨勢와 金日成의 選擇 方向

第3主題: 韓半島 情勢展望과 對應方案 摸索

## II. 討論의 內容要旨

### 고르바초프 登場以後 蘇聯의 對內外 政策變化

#### 1. 改革의 特徵

○ 고르바초프 改革은 위로부터의 改革을 통한 權力體制 強化를 圖謀 하려는 것으로서, 스탈린式 動員體制의 非效率性으로 인해 沈滯된 蘇聯經濟를 活性化 하리는데 目的이 있음.

※ 蘇聯 經濟成長率은 지난 數十年동안 계속 後退 樣相을 보이고 있음

年 代	30-40 年代	50 年代	60 年代	70 年代	80 年代
經濟成長率	15 %	6 %	5 %	4 %	3 %

○ 고르바초프는 體制安定을 해칠 程度의 構造的·全面的 改編을 止揚 하고 있으며, 政治·制度的 側面的 改革(10 - 20%) 보다는 經濟分野의 改革(70 - 80%)에 置重하고 있음.

#### 2. 改革內容

○ 고르바초프는 過去 改革失敗 前轍을 밟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複合的인 高次元의 戰略을 驅使하고 있음.

※ 既存路線에 대한 懺悔(라스카야니에), 政治·經濟의 改編(페레스트로이카), 社會·文化面에서 公開(글라스노스트) 戰術을 驅使하고 있음.

— 懺悔(라스카야니에) : 改革反對 勢力에 대한 迂迴戰略

— 改編(페레스트로이카) : 勞動紀綱確立, 中央計劃 經濟修正등을 통해

經濟效率化 摸索

— 公開(글라스노스트) : 秘密投票, 複數候補制 導入등을 통해 硬直된 官僚制 效率化 摸索

### 3. 對外政策의 特徵

- 國際情勢의 現狀維持 政策으로서 和解, 開放, 多邊化 戰略을 驅使
  - 和解 : 新軍縮 提案등 平和攻勢
  - 開放 : 資本主義 國家와의 經濟協力 擴大
  - 多變化 : 그로미코의 美·蘇 兩極體制的 政策脫皮, 아시아 太平洋重視, 對中共關係 改善
- 對美 核武器 減縮提議는 레이건 行政府의 인기 低下 趨勢와 在來 式武器 優位의 蘇聯 國防力을 감안한 兩面戰術임.

## 蘇·北韓關係 密着趨勢와 金日成의 選擇方向

### 1.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의 核心은 3角軍事同盟 瓦解를 위한 中·蘇關係 改善임.
-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이 現狀維持와 現狀打破의 兩面性을 지닌것은, 對美 對決 回避와 亞·太地域 影響力 擴大라는 矛盾된 路線 追求에 起因함.

### 2. 蘇·北韓關係 展望

- 最近 對北軍援 增加등 蘇·北韓關係 密着은 蘇聯의 亞·太重視 戰略에 따른것임.
- 3者會談 問題에 대해 蘇聯이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는것은 韓半島 問題 解決에 대한 蘇聯의 強力한 參與 意思 때문임.
- 고르바초프의 平和共存 路線과 中·蘇關係 改善 動向으로 미루어 볼 때, 蘇聯은 88 올림픽과 關聯한 北韓 動向으로 미루어 볼 때, 蘇聯은 88 올림픽과 關聯한 北韓의 冒險主義 試圖 可能性을 牽制할 것으로 보임.

### 3. 金日成의 選擇方向

- 最高人民會議 施政演說에서도 나타났듯이, 金日成은 北韓의 經濟的 落後와 南北韓 隔差를 認識하고는 있으나, 그동안 合營法 制定등 部分的인 改革·開放의 試圖가 失敗로 끝났던 經驗때문에 蘇聯式의 改革·開放보다는



既存의 群衆路線을 固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金日成의 選擇은 (1) 强硬挑發 路線 (2) 現政策 固守로 인한 漂流 (3) 穩健 對話路線 追求등의 3가지 類型으로 分類해 볼 수 있음.

— 强硬挑發 路線은 랑군·김포 테러에서 經驗했듯이 國際的 孤立을 自招하는 등 副作用이 너무 크며, 左傾運動圈을 통한 對南攪亂 路線도 큰 效果를 期待할 수는 없음.

— 現政策 固守로 인한 繼續的인 漂流는 根本的 問題解決策이 될 수 없으며 南北韓 國力差異만 深化될 뿐임.

○ 北韓의 落後, 沈滯된 經濟回復을 위해서는 改革·開放路線의 選擇이 不可避하며, 특히 最近의 中·蘇關係 改善 움직임에 따라 더 이상 金日成의 獨自路線 標榜은 困難하리라는 점을 考慮해 볼때, 北側이 對南 穩健姿勢와 積極的 對話姿勢로 나오리라는 展望은 時間問題일 뿐임.

## 韓半島 情勢展望과 對應方案 摸索

### 1. 蘇聯의 選擇이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

○ 蘇聯이 亞·太地域 重視政策에 따른 對韓半島 影響力은 擴大될 것이며, 이는 北韓의 冒險主義 路線 牽制로 이어져 韓半島 緊張緩和에 寄與할 것임.

○ 蘇聯의 對中共關係 改善努力은 金日成의 中·蘇 等距離 外交를 통한 獨自路線 追求를 不許하는 要素로 作用할 것이며 따라서 中·蘇의 對北韓 統制力이 強化될 것으로 豫想됨.

○ 蘇聯이 東歐圈 國家에게 改革을 強要한 事實이 없음을 勘案해 볼때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이 北韓開放 壓力으로 作用한다고 보기는 困難함.

### 2. 韓·蘇關係 展望

○ 現在 韓·蘇關係는 政治分野를 除外한 여러分野에서 制限된 範圍나마 接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漸次 擴大될 可能性이 豫想됨.

※ 蘇聯과의 間接 貿易規模 年間 3億\$

○ 시베리아 開發에 대한 韓國企業의 本格的 參與는 經濟的 採算性 때문에 2000年代나 可能할 것임.

※ 83年 시베리아 가스파이프 敷設工事時 合作 摸索

※ 今年內 韓國企業의 시베리아 合作 投資 妥結期待

○ 美國의 對北韓關係 緩和措置는 韓·蘇聯關係 改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保留되어야 한다고 보며, 今番 美國의 措置는 時期尙早임.

○ 蘇聯의 88 올림픽 參加는 確實하며, 올림픽을 契機로 韓·蘇關係 改善과 韓半島 緊張緩和 問題는 劃期的인 轉機를 맞을 것으로 豫想됨.

### 3. 우리의 對應方案

#### ○ 北韓開放化 誘導

— 北韓의 根本的 政策變化는 金日成 死後에나 可能하나, 經濟的 落後性 脫皮를 위한 部分的 開放試圖의 틈을 이용한 我側의 積極的 對應이 必要함.

#### ○ 北方外交 強化

— 對美 依存的 外交 脫皮, 中·蘇와의 關係改善을 積極 推進함으로써 北韓의 冒險主義 路線을 牽制할 必要가 있음

#### ○ 國內問題

— 88 올림픽을 앞두고 北韓에 幻想을 줄 수도 있는 內部 混亂은 止揚해야 함.

— 南北對話 再開時 중구난방式의 對話進行을 拂拭시키기 위해 統一問題의 總括 機構設置가 바람직 함.

※ 南北 共同委員會 및 各分科委員會 設置考慮



(附錄Ⅱ)

# 新 べ お ら だ 宣 言



# 全 文

兩國 및 兩黨은 宣言에서 相互關係의 原則 및 目的을 再確認하고, 現代의 國際問題 및 非暴力·非核世界 創造의 方法에 관한 見解를 말할 決意를 하였다.

## 第 1 章

1. 兩國은 베오그라드宣言(1955年) 및 모스크바宣言(1956년)의 普遍的 原則, 특히 獨立·主權·領土保全 및 形態의 如何를 不問한 內政不干涉에 대한 相互尊重의 歷史的·永久的 價値를 強調한다.

이들 原則의 繼續의 適用이 國家關係의 正常化와 綜合的이며 安定된 協力에 主要한 役割을 다해왔다.

兩國은 社會主義發展의 獨自의 進路 및 形態, 그리고 相異한 國際的 立場의 無조건 尊重에서 생기는 兩國關係를 構築發展 시키고 있다.

2. 過去의 痕迹 및 重荷는 다같이 確立한 原則의 嚴守에 의하여 除去되었다.

雙方은 全般的인 2國間關係를 한층 더 높은 水準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全分野에서의 信賴와 協力の 더 한층의 向上에 그 主要活動을 기울일 것이다.

雙方은 全水準에서의 政治對話의 發展 및 政治·社會組織間에 걸쳐서 유고·蘇聯內 共和國·自治州·市·勞動組織·國民間의 直接的·效果的 協力の 促進에 특히 注目할 것이다.

3. 安定的이고 互惠的인 基礎的 經濟協力の 發展은 全般的인 關係에서 가장 重要的 事項이다.

兩國은 最新의 形態의 導入과 長期的인 特化 및 共同生産을 擴大하며 貿易構造의 促進과 安定되고 均衡잡힌 貿易의 確保를 위해 努力 한다.

2000年까지의 經濟協力長期프로그램 및 코메콘 內에서의 科學技術發展 複合프로그램 (CPS TP)의 프로젝트 履行에서의 兩國組織의 參與는 이 같은 目的에 寄與할 것이다.

雙方은 文化·科學·技術 및 情報 其他의 分野에서의 接觸의 擴大를 促進한다.

雙方은 兩國의 偉業과 問題 및 政策에 관한 客觀的인 報道는 相互理解와 信賴의 強化에 이바지한다고 確信한다.

## 第 2 章

1. 兩黨은 達成된 相互關係의 水準을 높이 評價하며 獨立·平等·不干涉의 原則과 自國에 있어서의 勞動者階級과 人民에 대한 黨의 책임 및 社會主義 建設의 相異한 길의 相互尊重, 그리고 國際的 立場에서 생기는 黨關係를 더욱 發展시켜 實質的이고 풍부하게 만들 用意가 있다는 것을 確認한다.

兩黨은 바로 이와 같은 基準에 立脚하여 自發的이며 相互利益이 되는 協力과 建設的이며 同志的인 對話를 促進시켜 나간다.

獨自의 發展의 길의 探究에 있어서 黨과 社會主義 國家의 自主性和 獨立성을 繼續的으로 相互 尊重함으로써 지난 1948년에 일어났던 유고共產黨



과 蘇聯共產黨·코민포름간의 충돌의 原因들을 拂拭할 수가 있었다.

이것은 兩黨간의 相互關係 뿐만 아니라 世界的인 發展道程으로서의 社會主義의 發展과 主張을 위해서도 매우 重要하였다.

兩黨은 그 누구도 眞實의 獨占權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確信에서 스스로의 社會的發展 概念을 남에게 強要할 權利를 가지지 않는다고 宣言한다.

社會主義에의 어떠한 길이 成功했는가는 社會·政治的 實踐으로서 檢討되고 또 社會的 發展의 成果로서 確認된다.

兩黨은 兩國의 社會主義發展의 問題들과 世界全體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諸問題들등에 관하여 廣範한 見解와 經驗의 交換을 하기 위하여 協力關係를 풍부하게 하며 繼續的인 政治的 對話를 促進하도록 努力한다.

雙方은 各國의 特殊性에 相應한 社會主義 自主管理의 發展이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社會主義 自主管理는 人民의 純粹한 權限과 個人的 自由를 確保하는 한편, 社會主義의 어떠한 行政的·官僚的인 歪曲이나 獨斷主義 및 恣意에 대한 信賴할 만한 保障이다.

社會主義 自主管理라는 政治시스템의 發展過程에서 얻은 尤고의 經驗과 社會主義 自主管理를 一貫되게 실행하려고 하는 蘇聯人民의 方針은 自主管理 機能과 關係되는 現代의 形態와 방법에 대한 相互認知로서 雙方이 利益을 享受할 새로운 可能性을 開拓하는 것이다.

2. 兩黨은 각자 스스로의 社會發展의 길을 獨自的으로 決定하는 絶對的 權利에 基礎하여 共產主義者, 勞動者, 社會主義者, 民族解放運動과 그밖의 進歩主義的인 黨과 運動간의 關係에 있어서의 民主主義原理의 普遍的인 重要

성을 再強調한다.

兩黨은 相互의 이데올로기의 相異에도 不拘하고 進歩主義的인 黨과 運動  
間에 있어서의 可能的 廣範하고 公平한 協力を 呼訴한다.

이러한 協力は 時代의 요구이며 緊急을 요하는 國際政治 經濟問題의 解決  
과 勞働者 階級의 利益實現, 民主主義 社會發展에 있어서 매우 重要하다.

第 70 次 10 月革命紀念 祝賀式典에 즈음하여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黨 및  
運動集會는 對話의 強化와 相互理解에 이바지 하였다.

그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現代의 問題들에 관한 建設的 意見交換이 새  
로운 民主的인 분위기속에서 이루어 졌었다.

3. 社會主義 發展은 重大한 轉機, 즉 物質的·精神的 潛在力을 보다 完全  
하게 實現시키고 人道主義的 基盤을 強化시키는 入口에 到達하였다.

社會主義諸國에 있어서의 改革 및 急進的인 變革은 社會主義의 生存能力  
과 時代의 요청에 卽應할 수 있는 準備能力을 涵養하는데 있다.

人類는 現在 重要한 決定을 하지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人類는 普遍的인 發展의 길로 나설수도 있으며, 現存하는 矛盾들을 더욱  
더 惡化시킬수도 있다.

人類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모든 進歩的인 民主的 努力들이 世界의 進展  
하는 變化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視點을 提示하고, 個人 및 社會로서 人類  
가 直面하고 있는 수 많은 諸問題들에 對應할 能力이 있느냐 없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

### 第 3 章

人類가 直面하고 있는 豫期할 수 없는 諸問題에 대해서는 國際社會는 相互依存하고 있다는 理解와 새로운 政治的 接近方法 및 責任의 強化로써 對應해야 할 것이다.

1. 兩國 各自의 特殊性에 關係없이 平和와 獨立·平等의 政策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確認하고, 또 모든 國家들間的 平和共存·緊張緩和·平和的 手段에 의한 紛爭解決·平等한 協力·信賴 雰圍氣造成·開發途上國을 비롯하여 各國發展의 與件造成을 위한 原則과 政策의 一貫된 實施의 重要性을 強調한다.

UN憲章과 CSCE最終文書외에 侵略과 內政干涉을 禁하는 國際法規에 包含된 原則의 一貫된 遵守가 특히 重要하다.

2. 國際關係의 民主化는 모든 國家들이 모든 國際問題들의 檢討와 解決에 平等의 立場에서 參與하는 權利를 包含한다.

兩國은 UN의 強化와 모든 國家들과 國際社會의 利益하에 國際紛爭問題 解決에 대한 UN의 役割과 貢獻의 強化를 促求한다.

3. 平和와 各國이 獨自의인 發展의 길을 選擇하는 權利등을 一貫하여 尊重하는 非同盟政策이 現代世界에서 점차는 役割은 크다.

同政策은 모든 帝國主義와 植民主義 및 人種差別主義 그리고 어떠한 侵略이나 霸權主義, 經濟·政治的 差別등 國際協力を 좁은 進度의 테두리속에 制限하려는 試圖등에 反對하고 있다.

그 목적은 國際協力の 擴大 및 現存의 障礙·對決·偏見등의 克服 除去에 있으며, 同政策은 時代의 要請과 國際社會의 利益에 副應하는 것이다.

4. 兩國의 武力은 威脅도 없고, 恐怖와 暴力이 信賴와 安定으로 變하는 世界의 實現이 可能한 것으로 確信한다.

各國의 安全이 全體의 安全에 基礎하고 있는 世界에 있어서, 그 實現의 제일보다는 軍備競爭의 停止와 核과 通常兵器의 削減에 나서는 일이다.

核武器의 明確한 削減이 美·蘇 INF 合意로써 開始되었다.

核實驗 全面禁止, 宇宙의 軍事利用禁止, 모든 大量殺戮兵器의 廢棄등에 관한 條約의 起草와 締結이 急務이며 또 可能하다.

이러한 目的의 達成에는 多國間交渉등 모든 國家들의 貢獻이 必要하다.

이로써 解放된 資源과 技術등은 開發途上國의 開發등 開發目的에 利用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나라와 人類의 利益이 되는 歷史的 轉換이 될 것이다.

5. CSCE精神을 確信하고 있는 兩國은 CSCE參加國들에 의하여 採擇된 最終決意文書의 履行을 促求한다.

이는 歐洲에 있어서의 信賴와 協力の 確立에 있어서 重要하다.

歐洲의 國境地域의 不可侵性에 관한 條約의 遵守는 특별한 重要性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歐洲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 이러한 積極的인 過程은, 歐洲의 安全에 깊은 關係가 있는 地中海를 安定된 平和와 協調의 地域으로 轉變시키도록 끝까지 擴大되어야 한다.

6. 大陸間 紛爭의 解決은 UN憲章의 原則들을 基礎로하여 모든 國家 및 國民의 正當한 利益을 守護하면서 政治的 手段을 통하여 行해져야 할 것이다.

7. 兩國은 人間尊重을 重視하고 있으며, 世界에 있어서의 人權의 充分하고 一貫된 遵守를 要求한다.

이들 權利와 自由들 중에서 重要한 生活條件 造成과 勞動結果의 管理에 의 參加 및 自國의 社會·政治關係에 直接 影響力을 行事하는 것이다.

8. 모든 나라 및 世界의 安定的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國際 經濟關係들의 徹底한 改革이 必要하다.

초미의 經濟問題들의 緊急하고 참된 解決은 世界의 安定과 進步에 있어서의 利益이며, 이것은 특히 開發途上國들의 債務問題와 貿易面에서의 이들 諸國에 대한 差別 및 開發技術에 대한 制限된 接近의 問題에 관하여 該當된다.

新國際經濟秩序의 確立은 모든 國家들에 있어서의 이익이며, 또한 모든 國家들의 貢獻이 要求되고 있다.

9. 環境保護改善은 生活向上과 經濟發展의 重要한 前提條件의 하나이며, 兩國은 이 分野에서의 開發과 協力에 貢獻할 것을 約束한다.

## 結 論

世界文明은 새로운 發展段階에 와 있다. 人類는 모든 國家의 共同의

노력을 통하여 그 發展을 이룩할 수 있다.

自由·獨立·國家와 個人的 尊嚴 및 生活·人間的 創造性的 全般的인 發展이 最大의 價値를 構成하는 世界를 만드는 것은 모두의 利益이다.

이를 위해서는 世界는 不可分하며 一部の 進歩는 全體의 進歩의 一部로서만 可能한 것이며, 物質·精神的 財産과 科學技術의 業績이 分割狀態의 克服 및 모든 國家들의 發展을 위하여 새로운 歷史를 開拓한다는 確信에 뿌리박은 새로운 接近方法과 善意 및 새로운 政治哲學이 要求된다.

이러한 理想을 追求하여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서 兩國 및 兩黨은 서로 平和와 一般的 安全과 進歩를 위한 스스로의 責任을 認識하는 다른 여러 國家들 및 歐洲國家들과 協力해 나갈 것이다.

北方政策研究資料 시리즈 ㉑

---

## 蘇聯의 改革·開放과 韓半島

1988年 12月 日 印刷

1988年 12月 日 發行

發行處：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第5 研究官室)

TEL : 720-2 1 4 5

印刷所：輝文印刷株式會社

TEL : 735-2 5 2 3 ~ 4

---

〈非賣品〉

